

리아후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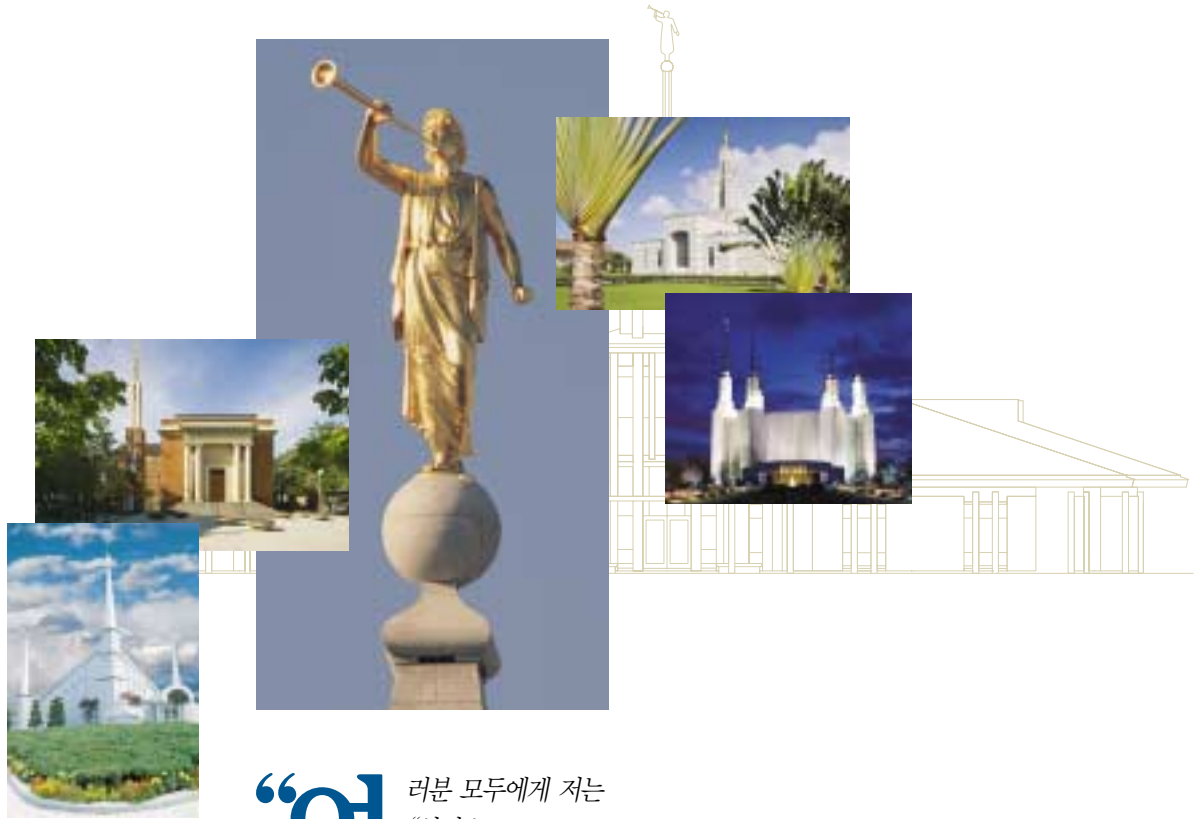


커버 스토리:

성전으로
오십시오, 14쪽

7년을 기다린 가치, 29쪽

우리 오빠는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친12쪽



“여 러분 모두에게 저는
 “성전으로
 오십시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엔다우먼트와 축복을 받고 주님과
 성약을 맺기 위해 성전에 가는 생애
 단 한 번의 특권을 고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한두 번 정도 가
 보셨을지도 모릅니다. 자주
 가시는데도 모릅니다. 또는 집행자로
 봉사하고 계시는데도 모릅니다. 어떤
 경우든, 성전으로 오십시오.”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성전으로
 오십시오”, 14쪽 참조.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 판 공식 잡지입니다

제일회장단: 고든 비 힐글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스 이 파우스트

심사도 위원회: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톨 페리, 러셀 엠 넬슨, 달린 에이치 욱스, 엠 라셀 벨라드, 조셀 비 워스런, 리처드 지 스킵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헨리 비 아이어링, 디아터 예프 우흐트도르프,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편집인: 제이 이 젠스
고문: 게리 제이 폴먼, 요시히코 기구찌, 제럴드 앤 렌드, 더블류 더글라스 섬웨이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엘 프리스네호트

편집 책임자: 빅터 디 케이브

선임 편집인: 래리 힐러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편집인: 제니퍼 엘 그린우드

공동 편집인: 라이언 카, 아담 시 울슨

보조 편집인: 수잔 배럿

편집 스태프: 크리스티 번즈, 린다 스탈 쿠퍼,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리켄 포터 고트, 캐리 카스텐, 멜리사 메릴, 마이클 알 모리스, 샬리 제이 오데카코, 주디스 엠 팔러, 비비안 폴슨, 조슈아 제이 파키, 리처드 엠 톨니, 제니퍼 로즈, 돈 엘 설, 재닛 토마스, 폴 벤덴버그, 줄리 워렐, 킴벌리 엘

선임 비서: 모니카 엘 디간스

마케팅 부장: 래리 힐러

관리 미술 책임자: 엠 엠 가와사키

미술 책임자: 스킵트 밴 캄펜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디자인 및 제작 스태프: 엘리 알 아로오, 콜레트 네베커 오온, 하워드 지 브라운, 줄리 버넷, 토마스 에스 차일드,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티안, 캐슬린 하워드, 애릭 피 존슨, 드니스 카버, 지니 제이 날슨, 랜달 제이 픽스톤

사진 인쇄: 제프 말 마틴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유크

배부 책임자: 랜디 제이 번스

통 권: 제499호, 제44권, 제10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07년 10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 운 환

편집인: 박 송 호

번역 책임자: 박 환 수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7,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30,6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6,0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54,000원이며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와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패 ☎ 02-2232-1441, 교환 45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또는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리아호나-나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문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른 언어로 출판된,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셜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비아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산할리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카리비시어, 타갈로그어, 타밀어, 타이어, 타히티어, 텔루구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하이티어, 헝가리어, 힌디어 언어에 따라 발행 횟수는 다양함

© 2007 by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영어는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다른 언어는 "world map"을 클릭하십시오.

October 2007 Vol. 31 No. 10.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521-497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성인

- 2 따라야 할 모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8 사원의 나라에서 마음을 돌이킴
아담 시 울슨
- 14 성전으로 오십시오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 25 방문 교육 메시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함으로써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됨
- 26 읽고 쓰는 능력은 삶을 향상시켜 줌
- 32 여러분의 힘을 위하여:
본부 청녀 회장단과의 대화
- 40 동성애로 힘들어하는 자들을 도움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 44 후기 성도의 목소리
길베르토 아저씨의 기억력 에스더 라비브 드 베루벤 교회로 가는 길 스티븐 베이 누가 내 머리를 돌렸을까? 힐도 로실로 플로레스 가정복음교사와 기도함 주디 스톤
- 48 애독자 편지



8 사원의 나라에서 마음을 돌이킴

표지

앞: 사진 촬영: 로레나 파쉴토, 모델이 포즈를 취함. 뒤(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한국 서울 성전; 사진촬영: 플로이드 홀드먼; 덴마크 코펜하겐 성전과 천사 모로나이 상: 크레이그 다이어몬드; 가나 아크라 성전; 놀런 차일즈; 워싱턴 디시 성전: 크리스티나 스미스

친구들 표지

그림: 스티브 크롭

가정의 밤을 위한 제안

다음 제안은 가정에서만뿐만 아니라 교회 공과반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가족이나 반원들의 상황에 알맞게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성전으로 오십시오”, 14쪽: 기사를 활용하여 성전에서 집행되는 의식들을 나열한 후 성전 예배를 통해 오는 축복에 대해 토론한다. 성전에 가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함께 나눈다.
“시작까지 견뎌”, 29쪽: 가족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을 만든다. 가족이 보고 냄새를 맡을 수 있도록 간식을 내놓는다. 당장 먹고 싶더라도 기다려야 한다고 말한다. 마리아의 이야기를 나눈다.

좋아하는 간식을 먹는 것과 마리아가 침례와 확인을 받기 위해 기다려야 했던 것을 비교한다.

“여러분의 힘을 위하여”, 32쪽: 한 주 전에 가족 각자에게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나오는 한 가지 표준에 대해 짧은 말씀을 준비해 달라고 부탁한다.



지상에서의 평화



주님의 집에서 찾으라.
(학개 2:9, 찬송가, 186장 참조)



29 시작까지 견담

청소년

- 19 선지자에 대한 간증
클라udia 알 엠 코스타 장로
- 22 질의 응답: “저는 어느 날 니파이전서 7:12을 읽었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그분을 믿는 신앙을 행사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만사를 행하실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나요?”
- 29 시작까지 견담 *마리아 카네바*
- 38 특별한 책, 특별한 대답
그리고어 에이 타테보시안
- 49 포스터: 지상에서의 평화



19 선지자에 대한 간증

어린이: 친구들

- 친2 빈 수레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
- 친4 함께 나누는 시간: 너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엘리자베스 릭스
- 친6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의 생애에서: 어려움을 극복함
- 친8 친구가 친구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예지니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 친10 노래: 가정 *캐롤린 아이어링 마이너와 케이 뉴얼 데일리*
- 친11 색칠하기
- 친12 마이클을 그리워함
세일라 킨드레드
- 친14 친구 사귀기:
신앙 안에서 자라남 —
*몽골 울란바토르의 윤돈잠츠
돈 엘 설과 줄리 와델*

친12 마이클을 그리워함



이번 호에 숨겨져 있는 몽골어 정의반 반지를 찾으려
다른 사람들과 여러분의 간증을 나누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세요.

이번 호의 주제들

친-친구들	신앙, 2, 22, 29, 친14쪽
가정 방문 교육, 6, 47쪽	이론 신권, 친 14쪽
가족, 친10쪽	예수 그리스도, 2, 22, 25, 40쪽
가족 역사, 8, 44, 46쪽	우정 증진, 29, 45, 친12쪽
간증, 19, 친4쪽	유머, 친6쪽
경전, 38, 친8쪽	의식, 14쪽
교육, 26쪽, 친8쪽	인내, 29쪽
구원의 계획, 40쪽	읽고 쓰는 능력, 26쪽
기도, 29, 47쪽	재림, 25쪽
도전 과제, 29, 40, 47, 친6쪽	준비, 25쪽
동성간의 호감, 49쪽	지식, 친8쪽
방문 교육, 25쪽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32쪽
봉사, 45, 47, 친2쪽	청소년 프로그램, 29, 32쪽
선교 사업, 19, 29, 38, 친4, 친11쪽	초등학교, 친4쪽
선지자를 따름, 2, 19쪽	표준, 32쪽
성전 사업, 8, 14, 47쪽	
순종, 2, 19, 32쪽	
스펜서 더블류 김볼, 친6쪽	

말씀을 나눈 후 그 주 동안 가족으로서 함께 지키고자 노력할 수 있는 표준 한두 가지를 택한다.

“빈 수레”, 친2쪽: 공과 시작 전에 가족 각자의 이름을 종이 쪽지에 적는다.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의 이야기를 나누고 기사 마지막에 나오는 질문들에 대해 토론한다. 그런 다음 가족들이 종이 쪽지 한 장을 고르게 한다. 자신이 고른 쪽지에 적혀 있는 사람을 위해 그 주 동안 그 사람 모르게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마이클을 그리워함”, 친12쪽: 이야기를 읽고 나탈리가 오빠를 어떻게 도와주었는지에 대해 토론한다. 가족들이 요한1서 4:21을 찾도록 한다.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교회에 정기적으로 나오지 않는 친구에게 짧은 편지를 쓰도록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다. 또한 어린이들은 그 친구가 초등학교 또는 다음 초등학교 활동 날에 참석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따라야 할 모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몇년 전에 저는 교회의 한 출판물 표지에 칼 블로흐의 훌륭한 그림이 실려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 그림은 사가랴의 부인 엘리사벳이 예수의 모친 마리아를 환영하는 장면으로, 화가가 그의 머릿속에 그려 두었다가 나중에 장인의 손길로 캔버스 위에 옮겨 놓은 것이었습니다. 두 여인 모두 기적적인 잉태로 태중에 아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벳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침례 요한으로 알려졌습니다. 마리아의 아들 예수와 마찬가지로 요한의 경우에도 유년 시절에 대해 기록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태어나서 성역을 베풀게 될 때까지 요한의 생애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단 한 구절이 전부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리라”¹

요한의 메시지는 간결했습니다. 그는 신앙, 회개, 침수로써의 침례, 그리고 자기보다 더 큰 권능을 지닌 자에 의해 성신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요한은 그를 따르는 충실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² “나는 물론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실 것이요”³

그 후에 예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으며 나중에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⁴

우리 모두는 표준, 즉 따라야 할 모범이 필요합니다. 침례 요한은 그의 뒤에 오실 분, 곧 인류의 구주에게 항상 경의를 포함으로써 참된 겸손이라는 완벽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신앙의 모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에 따랐던 사람들에게 관해 배울 때 우리 영혼은 다음과 같은 속삭임을 듣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⁵ 그분의 계명을 굳게 지키고 신뢰할 때 그들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들의 모범을 따를 때, 이 시대에 비슷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각자 따라야 할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에 관한 훌륭한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번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일은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불 뿜는 나무를 주워 모아 들고 번제를 위해 지정된 장소까지 가던 그의 심정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았을 때]” 분명 그의 몸과 마음은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였을 때” 그에게 주어진 다음의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에 따른 다른 사람들에게 관해 아는 일은 우리 영혼에 다음과 같이 속삭여 줍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도 그들의 모범을 따를 때, 이 시대에 비슷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각자 따라야 할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노 아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따랐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필멸의 세상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항상 올바른 수 있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명령을 그는 기쁨 섞인 놀라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⁶

아브라함은 분명 절대적인 순종의 귀감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자신이 겪는 어려움을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면 욥기를 읽어 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다음과 같이 느낄 것입니다. “욥이 인내하고 극복할 수 있었다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⁷ 행동이 경건하고 부자였던 욥은 어떤 사람이라도 파멸시킬 만한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산을

하늘에 계시고 나의 증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⁹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¹⁰

욥은 끝없는 인내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우리는 오랫동안 고통을 겪는 사람을 가리켜 “욥의 인내”를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는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을 보여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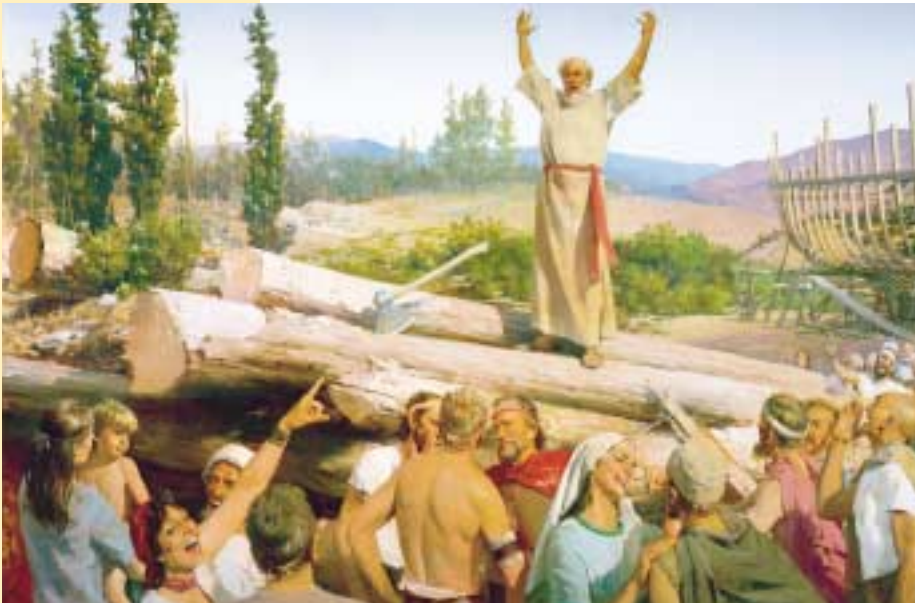
순종하며 살아감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였”¹¹던 사람은 선지자 노아였습니다. 어렸을 때 신권에 성임된 “그는 의의 전도자가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신앙, 회개, 침례 및 성신을 받음 등을 가르쳤습니다.”¹² 그는 그의 음성을 듣고도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홍수가 임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그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와 가족이 멸망으로부터 구원 받을 수 있도록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살아 있는 모든 생물들을 한 쌍씩 모아 그들도 홍수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게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반세기 이전에,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님(1895~1985)은 연차 대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날 만한 징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의 경고는 열도당토 않은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햇볕이 내리쬐고 생명체가 평상시대로 움직이고 있는 메마른 땅에서 방주를 짓다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나 주어진 시간은 모두 지나갔고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순종치 않은 자들은 익사하고 말았고 신앙을 행사함으로써 지은 방주는 기적을 가져왔습니다.”¹³

노아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따랐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때로



없고, 친구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고통으로 괴로워하며 가족을 잃어 좌절한 그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⁸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유혹을 거절하고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을 외칩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필멸의 세상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항상 올바른 수 있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적인 여성의 모범은 룯입니다. 룯은 훌륭한 두 아들을 잃어 고통과 시름에 잠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오미의 영혼을 괴롭혔을 절망과 외로움의 고통을 느끼며 충절에 대한 고전적인 말씀이 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음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¹⁴ 룯은 그녀가 한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나오미에 대한 룯의 변함 없는 충절을 통해 그녀는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외국인인 모압 출신의 개종자인 그녀는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고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순종의 모범

이제 저는 물론경에서 리하이와 새라이아의 아들인 위대한 선지자 니파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충실하고 순종했으며 용감하고 담대했습니다. 라반에게서 낚싯판을 가져오라는 어려운 임무가 주어졌을 때 그는 불평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든 명하시는 대로 이를 수 있는 방편을 미리 마련치 아니하시고는 명하지 않으심을 제가 아오니, 주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행하겠나이다.”¹⁵ 어쩌면 이러한 용기 있는 행동이 찬송가 “쇠막대”에 있는 권고의 기사를 쓰도록 영감을 주었는지도 모릅니다.

옛 선지 니파이에게



한 시현 보였네. ...
잡으라 강한 막대기
하나님의 말씀
그 막대기 우릴 안전히
인도하여 주네.¹⁶

니파이는 지치지 않는 결의의 상징이요 모범이었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에 관해 이야기할 때 이 경륜의 시대의 첫 번째 선지자였던 조셉 스미스를 빼놓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완전한 이야기 가 아닐 것입니다. 열네 살 밖에 안 된 이 용감한 소년은 후에 성스러운 숲이라고 불린 곳으로 들어갔고, 그가 드린 진지한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숲에서 받은 영광스러운 시현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했을 때 조셉은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시현을 보았다. 내가 그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알고 계심을 내가 알고 있었기에, 나는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으며 감히 그렇게 하려고도 하지 않았다.”¹⁷

도처에서 반대에 직면했지만 항상 주님의 인도를 받아 조셉은 단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는 모든 행동에서 용기를 보여 주었습니다.

생애의 마지막을 향해 그의 형 하이럼과 함께

오 늘날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또 한 분 계시니,
바로 우리의 사랑하는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입니다.
힝클리 회장님은 전 세계의
교회 회원들이 성스러운
축복을 받도록 끊임없이
일해 오셨습니다.

카테지 감옥으로 끌려가면서 그는 앞으로 닥칠 일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용감하게 맞섰으며 그의 간증을 피로 인봉했습니다.

인생의 여러 시련에 직면할 때 우리 모두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보여 준 담대한 용기를 우리 가슴속에 담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관주의의 모범

오늘날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또 한 분 계시니, 바로 우리의 사랑하는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입니다. 그분은 역사상 수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가장 크게 확장된 교회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분은 교회 지도자들이 이제까지 가 본 적이 없는 나라들을 방문하셨으며, 세계 전역에 있는 정부 지도자들과 회원들을 만나셨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분의 마음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분은 예언적인 비전으로 영구 교육 기금을 제정하여 세계의 여러 지역에 사는 회원들의 빈곤의 사슬을 깨뜨리고 젊은 사람들이 기술과 훈련을 통해 보수가 좋은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셨습니다. 이 영감 받은 계획은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주었으며, 이제 그들은 밝은 미래에 대한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힝클리 회장님은 모든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에 성전을 짓도록 하심으로 전 세계의 교회 회원들이 성스러운 축복을 받도록 끊임없이 일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갖고 있던 상관 없이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시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확실한 낙천주의의 모범이시며 우리는 그를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존경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분들의 특별한 성품들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와 시련에 대처할 때 아주 소중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오클랜드에 있는 폴라드 가족의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족의 신앙

몇년 전, 타빌리 조셉 사무엘 폴라드 장로는 짐바브웨에서 그의 선교 사업 마지막 날에 선교부 사무실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가 운전하고 있던 선교부 차가 어찌된 일인지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회전하기 시작했고 결국 나무를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폴라드 장로의 동반자는 구출했으나 폴라드 장로는 의식을 잃고 차안에 갇혀 있었고,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공부한 후에,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격려하면서 이 메시지를 나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가족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들, 예를 들어 먼 나라의 지도나 특이한 꽃 등을 그려보라고 한다. 그런 뒤, 그 사물의 그림을 보여주고 다시 그려 보라고 한다. 모범이 어떤 도움이 되는가? 삶의 모범으로서의 선지자를 활용하려는 몬슨 회장의 말씀과 연관시켜본다. 선지자의 모범이 여러분을 어떻게 도왔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나눈다.

2.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따르는가? 이런 지도자들의 자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한다. 세상이 따르는 모범과 이 글에 나온 선한 모범을 비교해 본다. 가족들에게 의로운 남성과 여성의 영적인 특성을 택하고 따르도록 권유한다.

3.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아이들에게 박수를 치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등 몸짓을 따라 하게 한다. 타인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토론한다. 가족들에게 선한 모범을 생각해 보게 한 뒤 그들의 답변을 보충하기 위해 이 글을 이용한다. 따라서 할 가장 위대한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몬슨 회장의 간증으로 끝맺는다.

차는 불이 붙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폴라드 장로는 죽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8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혼자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폴라드 장로의 형제 한 명은 서 인도 제도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폴라드 장로의 죽음에 관한 소식이 그의 부친에게 전해졌을 때 이미 아내를 잃은 이 겸손한 형제님은 서인도 제도에서 봉사하고 있던 다른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형의 죽음을 알렸습니다. 분명 비탄에 빠지고 상심했을 아버지 폴라드 형제와 그 아들은 장거리 전화를 통해, '난 하나님의 자녀' ¹⁸를 불렀습니다. 통화를 끝내기 전에 아버지 폴라드 형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며 주신 축복에 감사하고 그분의 신성한 위안을 간구했습니다.

후에 폴라드 형제는 그의 가족이 괜찮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복음과 구원의 계획에 대해 강한 간증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때가 찬 이 놀라운 경륜의 시대에 살면서 미래에 닥칠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여 러 세대를
통틀어
예수님의
메시지는 한결 같이 “나를
따르라” 였습니다.

모범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침례 요한의 참된 겸손, 아브라함의 의심의 여지가 없는 순종, 욥의 끝없는 인내, 노아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 롯의 변함없는 충성, 니파이의 지치지 않는 결의,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담대한 용기, 헝클리 회장님의 변함없는 낙천성을 지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성품들은 이 생애에서 우리를 강화하는 요새가 될 것입니다.

모범

우리가 마리아의 아들인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 주신 최고의 모범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생애는 우리가 따라야 할 완전한 모범입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 구유에 뉘어진 주님은 필멸의 인간으로서 지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하늘로부터 오셨습니다.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주님은 인간에게 더 높은 율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은 세상의 사고 방식을 바꾸셨습니다. 주님은 병든 자를 축복하시고 절름발이를 걷게 하시고 장님을 보게 하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도 일으키셨습니다.

그분의 자비의 메시지, 지혜의 말씀, 인생의 교훈에 대해 세상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곳에는 그분을 구주로서 받아들이는 훌륭한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발을 씻겼으며 그분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모범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라?”¹⁹ 하고 물었을 때 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박게 하소서”²⁰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조롱했고 식초를 마시라고 주었습니다. 그분을 모욕했습니다. 갈대로 때리고 그분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박았습니다.

여러 세대를 통틀어 예수님의 메시지는 한결 같았습니다. 아름다운 갈릴리 해변가에서 주님은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²¹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에게도 “나를 따르라”²²고 명하셨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에게도 “나를 따르라”²³고 지시하셨습니다. 우리도 경청만 한다면 이와 같은 “나를 따르라”는 권유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여 그분의 모범적인 삶을 따르는 모든 이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보상을 받기를 바랍니다. ■

주

- | | |
|---------------------|--|
| 1. 누가복음 1:80. | 14. 롯기 1:16. |
| 2. 요한복음 3:28. | 15. 니파이전서 3:7. |
| 3. 누가복음 3:16. | 16. Joseph L. Townsend (1849~1942), 찬송가, 170장. |
| 4. 마태복음 11:11. | 17. 조셉 스미스-역사 1:25. |
| 5. 시편 46:10. | 18. Naomi W. Randall (1908~2001), 찬송가, |
| 6. 창세기 22:9~10, 12. | |
| 7. 욥기 1:1. | |
| 8. 욥기 2:9. | |



- | | |
|--|-----------------|
| 9. 욥기 16:19. | 187장. |
| 10. 욥기 19:25. | 19. 마태복음 27:22. |
| 11. 창세기 6:9. | 20. 마가복음 15:13. |
| 12. 경전 안내서, “노아”, 47쪽. | 21. 마태복음 4:19. |
| 13. Conference Report, 1952년 10월, 48쪽. | 22. 요한복음 1:43. |
| | 23. 누가복음 5:27. |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 그리스도, 헝클리 연단

사원의 나라에서 마음을 돌이킴

아담 시 올슨
교회 잡지

19 71년, 회원들과 선교사들이 리춘산의 침례 준비를 돕기 위해 자신들의 침례에 대한 경험을 그에게 나누었을 때, 그들은 강렬하며 영적으로 고무되는 느낌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리 형제가 침례의 물에서 나온 후 받은 느낌은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극도로 약해진 듯한 느낌이었으며, 그것은 분명 무언가 잘못된 것 같았다.

17세의 나이에 대만 타이베이에서 침례와 확인을 받은 리 형제는 몇 년 전에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바 있었지만, 몰몬경이 그의 마음에 감동을 준 이후에야 그가 찾던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었다.

“저는 영을 매우 강하게 느꼈습니다. 성신은 제게 이것이 참된 교회라고 말해 주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그래서 더욱 그는 회원이 된 이후로 어째서 자신이 그토록 약하다고 느끼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으며, 왜 갑자기 힘이 사라졌는지 알기 위해 기도했다. 뜻밖의 응답으로 그의 인생 진로가 결정되었다.

그는 “성전 사업을 하기 위해 조상들을 찾으면 힘을 찾게 될 것”이라고 영이 속삭였음을 기억한다.

35년이 넘는 지난 세월 동안, 대만 총성



조상을 공경하는 것이 오랜 세월 동안 삶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땅, 대만에는 전통 사원과 제단이 많이 있다. 대만 타이베이 성전(위쪽 및 오른쪽 사진)은 리 가족(오른쪽 사진)과 같은 회원들에게 조상을 공경하는 일이 영원한 의미를 부여하는 장소를 제공해 준다.

스레이크 후웨이 와드 소속인 리 형제는 가족 역사와 성전 사업에 자신을 바쳤다. 그와 그의 아내, 리수 자매는 그의 가계를 5,000년 거슬러 올라가 모든 한족의 조상이라 여겨지는 황제(黃帝)까지 이르렀다. 둘은 성전에 100,000개 이상의 이름을 제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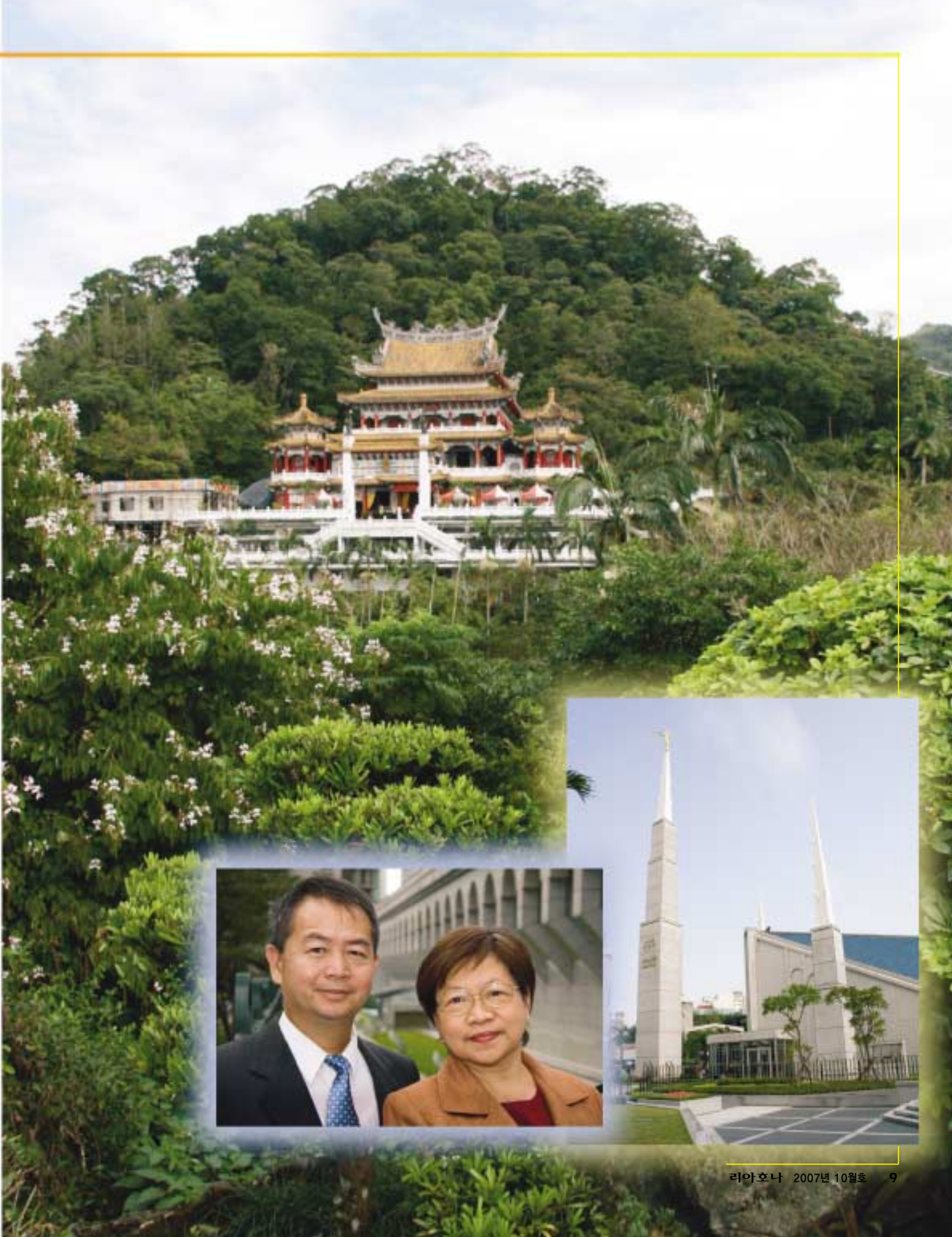
“가족 역사 사업은 때때로 너무 힘들게 느껴지지만, 조상을 축복하려는 소망은 충분히 보상 받게 됩니다.”라고 리 형제는 말한다.

대만 성도들의 경험은 서로 매우 긴밀히 연계된 가족 역사와 성전 사업의 의무를 행할 때 받는 축복을 증거해 준다.

사원의 나라

대만은 다양한 사원이 있는 땅이며, 조상을 공경하는 것은 그들의 운택하고 유구한 역사의 한 부분이다. 많은 가족들이 부계를 거슬러 여러 세대에 걸친 기록을 가지고 있다. 셀 수 없이 많은 전통 사원과 제단은 사람들이 조상과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장소를 마련해 준다. 정성 들여 만든, 때로는 수 세기 전에 공동체 세워진 이 건물들은 혼잡한 타이베이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조용한 시골을 뒤덮는 무성한 초목 사이로 짙이 올라오듯이 솟아오른 것처럼 보인다.

“우리 민족의 전통 신앙은 조상을 크게 강조합니다. 우리 마음을 우리 조상들에게 돌이키는 것은 우리 문화의 일부죠.”라고 리





형제는 말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전통 사원을 통해 조상들에게서 축복을 구하고자 하는 반면, 대만에는 회복된 복음의 의식을 통해 조상들에게 축복을 가져다주는 다른 종류의 사원이 있다.

대만 타이베이 성전은 1984년 헌납된 이래로 교회 회원들에게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왔으며, 돌아가신 친척들을 축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가족 역사 기록에 영원한 의미를 부여해 주었다.

특별한 관계

리 가족처럼, 우 가족 또한 가계를 거슬러 올라가 황제까지 이르렀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우 자녀들이 황제의 150 세손임을 알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2005년에는 당시 19세였던 윌포드 우는 황제의 전통 무덤에서 열린 연례 의식에서 대만의 젊은이들을 대표하도록 선별되었다.

대만 타이베이 서 스테이크 칭신 와드 소속인 우 가족에게 가족 역사는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한 작업이었다. 우치리 형제와 그의 아내 셸리 자매가 대부분의 조사를 맡았고, 윌포드와 그의 누나 카밀라는 조사 자료를 정리하는 일을 도와 3,000명 이상의 조상들을 위한 성전 의식에 참여하였다.

함께 일하면서 우 가족은 좀 더 가까워졌다. 우 가족은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조상들과 특별한 유대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말한다.

“부모님을 위한 사업을 하면서 제가 예전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행복을 맛보았습니다. 제게는 조상들과 영원히 하나가 되고 싶은 큰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조상들이 준비되어 있기를 기도합니다.”라고 우 자매는 말한다.

많은 도움

150 세대를 연결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조상들을 찾고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우 가족은 도움을 받았음을 인정한다.

26 세대를 거슬러 올라간 후, 우 가족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별명 외에는 다른 정보가 없었어요.”라고 우 자매는 말한다.

중국 설 연휴의 마지막 날, 우 자매는 성전에서 봉사한 후 축제에 참석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같은 시간대에 봉사했던 한 친구가 성전 부지에 있는 가족 역사 센터에 잠깐 들른다고 했을 때, 우 자매는 함께 가야겠다는 느낌을 받았다.

우 자매는 가족이 찾을 수 없었던 조상의 성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담은 책 한 권을 집어 들었다. 책을 펼치자 바로 그 조상에 대한 정보가 나열된 페이지가 나왔다. 그 정보를 통해 우 가족은 여러 세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해 준 다른 가계로 연결될 수 있었다.

“그건 제게 무척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우리 조상들이 의식을 집행 받기를 몹시 갈망한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라고 우 자매는 말한다.

자손을 위한 축복

대만 후아리엔 지방부 치엔 지부 소속인 창중평 형제와 그의 아내 춘메이 자매는 성전 축복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소망으로 인해 말라기의 약속(말라기 4:6 참조) 중 또 다른 면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들의 마음이 조상들에게로 돌이켜진 것과 함께, 부모로서의 그들의 마음은 자녀들에게로 돌이켜지게 되었다.

창 형제와 자매는 모두 함께 인봉된 3세대의 가족을 이끄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대만의 교회

회원들에 속한다.

“우리 손자 손녀들이 교회에 오는 모습을 보면 기쁩니다. 복음 의식을 통해 그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도록 돕는 것은 우리의 중대한 책임입니다. 우리가 그 연결 고리를 끊어서는 안 되니까요.”라고 대만 타이베이 성전 회장단 제1보좌로서 봉사하다 최근 해임된 창 형제는 말한다.

리 가족은 성전 의식의 영향이 부부로부터 시작된다고 믿는다.

“우리는 전에도 교회의 표준에 따라 생활했지만 성전에서 인봉된 후로 우리의 결혼 생활은 더 나아졌습니다. 인봉은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죽게 되면 자동차, 직장, 집, 돈 등, 살아 가는 동안 얻기 위해 일했던 것들을 모두 잃게 됩니다. 그렇지만 가족은 잃지 않습니다.”라고 리 형제는 말한다.

“무엇이 영원하며 무엇이 영원하지 않은지 깨닫는 것이 도움이 되지요. 그렇게 하면 가족을 위해 노력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라고 리 자매는 말한다.

영향은 거기서부터 확산된다.

“가족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배우자를 더욱 사랑하게 되며 자녀들 또한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은 더욱 따뜻하고 편안한 곳이 됩니다. 영이 그곳에 거하게 됩니다.”라고 리 형제는 말한다.

최고의 축복

이 대만 가족들은 가족 역사와 성전 사업이 이 생에서 그들의 가족을 축복해 줄 뿐만 아니라, 영원한 관점에 있어서도 약속된 축복을 통해 위안을 찾는다고 말한다.

“성전에서 일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차츰 변화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왼쪽: 우 가족은 역사 기록(아래)을 통해 황제에 이르기까지 150년의 계보를 거슬러 올라감으로써 몇몇 지역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다시 활기를 찾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라고 부인과 함께 그의 가게 중 16세대를 위한 사업을 마친 창 형제는 말한다.

창 형제는 또한 성전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삶에서 사탄의 영향이 줄어든다고 믿는다. “성전 의식에 참석함으로써 우리 마음에 경건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일들을 잊게 됩니다.”라고 창 형제는 말한다.

우 형제도 동의한다. “우리가 그곳에서 찾게 되는 영성과 행복을 가정으로 가져오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우리 가족이 세상적인 것들의 유혹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16세대 이상을 위한 성전 사업은 창 가족의
조상들을 축복해 주었을 뿐 아니라 자손들 또한
강화해 주었다.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가족들은 성전 의식들을 받는 것과 현세에서 이 의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그 의식들을 대신 받는 것은 그들의 영원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라고 믿는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성전 의식은 교회가 제공하는 최고의 축복입니다.”¹

“회원이 되는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영원한 가족으로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필요한 의식을 받아야만 합니다.”라고 창 형제는 말한다.

사랑을 나타냄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카밀라 우 자매는 각각의 영혼이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 카밀라는 그녀가 가르칠 수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대한 구주의 넘쳐 흐르는 사랑을 느꼈다.

“귀환해서 우리의 가족 역사 사업을 하게 되었을 때 저는 가족 역사와 성전 사업도 영혼을 구원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라고 카밀라는 말한다.

우 가족은 성전이 주는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성전은 하나님이 그의 자녀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가장 큰 표시 중 하나라고 생각하게 된다.

“성전에서 제가 찾은 의미는 그분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라고 카밀라의 남동생 윌포드는 말한다. ■

주

1. “복음의 ‘최고의 축복’을 가져다줄 새로운 성전들”, 성도의 빛, 1998년 7월호, 88쪽.



첸양수유안 자매에게 가족 역사와 성전 사업은 불가분한 것이다.

연결 고리를 봄

첸양수유안 자매는 1981년 백내장 수술 합병증이 일어난 이후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시력을 잃은 것은 그녀가 복음을 찾도록 도와주었으며 궁극적으로는 성전과 가족 역사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해주었다.

최근에 시력을 잃은 첸 자매는 그녀의 문 앞에서 물 한 잔을 달라고 부탁하는 두 명의 젊은 여성들이 선교사라는 것을 알 수 없었다. 두 여성에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권유한 것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장님이기 때문에 쓸모가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려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시력을 잃은 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께서 큰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구속하셨음을 가르치시기 위해 제게 선교사들을 보내 주셨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치르신 대가로 인해 저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가치를 지닌 존재입니다.”라고 첸 자매는 말한다.

그때 이후로, 첸 자매는 대만 타이베이 스테이크 총리1와드에서 많은 부름을 통해 봉사했으며 또한 1992년 이후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다.

그러나 첸 자매가 직면하게 된 시련은 시력 상실뿐만이 아니었다. 1987년, 그녀는 늑골을 제거해야 하는 커다란 낭종이 생겨서 거의 죽을 뻔했다. 살아나긴 했지만 결국 평생 모은 돈을 의료비로 다 써 버렸다. 그녀는 왜 하나님께서 그냥 그녀를 데려가지 않으셨는지 의문이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다고 말했다. “너에게는 아직 해야 할 많은 일이 있도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가족 역사가 그녀를 부르는 것을 느꼈다.

“저는 볼 수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계보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어요. 하지만 그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친한 친구의 도움을 통해 그녀는 그녀 자신의 직계 중 22세대를 조사했으며 그 중 여성들을 위한 의식을 전부 스스로 받았다. 현재는 방계 계보 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 과정을 통해 그녀는 성전 사업과 가족 역사 간의 불가분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잘 알게 되었다.

“성전에서 받는 의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모두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는 가족 역사 사업을 꼭 해야 합니다. 계보 사업을 하지 않고는 우리 조상들에게 이러한 의식들을 제공해 줄 수 없어요.”라고 첸 자매는 말한다.

“가족 역사와 성전 사업은 하나의 사업입니다. 가족 역사 탐구는 성전 의식을 위한 이름을 얻는 주된 출처이며, 성전 의식은 가족 역사 탐구를 위한 주된 이유입니다.”라고 칠십인 정원회의 데니스 비 노인슈안더 장로는 말한다.¹

첸 자매는 이제 새로운 질병과 경증 심근 경색의 후유증에 맞서 투병 중이다. 하나님께 왜 자신을 살리셨는지에 대해 질문한 지 20년 후, 그녀는 다시 한 번 같은 질문을 하게 되었고, 같은 답변을 받았다.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너에게는 아직 이루어야 할 성전 사업이 남아 있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그의 응답을 그녀는 느꼈다.

따라서 첸 자매는 계속해서 한 달 중 일주일을 성전에서 보내고 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 조상들이 스스로 할 수 없으며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제 상황으로 인해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직장 일 등에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할 수 있는 동안 열심히 일해야죠.” ■

주

1. “Bridges and Eternal Keepsakes”, *Liahona*, 1999년 7월호, 100쪽.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지상의 다른 모든
종교 단체와 구별해 주고 그
무엇보다 성스럽게 해 주는
것은 바로 거룩한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기초가 되는 교리입니다.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

20세기 초에, 두 명의 선교사가 미국 남부의 산악 지역에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 선교사는 구릉지대의 산등성이를 걷던 도중 산허리 아래쪽으로 좀 떨어진 곳에 있는 통나무집 근처의 숲 속 개간지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선교사들은 장례식이 열릴 예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어린 소년이 익사했던 것입니다. 소년의 부모는 어린 소년의 매장식에서 설교를 하도록 목사를 불렀습니다. 두 장로는 뒤쪽에서 장례식이 진행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소년은 통나무집 근처에 이미 파여진 무덤에 묻혀질 것이었습니다. 목사는 비탄에 잠긴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그 외에 모인 사람들 앞에 서서 장례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부모가

이 성직자에게서 위안을 얻기를 기대했다면, 그들은 실망했을 것입니다.

목사는 어린 소년이 세례 받도록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부모를 질책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이런저런 다른 일 때문에 세례를 미루었으며 이제 너무 늦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매우 직설적인 어조로 어린 소년은 지옥으로 갔다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또한 그것이 그들의 잘못이고 책임은 그들에게 있으며 그들 때문에 아들이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무덤이 덮인 후, 친구들과 이웃, 친척들은 그곳을 떠났습니다. 두 장로는 슬퍼하는 부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흐느껴 우는 어머니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들이며, 당신을 위한 메시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슬픔에 잠긴 부모가 듣는 동안 젊은 두 장로는 그들 눈 앞에 영원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영역부터: 스톤웨이브 성전, 사진: 윌리엄 시; 텍사스: 남미피리과 요해바스나그 성전, 사진: 윌리엄 시; 인디안: 파리는 행상기 성전, 내부: 존 부크 © 1987, 복스, 감자,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 성전, 사진: 윌리엄 시; 덴마크: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사진: 데이비드 퍼킨스 성전, 사진: 윌리엄 시



오심시오

이야기했습니다. 두 장로는 계시의 말씀들을 읽었고, 비탄에 잠긴 이 겸손한 부부에게 산 자와 죽은 자 모두를 위한 구속의 열쇠가 회복되었다는 그들의 간증을 전했습니다.

저는 그 목사를 힐난하지는 않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에 대해 동정심을 느낍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빛과 지식으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줄 수 있었던 것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바로 회복된 충만한 복음입니다.

그 겸손한 사람들에게 선교사들이 가르쳐 준 길은 개종과 회개, 침례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때가 되면 거룩한 성전의 성스러운 방들로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자격을 갖춘 교회 회원들은 그곳에서 인류에게 밝혀진 구속의 의식 중 가장 높고 성스러운 의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씻음과 기름 부음을 받고 가르침 받아 엔다우먼트와 인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 이러한 축복을 받은 후에는 그와 같은 기회를 받지 못한 채 죽은 자들을 위해 의식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성전을 짓는 이유와 그곳에서 의식이 집행되는 이유에 대해 여러분의 이해의 폭을 넓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 참석의 특권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특권입니다. 정해진 표준에 따라 자격이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자신의 축복을 받기 위해 오셔야 합니다. 그 후에는 이 생에서 그러한 축복을 받을 기회 없이 죽은 사람들이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성전으로 오셔야 합니다.

자격을 갖추기 전까지, 또 주님께서 정하신 요건에 부합되기 전까지는 성전에 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이 아니더라도 자격에 부합될 때 최대한 빨리 오셔야 합니다.

거룩한 성전 사업의 기초를 이루는 교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지상의 다른 모든 종교들과 구별해 주고 그 모든 지상의 종교 단체들을 초월하게끔 만들어 줍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다른 종파에도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줄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슬픔에 잠긴 그 부모의 마음속 고통은 이 교회의 교리를 통해서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리는 거룩한 성전

의식들에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의 질서

의식의 중요성에 대해 좀 설명하기 위해 신앙개조 3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온 인류가 복음의 법과 의식에 순종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는다.”

의식이라는 단어는 “종교적 또는 의례적인 절차”, “정해진 관례”를 뜻합니다.¹ 그렇다면 복음의 의식은 어떻습니까?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에게 그러한 의식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한 의식 없이 행복해지고, 구속 받고, 승영에 이를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한 의식은 단순히 권할 만한 것이나 바람직한 것을 넘어, 심지어는 필요한 것 이상의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필수적이거나 없어서는 안 될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러한 의식은 우리 각자에게 매우 중대한 것입니다.

모든 후기 성도는 다음과 같이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 인생에는 질서가 잡혀 있는가? 나는 생의 현 시점에서 내가 갖추어야 할 모든 복음 의식을 받았는가? 그러한 의식들은 유효한가?

여러분이 이러한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할 수 있고, 그러한 의식들이 인봉 권능과 권세의 영향을 받는 것이라면 그것들은 영원토록 유효할 것입니다. 그러할 경우 여러분의 인생은 현재까지 올바른 질서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살아 있거나 죽은 여러분의 가족에 대해 같은 질문을 하며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성전 의식

성전에서 집행하는 의식에는 씻음과 기름 부음, 엔다우먼트, 그리고 인봉 의식이 있습니다. 인봉 의식은 자녀를 부모에게 인봉하는 것, 또한 일반적으로 성전 결혼이라 부르는, 부부를 인봉하는 것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성전 의식에 대해 출판된 자료에 포함된 정보를 짧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씻음과 기름 부음의 의식은 성전에서 종종 예비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말로 충분할 것입니다. 씻음과 기름 부음은 엔다우먼트와 관련된 것이며,

대체로 상징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만 미래의 축복과 더불어 확실하고 즉각적인 축복 또한 약속합니다. 이러한 의식에 대해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지은 집에서 너희의 씻음을 행하지 아니할진대 너희의 씻음이 어찌 내게 받아 들일 만한 것이 되겠느냐?”(교리와 성약 124:37)

이러한 의식과 관련하여 여러분은 성전에서 정식으로 가먼트를 입게 되고 그와 관련된 놀라운 축복을 약속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이 집행되는 동안 주의해서 귀 기울여 약속된 축복과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을 기억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여한다는 것은 풍요롭게 해 주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오래 지속되며 큰 가치를 지닌 무언가를 주는 것입니다. 성전 엔다우먼트 의식을 “받는 자들은 높은 곳에서 오는 권능을 부여받게” 되며 “주님의 목적 및 계획과 관련된 교육을 받게” 됩니다.²

브리검 영 회장(1801~1877년)은 엔다우먼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간단하게 정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엔다우먼트는 주님의 집에서 행해지는 모든 의식을 받아 여러분이 이 생을 떠난 후 감시인으로 서 있는 천사들을 지나칠 때 열쇠가 되는 단어와 거룩한 신권의 표시와 표징들을 줌으로써

모든 후기 성도는 다음과 같이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 인생에는 질서가 잡혀 있는가?
나는 생의 현 시점에서 내가 갖추어야 할 모든 복음 의식을 갖추고 있는가? 그러한 의식들은 유효한가?



하나님의 면전에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하고, 이 세상과 지옥의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영원한 승영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³

온전한 승영을 위해서는 엔다우먼트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모든 후기 성도는 이 축복에 합당하게 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인봉 의식은 가족을 영원히 묶어 주는 의식입니다. 성전 결혼은 인봉 의식의 하나입니다. 성전에서 인봉된 부부에게 태어나는 자녀들은 성약 안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부부가 일반 결혼을 한 후 일 년 이상이 지난 다음 성전에서 인봉될 경우 성약 안에서 태어나지 않은 자녀들은 이 간결하면서도 성스러운 의식을 통해 부부에게 인봉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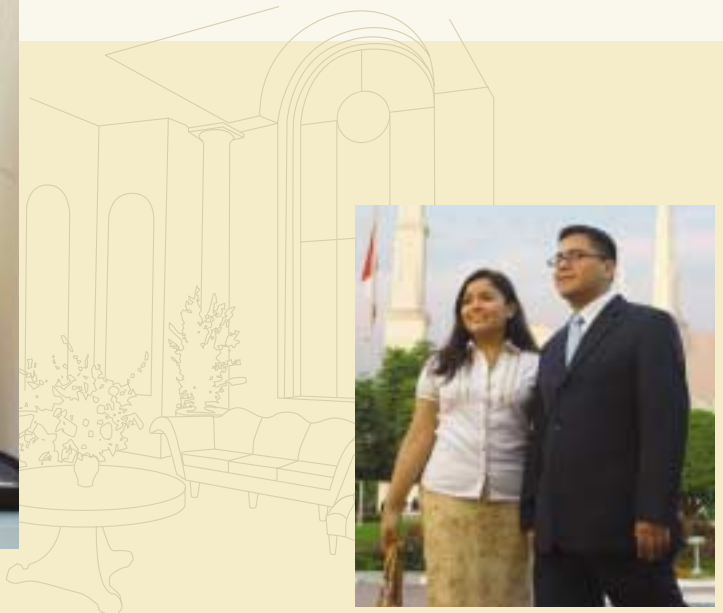
저는 성전 의식이 경건하고 조심스럽게 집행되는 것에 대해 늘 감명을 받곤 합니다. 성전 의식은 복잡하거나 요란하지 않으며 복음 원리의 간결함을 전형적으로 나타냅니다.

교회에는 모든 인류를 구속하고 높여 주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의식을 집행할 수 있는 충분한 권세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인봉의 권능을 위한 열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질서에 따라 지상에서 묶는 것은 하늘에서도 묶일 것입니다. 그러한 열쇠, 즉 인봉하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도록 하는 열쇠는 우리 하나님에게서 오는 최고의 은사를 나타냅니다. 그 권세로서 우리는 침례와 축복을 주고 엔다우먼트를 집행하고 인봉할 수 있으며, 주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높이 사실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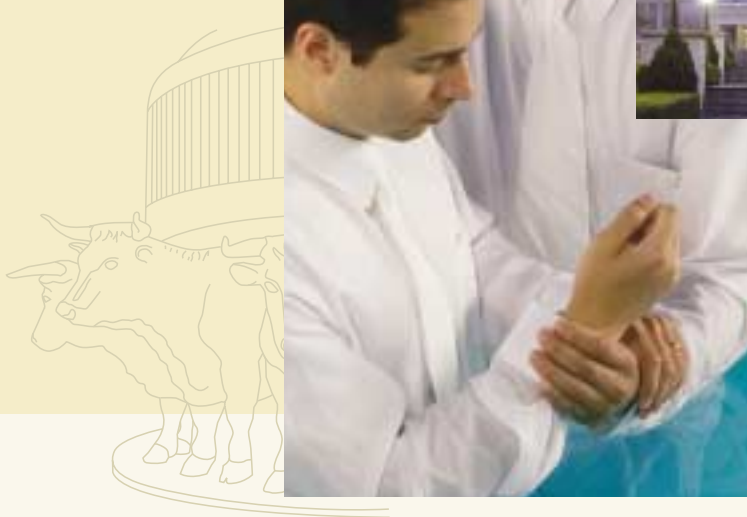
의식은 죽은 자들에게도 제공되어야 함

앞서 언급한 목사는 침례 받지 않고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나 이름이 주님 외에는 하늘 아래 달리 주어지지 않았는데(사실, 다른 이름은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그 이름을 들어보지도 않은 채 살다가 죽었다면, 그리고 침례가 필수적인 것인데(필수입니다) 그들이 침례 받으라는 권유조차 받지 않은 채 죽었다면,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 질문을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은 인류 대부분을



침례 받지 않고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난관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주님의 교회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영의 세상에서 자신의 소망에 따라 그 침례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매우 기본적인 어떤 사실을 굳게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탄생이 모든 것의 시작이 아니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의 죽음도 끝이 아닙니다. 구속의 위대한 사업은 이 세상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도 계속됩니다.

죽은 사람들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할 때 필수적인 의식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는 침례와 그 밖의 성전 의식을 대리 집행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습시다.

성전으로 오십시오

모든 후기 성도에게는 이 사업을 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다른 종교로부터 이처럼 구분해 주는 교리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계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스러운 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저는 “성전으로 오십시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엔다우먼트와 축복을 받고 주님과 성약을 맺기 위해 성전에 가는 생애 단 한 번의 특권을 고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한두 번 정도 가 보셨을지도 모릅니다. 자주 가시는지도 모릅니다. 또는 집행자로 봉사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경우든, 성전으로 오십시오.

필요하다면 회개하고 합당해지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매우 힘들며 때로는 크게 낙심하기도 하는 회개로의 여정을 지금 시작하십시오. 성전 사업과 그 사업을 지지하는 가족 역사 사업을 하고, 또한 살아 있는 모든 영혼과 장막 저편에 있는 모든 영혼을 가능한 모든 방법과 방편을 다하여 돕겠다고 굳게 결심하십시오.

성전으로 오십시오! ■

The Holy Temple(1980년)에서 각색함.

주

1. *Oxford English Dictionary*(1971년), “ordinance”, 2006년.
2. 브루스 알 맥콩키, *Mormon Doctrine*, 제2판.(1966년), 227쪽.
3. *Discourses of Brigham Young*, sel. John A. Widtsoe(1941년), 416쪽.

포함하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해, 과연 어떠한 권능이 한 분의 주와 하나의 침례를 세운 후, 대부분의 인류를 그 권능의 교리가 미치는 영향력 밖에 있도록 내버려두겠습니까? 이 질문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익사한 어린 소년을 포함한 인류의 대부분을 잃어버려진 바 되며, 공의나 자비의 율법을 합리적으로 적용하려는 것과는 대립하게 됩니다.

이 난관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주님의 교회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분께서는 분명 지상에 사는 동안 침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인류 대부분을 잊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혼란스럽고 답답한 마음으로 이 질문에 답할 수 없음을 시인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들에게 지상에서 주님의 일을 집행하거나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감독하기 위한 권세가 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세상과 구별해 주고 주님의 교회임을 확인해 주는 한 가지 특성은 우리가 죽은 조상들을 위해 침례와 그 밖의 의식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침례를 받지 않고 죽은 자들에 대해 자문할 때마다 저는 참으로 경건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그 질문이 성스러운 사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이 사업은 놀라운 잠재력을 지니고 있고, 인간이 꿈 꾸었던 그 무엇도 능가하는 것이며, 숭고하고 훌륭하며 참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답입니다.

올바른 권세를 통해,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침례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을 위해 대신 침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에 대한 간증



선 교사들은
예배당 건설을
돕고 있었다.
저는 그들에게 깊은 감명을
받은 나머지 우리 부모님께
그들을 소개했다.

클라우디오 알 엠 코스타 장로
칠십인 정원회 회장단

제가 열두 살이었을 때 저는 우리
가족에게 선교사들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길에서 선교사들을 만났고
그들은 내게 친절했습니다. 선교사들은 제가 살고
있던 브라질의 한 도시에서 교회 예배당 건설을

돕고 있었고, 내게도 도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여가 시간에 그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짓는 데 시간을 할애하는 젊은이들이
있다고는 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깊은 감명을 받은 나머지
부모님께 그들을 소개하기로 했고, 우리 가족은
집으로 그들을 초대했습니다. 선교사들은 우리

삽화: 폴 맨



그 날 밤, 저는
조셉
스미스-역사를
읽기 시작했고 각 단락에
대해 기도했습니다.

가족과 첫 번째 토론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담배를 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혜의 말씀 중 그 부분은 이미 지키고 있었고, 매주 집에서 가정의 밤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정의 밤이라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가톨릭 교도였으며 정기적으로 성당에 다녔기 때문에 아버지는 선교사들에게 우리 종교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선교사들은 떠났지만, 그들은 선교사 아파트에 남겨둔 선교사 지역 책에 우리 가족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리라는 느낌도 기록했습니다.

영원한 가족에 대해 배움

십 년 후, 우리 가족이 살고 있던 그 지역에 새로운 선교사들이 도착했을 때 저는 다른 도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가르칠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지역 책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부모님의

이름을 찾았고 부모님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선교사들은 가기 전에 기도를 했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영감을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자신의 종교에 매우 충실했지만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사망하신 후 그분이 더 이상 그의 아내가 아니리라는 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사망 후에도 가족 관계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는 여러 교회의 성직자들에게 이 점에 대해 질문했지만 모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망 후에 형제님의 부인은 형제님의 남매와 같은 존재가 되며 아들은 형제와 같이 됩니다.”

이 선교사들이 우리 부모님 집의 문을 두드렸을 때, 아버지는 문을 열고 선교사들에게 그들의 메시지를 이전에 들은 바 있으며 관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형제님의 가족이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이 말은 아버지의 마음에 무언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아버지는 선교사들을

안으로 들어오게 해 가르치게 했습니다. 영의 인도를 받은 선교사들은 제 가족들에게 영원한 결혼과 영원한 가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에 대해 알게 된 제 가족들은 간증을 얻어 침례와 확인을 받기로 결정하게 된 그 순간까지 계속 선교사들과 만났습니다.

나의 간증을 얻음

오 년 후, 27세였던 저는 아버지의 집에서 잠시 머물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와드 선교 책임자였고, 자매 선교사들이 우리 집에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선교사들이 몰몬경과 조셉 스미스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듣고 나서 그에 대해 기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였다면 몰몬경과 교회가 참되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셉 스미스의 역사와 성스러운 숲에서의 그의 시현에 대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후 멈추고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날 밤 내내 한 문단씩 읽은 후 그것에 대해 기도를 했습니다. 총 14시간이 걸렸습니다. 깊이 숙고하기 시작하자 제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마치 조셉과 함께 숲 속에 있는 듯이 느꼈습니다. 그 경험은 생생했고 분명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실제로 볼 수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기도를 끝냈을 때, 저는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즉시 선교사들을 찾아갔습니다. 자매



저는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였음을 압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 선지자였던 스펜서 더블류 김볼 또한 선지자였음을 압니다.

선교사들이 정오에 점심 식사를 하러 돌아왔을 때 문 앞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토론을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짧은 시간에 걸쳐 일곱 가지 토론을 가르친 후, 저는 침례와 확인을 받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선지자를 따름

교회에 들어온 지 한 달 가량 되었을 때 지금의 아내인 마거레스를 만났고 우리는 일 년 후 결혼했습니다. 데이트를 하면서 저는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임을 알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과 가르침에 따라 가족을 이루고 싶다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1895~1985년)은 당시의 선지자였으며, 교회 회원들에게 빛을 지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거의 29년의 결혼 생활 동안 아내와 저는 단 한 푼의 이자도 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조셉 스미스에 대한 간증을 얻은 후로 저는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주의를 기울였고 그들의 가르침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였음을 알기에 그들을 따르기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임을 알기에 저는 그들이 제게 무엇을 하라고 하든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선지자에 대한 간증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면 여러분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그것은 행복을 얻기 위한 한 가지 비결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권고에 순종함으로써 행복해질 것입니다. ■

질문의 응답

“저는 어느 날 니파이전서 7:12을 읽었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그분을 믿는 신앙을 행사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만사를 행하실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나요?”

리아호나의 대답

신앙이란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신앙은 그분의 복음에 순종하도록 인도하는 힘이며, 순종은 더욱 큰 신앙을 가지도록 해 줍니다. 신앙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은사입니다.

경전에 나와 있듯이 우리에게 주님을 믿는 신앙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를 치유하고 용서하며, 위로하고 개심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셔야 할지 그분께 말씀드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고 모든 축복이 “그의 뜻대로” (니파이전서 7:12), 또한 “그가 정한 때에 그가 정한 방법으로”(교리와 성약 88:68) 온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적절한 시기에 응답해 주시리라는 확신을 줍니다.

신앙을 키우고 행사하려면 (1) 경전을 읽거나 경전을 가르칠 권세를 가진 사람들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십시오. (로마서 10:17) 말씀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그분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알도록 도와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한다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분의 뜻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인 신앙은 우리가 의로울 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신앙에 대해 꼭 읽어야 할 부분은 히브리서 11장, 이터서 12장 및 모로나이 7장입니다.

것입니다.

(2) 배운 것을 실천하십시오. 즉 엘마가 말한 것처럼 “말씀을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말씀은 씨앗과 같습니다. 좋은 씨앗이라면 그것은 영혼을 크게 하고 이해력을 밝혀 주며 기쁨을 주기 시작할 것입니다.(엘마서 32:28 참조) 이와 같은 것을 느끼게 된다면 이는 말씀이 참되다는 영적인 확인이며 여러분의 신앙을 키워 줄 것입니다.

(3) 계명에 순종하십시오. 의로움은 우리의 삶에서 신앙의 은사가 커지도록 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과 가르침을 따름으로써 그분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분께서 경전, 살아 계신 선지자들의 가르침, 그리고 성신의 속삭임을 통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일들을 행하십시오. 예를 들어,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께서 2005년 말까지 물몬경을 읽으라고 했던 권고를 받아들여셨습니까? 그렇게 한 사람들은 신앙으로 행했고 약속된 축복을 받았습니다.(물론 그때 물몬경을 다 읽지 않았다고 해도 앞으로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 대한 신앙 없이도 인생을 살아가지만, 영생은 그분에 대한 신앙 없이는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 그리고 그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인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은사 가운데서 가장 큰 것”인 영생을 향유하게 될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14:7)

독자들의 대답



저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신앙을 나타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그분과 그분의 복음에 대한 우리의 헌신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원리와

표준에 따라 생활하고 그분께서 보여 주신 길을 한결같이 걸을 때 우리는 그분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를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한 그분의 희생, 또한 복음의 회복에 대해 우리의 감사를 나타내 보입니다.

얀 비, 17세, 체코 공화국 모라비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가지는 것은 그분을 완전히 믿고, 그분께서 존재하시며 우리의 구주이심을 마음속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우리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어떻게 도와야 할지 알고 계시므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부족하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해 걱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됩니다. 구주에 초점을 둘 때 저는 복음 안에 계속 굳건히 남고 두려움을 억제하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나탈리아 엔, 19세, 에콰도르 침보라조

순종을 통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행사하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이유를

모르더라도 순종할 때 우리는 그분에 대한 신뢰와 신앙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시는 일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매일 기도하고 경전을 읽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저의 관계를 강화해 주며 제가 그분에 대한 더 큰 신앙을 가지도록 해 줍니다. 또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 올 것이라 기대해야 합니다.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기도하세요.

매건 에스, 18세, 미국 미주리 주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함으로써 신앙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계명을 지키고자 열심히 노력할 때 우리는 그분에 대한 신앙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과 주위 사람들의 삶에서 위대한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드미트리히, 21세, 우크라이나 도넛스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행사할 수 있는 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매일 경전을 읽고 기도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십일조와 금식 헌금을 내고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기꺼이 그 밖의 계명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셩 에스, 18세, 캄보디아 바탐방

우리가 주님의 도움과 권능을 믿을 때 우리는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계명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분에 대한 신앙을 나타냅니다. 저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며 그러한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신앙과 순종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온 마음을 다해 알고 있습니다.

마르코 시, 18세, 이탈리아 리구리아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지식과 복음이 참되다는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축복을 받기 위해 복음에 따라 생활하는 것을 시험해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시험할 때마다, 다시 말해 합당하게 행동하여 영향을 받을 때마다, 영으로부터 확인하는 증거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한 느낌은 여러분의 신앙을 강하게 해줍니다. ... 지속적인 신앙의 행사는 여러분의 생활에 생동적이고, 강력하고, 고무적인 힘이 될 것입니다.”

십이사도 정원회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 “불확실과 시험의 시기에 지켜주는 신앙의 힘”,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77쪽.

보아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다면 신앙은 더욱더 확고해질 것입니다. 니파이전서 7:12은 우리가 하나님께 충실해야 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충실함은 신앙을 키우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웃곤치맥 비, 15세, 몽골 토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완전히 믿고 의지함으로써 그분에 대한 신앙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십일조를 내는 것입니다. 십일조를 통해 우리는 약속된 더 위대한 축복을 위해 세속적인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음을 나타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만다 엘, 15세, 필리핀 잠보앙가 델 수르

우리는 교회에 오고 기도를 하고 경전을 읽고 부름을 받아들이며 죄를 회개하고 성찬을 들며 부름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행사합니다.

애덤 엔, 18세, 미국 조지아 주

대답은 도움을 주고 균형 잡힌 관점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교회의 교리를 밝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호 질문

“제 친구들과 저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험담하고 심술궂은 말을 하곤 합니다. 저와 제 친구들이 이런 일을 하지 않기 위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답변을 보내 주세요. 성명, 생년월일, 워드 및 스테이크(또는 지부 및 지부방) 명칭, 사진을 함께 아래 주소 또는 이메일로 보내 주십시오.(여러분의 사진 인쇄에 대한 부모님의 허가서 포함)

Liahona, Questions and Answers 11/07

50 E. North Temple St., Rm. 2420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또는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대답은 2007년 11월 15일까지 보내 주십시오. ■

주님의 재림을 준비함으로써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됨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에서 여러분이
방문하는 자매들의
필요 사항에

맞는 성구와 가르침을 선택하여
읽는다. 여러분의 경험과
간증을 나눈다. 여러분이
방문한 자매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유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교리와 성약 38:30:

“너희가 준비 되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리라.”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화: 후기 성도들에게 다음의 네 가지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1) 구주께서는 권능과 큰 영광 중에 지상에 돌아오셔서 의로움과 평화의 복천년 기간 동안 친히 통치하실 것입니다. (2) 그분이 오실 때 악한 자들은 멸망당하고 의로운 자들은 부활할 것입니다. (3) 아무도 재림의 시기를 아는 사람이 없으나 (4) 충실한 자들은 징조를 연구하고 그에 대비하라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 우리는 재림의 때에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된 사건들에 대비해 세상적인 준비와 영적인 준비를 모두 해야 합니다.”(“재림을 위한 준비”, *리아호나*, 2004년 5월호, 7, 9쪽)

캐서린 에이치 휴즈, 분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1보좌: “너희는 위대한 사업의 기초를 닦고 있음이라. 작은 일에서 큰 일이



생겨나느니라.’(교리와 성약 64:[33] ...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큰 일은 ‘작은 일’에서 생겨납니다. 제가 배운 작은 일들 중 하나는 바로 자신의 영적인 저수지를 매일 채우기 위해 시간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작은 일에서”, *리아호나*, 2004년 11월호, 109쪽)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화:**

“주님은 우리가 앞서간 사람들처럼 충실하고 헌신적이며

용감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 그들의 목숨을 바치도록 부름을 받았습시다. 우리는 같은 목적을 위해 우리의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시다. ... 모든 경륜의 시대의 선지자들께서 하신 말씀들이 주님의 강림과 그분의 속죄를 위해 길을 예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역사와 예언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한 복음의 회복을 위해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의 사건들과 예언들이 구주의 재림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회복과 재림을 위한 준비: ‘내 손이 네 위에 있으리라’”,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91~92쪽)

다른 사람들이 준비하도록 돕는 일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교리와 성약 34:6: “네 음성을 높여 ... 회개를 외쳐, 주의 재림을 위하여 그의 길을 예비하라.”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

(1895~1985년): “구주의 재림에 앞서 이 세상의 마지막 단계로 가는 이 후기에 이 지상에서 의로운 여성이 되는 것은 특별히 고귀한 소명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오늘날의 의로운 여성이 지니는 힘과 영향력은 보다 평온한 세상과 잔잔한 시기의 여성들의 영향력에 비해 그 열 배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의 기본 단위이며 가장 고귀한 체제인 가정을 풍요롭게 하고 보호하며 지키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여성은 이 지상에 왔습시다. 사회의 다른 제도는 넘어지거나 실패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의로운 여성은 폭풍과 시련 가운데에서도 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최후의, 그리고 유일한 성소인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여성의 특권과 책임”, *성도의 빛*, 1979년 4월, 14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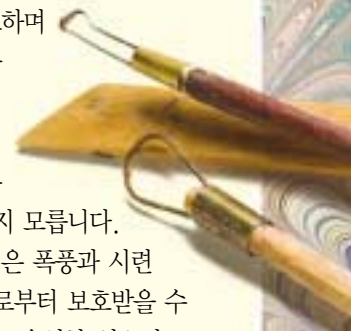


사진 촬영: 크레디그 데이먼, 필모도 포스트민 것 재와, 삽화를 사진 촬영: 매튜 라이어, 모렐리, 포즈를 촬영: 테두리 © ARTBEATS

읽고 쓰는 능력은 삶을 향상시켜 줌

두 명의 후기 성도가 읽고 쓰는 법을
배운 것이 어떻게 삶을 변화시켜
주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전 세계 곳곳의 사람들은 읽고 쓰는 기본
능력을 배우으로써 자신의 삶과 다른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킨다.

HOLY
BIBLE

KING-JAMES
VERSION

EL
LIBRO DE
MORMÓN

DOCTRINA
Y
CONVENIOS

LA
PERLA DE
GRAN
PRECIO

배움에 대한 열정

멕시코 출신인 셸리 플로렌스 세인스 자매는 글을 읽고 쓰기 위한 그녀의 어머니의 노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축복이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제 어머니, 아니타 발렌수엘라 멘도사가 두 살이었을 때, 제 할아버지는 탄광 사고로 돌아가셨고, 제 할머니에게는 여덟 명의 어린 자녀들과 이들을 돌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만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섯 살 때 학교에 다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연필도 종이도 책도 없었지만 어머니에게는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종이를 얻기 위해 냅킨에 수를 놓고 교실 바닥을 쓸며 땀나뭇물 가지고 왔습니다. 집에서는 할머니가 귀중한 신문 용지를 꺾어서 어머니를 위한 공책을 만들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어머니의 열정을 높이 샀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해진 옷과 엉망인 머리에 신경 쓰기보다는 지식에 대한 어머니의 갈증을 해소해

주고자 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한 선생님의 가족이 어머니에게 교육을 더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더 이상 학교에 다닐 수 없었고 어머니의 정규 교육은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수 년 후 27세가 되었을 때 어머니는 아버지를 만나 복음을 알게 되었으며 어머니의 교육은 꽃을 피웠습니다. 어머니는 경전 읽기를 통해 배우는 것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상호부조회 또한 어머니의 지식을 향상시켜 줄 많은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배움에 대한 열정을 심어 주셨고, 저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소녀 시절에 읽고 쓰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두 세대에 걸쳐 우리 가족은 크게 축복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읽고 쓰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한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어머니의 모든 자손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복음 읽고 쓰기 반

세인스 자매의 이야기는 특별한 이야기라 아니다. 사람들은 읽고 쓰는 법을 배울 때 복음에 대한 이해를 키우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축복을 가져다줄 수 있다. 읽고 쓰는 기본 능력을 배우게 되면서 교회 개종자인 나이지리아의 폴 이미테헤 형제는 복음을 좀 더 잘 이해하고 나눌 수 있게 되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저는 나이지리아 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가입했습니다. 교회 회원이 되자 저는 읽고 쓰는 법을 배우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권 지도자들이 말씀과 기도를 부탁할 때면 저는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무척 부끄러웠습니다.

“아부자로 이사한 후 저는 교회 책자와 잡지를 보게 되었고, 읽고 쓰는 법을 배우야 한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다른 회원들이



“제 할머니, 카르멘 멘도사는 읽지도 쓰지도 못했습니다. 두 세대에 걸쳐 우리 가족은 크게 축복 받았으며, 이는 어머니가 소녀 시절에 읽고 쓰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었습니다.”라고 대학 학위를 가진 셸리 세인스는 말한다. 위, 서 있는 사람: 셸리의 어머니인 아니타; 숙부 안셀모. 앉아 있는 사람: 셸리의 할머니인 카르멘 멘도사; 안셀모의 부인 델피나와 안셀모 부부의 두 자녀



도움을 줄 수 있다

“저는 세계의 읽고 쓰는 능력에 대해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지상의 [6십억 인구 중 10억 명이 읽고 쓸 줄을 모릅니다. ...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얼마나 충격적이고 슬프며 우울한 비극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불행을 끝낼 수 있습니다. 이 용납할 수 없는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 *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1997년), 314쪽.



나 이지리아의 조각가 폴 이미테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복음 읽고 쓰기 프로그램은 세계 정식 교육을 더 받아야겠다는 강한 소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복음을 좀 더 잘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좀 더 잘 봉사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읽음으로써 행복을 누리는 이 출판물들을 읽고 싶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 회원들은 복음에 대한 간증을 나눔으로써 기꺼이 자신을 표현했고, 저도 복음의 참됨에 대한 제 강한 느낌을 표현할 수 있게 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읽고 쓰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는 주일학교 복음 읽고 쓰기반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참석한 첫 날, 저는 다른 학생들 대부분이 자매들과 어린 소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반에서 유일한 성인 남성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나가고 싶었지만 배우고자 하는 강한 소망이 저를 그곳에 붙들어 두었습니다. 교사님은 우리 각자에게 복음 교육 교재와 경전 읽기에 참여하도록 권유했습니다.

“저는 읽는 법을 배우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경전과 교회 잡지를 읽었습니다. 제가 아이두 지부 주일학교 회장단 2보좌로 부름 받았을 때, 제 이해력은 좀 더 발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능력에 대해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성별 후, 지부 회장님은 제가 그 부름을 영화롭게 할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성별 의식 동안 저는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2주 후, 저는 성인 주일학교를 가르치기 위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 능력에 대해 걱정되었지만 저는 일주일 내내 퇴근 후 집에 와서, 그리고 회사에서도 휴식 시간 동안 준비했습니다. 일요일이 되고 가르칠 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조용히 짧은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를 구했습니다. 말하기 위해 입을 열었을 때 저는 말씀이 그냥 흘러나오는 것에 놀랐습니다. 저는 말을 더듬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더듬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반원들은 저보다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반응과 표정은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저는 공과 내내 평화를 느꼈습니다.”

“복음 읽고 쓰기 프로그램은 제게 정식 교육을 더 받아야겠다는 강한 소망을 불러일으켰으며 그것은 제가 복음을 좀 더 잘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좀 더 잘 봉사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저는 조각가이며, 현재 한 건설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저는 목공 기술을 사용합니다. 나이지리아에는 다음과 같은 속담이 있습니다. ‘나무를 베는 데 사용하는 도끼는 무척 중요하기에 우리는 그 도끼를 두 손으로 들고 어깨에 맨다.’ 도끼는 너무나 중요해서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교회와 복음 읽고 쓰기에 대해 저는 바로 그렇게 느낍니다. 저는 그것들을 두 손과 어깨로 들며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게 배우도록 격려해 주신 우리 지부 지도자들, 특히 제 복음 읽고 쓰기 교사인 로렌스 모네이 형제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미테헤 형제는 복음 읽고 쓰기 반에서 읽고 쓰는 법을 배웠으며, 그 결과 그의 자신감과 복음에 대한 간증은 더욱 강해졌다. 그 이후로 그는 지부의 많은 회원들의 삶을 축복해 주었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Ye Shall Have My Words*라는 제목의 복음 읽고 쓰기 학생 교재(물품 번호 34476)는 스페인어, 영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로 나와 있다. 이 교재를 통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정작 이 교재를 읽을 수가 없다. 그들을 도와 줄 수 있는가? ■



위: 사진 촬영: 프란시스 오네부에서 메리베

시작까지 견딤

칠 년이 걸렸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

마리아 카네바

“누가 가르치는 거야?” 2000년 2월 어느 토요일 아침, 길을 걸으며 나는 친구에게 물었다. 우리는 불가리아에 살고 있었고, 그 당시 14세였다.

“내 친구들인데, 여기서 일종의 선교 사업을 하고 있어.”라고 친구는 말했다. 우리는 단짝 친구였지만 종교에 대해 이야기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친구는 우리가 그 친구들이 무료로 가르치는 영어 수업에 참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영어 고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친구는 내가 관심을 가지리라는 것을 알았다.

우리가 건물 안으로 들어섰을 때, 내 시선은 벽에 걸린 사진에 고정되었다. 이게 교회란 말인가? 그곳은 내가 가 본 유일한 교회인 불가리아 정교와는 달라 보였다. 불가리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가리아 정교 외의 모든 교회는 이단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1989년까지 공산주의 체제 하에 있었던 불가리아에서는 종교적 믿음은 비난의 대상이었고,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종교에 대해 미심쩍은 눈으로 바라본다.

친구는 내게 다음날 교회에 오고 싶은지 물었다. 나는 그렇다고 했지만, 신앙심보다는 호기심에서였다. 나는 그 친구가 다니는 곳이라면 이상한 곳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교회에 규칙적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 더 알고 싶었다. 명찰을 단 그 젊은 사람들이 왜 모국을 떠나 불가리아로 와서 종교에 적극적인 이곳 상황에 스스로를 직면하게 했는지 알고 싶었다. 당시 나는 믿음이 깊은 것은 아니었지만 무엇인가가 나를 계속 교회 활동에 참여하게 했다. 나는 선교사들의 친절한 태도와 회원들의 따뜻한 미소가 좋았다.





침

레 받는
날(위)까지의
여정은
길었지만, 나는 경전과 “살아
계신 그리스도” (반대쪽)의
암기와 같은 개인 발전 활동,
그리고 내 고향 슬리벤의
지부 회원들 (반대쪽)에게서
힘을 얻었다.

나는 지부의 청년들과 친해졌다. 그들의 신앙과 남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열의가 놀라웠다. 청년반에서 처음으로 기도했을 때가 기억난다. 나는 이전에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도 몰랐다. 나는 기도로 인한 하나님 아버지와의 강한 연대감을 느껴 본 적이 없었다. 나는 내가 그분의 딸이라는 것을 몰랐다. 나는 그 이후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어려운 일을 극복해야 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게 기도할 때면 나는 종종 눈물을 흘렸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성신을 통해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하기 시작했다.

십대 시절, 유혹이 다가왔을 때 내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한 신앙이 있었고, 그러한 신앙은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 나는

사탄이 내 친구들을 세상적인 것들로 어떻게 유혹하는지 보았고 작은 유혹에 빠진 뒤에 어떻게 더 큰 유혹에 빠지는지도 보았다. 나는 복음원리들을 지키는 것이 어려웠지만 기도를 통해 느끼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유대감은 내가 유혹을 피하도록 도와주었다. 나는 구원의 계획의 원리에 따라 생활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언젠가 내가 축복 받게 되리란 것을 알았다.

안타깝게도 나는 당시 교회에 가입할 수 없었다. 부모님, 특히 아버지가 강하게 반대하셨던 것이다. 그렇지만 아버지를 이해할 수는 있었다. 아버지의 부모님은 단 한 번도 아버지를 교회에 데려가지 않으셨고, 아버지의 성장기에 불가리아는 공산주의 지배 하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께서 언젠가 내가 교회에 들어오도록 길을 마련해 두셨음을 알았다. 나는 그 길이 무척 어려울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경전을 통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나는 세미나리, 그리고 이후에는 종교 교육원에 참석했고, 교회 활동에도 참여했으며, 나만의 개인 발전 기록부도 시작했다. 나는 청년 활동을 무척 고대했다. 우리가 요리하고 엽서나 책갈피를 만들고 교실을 꾸미며 게임을 했던 것들과 우리들 사이의 우정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활동 하나 하나가 나의 신성한 품성과 인생에서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개인 발전 활동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 중 한 가지는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암기하는 것이었다.¹ 그 글을 보았을 때 나는 그것을 외우는 것이 무척 어려우리라 생각했다. 몇 주가



여러분의 힘을 위하여

본부 청년 회장단과의 대화



본부 청년 회장단—수잔 더블류 태너 회장(중앙); 제1보좌 줄리 비 벡(왼쪽); 제2보좌 일레인 에스 돌튼(오른쪽) 자매는 청소년들이 복음의 표준대로 살고자 하는 열의와 결심을 강화하도록 부모와 지도자들이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대화를 나눈 이후에 벡 자매는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부름 받았으며, 메리 앤 쿡 자매가 청년 회장단으로 부름 받았다.

청소년들에게 표준에 대해 이야기할 때 부모와 지도자들이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수잔 더블류 태너 자매: 회장단으로서 저희들의 모토는 “나는 어려운 일들을 할 수 있다.”입니다. 우리의 담당 신권 지도자인 존 비 디슨 장로님은 이것을 “내가 누구인지 알 때, 나는 그분이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로 바꾸도록 제안하셨습니다. 우리는 청소년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때 표준을 지킬 것임을 확신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자신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일레인 에스 돌튼 자매: 표준에 관한 대화는 규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표준은 성신이 동반하기에 합당한지에 관한 것입니다. 표준은 성스러운 곳에 서서 신화의 세 번째 일원이 함께 하시기에 합당하게 되기 위한 것입니다. 성신은 여러분이 침례와 확인을 받았을 때 들어선 길, 성전으로 이어지는 그 길을 따라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줄리 비 벡 자매: 우리의 표준이

구속이라고 공격하는 기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를 읽고 그것이 모두 규칙에 관한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안전과 선택에 관해 이야기했고 자유롭게 하는 것, 자유로움, 보호 등의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청년가 술이나 마약을 하지 않는다는 우리의 표준을 지킬 때, 그 청년는 절대 그러한 습관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유로울 것이며, 중독이라는 문제가 없으므로 선택을 하는 능력이 배가될 것입니다. 표준이 우리를 잡아 가두는 울타리가 아님을 깨닫자 그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준은 우리가 선택해야 할 일로 가득 찬 세상에 나가 온전한 능력을 발휘하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보호받고 있으므로, 세상에 기여할 수 있고 행복하고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모와 지도자들이 어떻게 청소년들의 마음에 표준을 심어줄 수 있을까요?

태너 자매: 종종 우리는 청소년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보면서 장기적인 비전을 갖기보다는 단기적인 안목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서 주어진 약속을 찾아보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경전을 읽으면서 약속을 찾아내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도록 권고를 받을 때는, 일반적으로 약속도



함께 주어집니다. 표준대로 생활해온 부모와 지도자들의 삶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우리의 삶에서 좋은 일들이 일어났으며 우리가 영원한 가족을 이루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성취되고 있는 약속들입니다.

돌튼 자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나오는 약속들을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더욱 큰 지혜와 능력을 갖고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고, 더욱 큰 용기를 갖고 시련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며, “성신의 도움이 함께할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갖게 되며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성전에 가서 거룩한 의식들을 받기에 합당하게 될 것입니다.”(2~3)

백 자매: 여러분이 받을 축복의 근원이 되는 여러분의 선택 앞에 부끄럽지 않다면, 여러분이 받는 축복 앞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할 것입니다.

돌튼 자매: 때때로 부모들은 표준이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표준에 관해 아이들과 다투봤자 어차피 내 말은 듣지도 않고 서로 피곤하기만 할 텐데 뭐하러 논쟁을 해야 하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관건은 논쟁이 아니라 성스러움입니다. 표준이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나 딸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부모나 지도자들이 청소년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소외시키게 될까 봐 갖는 우려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백 자매: 떠오르는 성구가 있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예레미야 1:8) 그리고 “네 입을 열라. 그리하면 채워지리니”(모세서 6:32)입니다. 주님께서는 지도자들이-모든 부모는 지도자입니다-진리를 말하기를 바라십니다.

태너 자매: 교리와 성약 121편에는 “제 때에 날카롭게 꾸짖을 것이나, 그 후에는 … 더 큰 사랑을 나타내 보[이리]”고 나와 있습니다.(43절) 청소년들은 여러분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면, 더 기꺼이 들으려 합니다. 사랑이 뒷받침된다면, 여러분은 필요한 꾸짖음을 줄 수 있습니다.

백 자매: 저는 우리가 청소년들을 과소평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탐색의 시기에 있으며 이 시기는 뭐든 “왜”라고 질문하는 때입니다.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간증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에게 교리적인 “이유”를 알려주고 그 이유들을 가르침으로써 표준을 강화하는 것이 지도자와 부모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안식일 복장에 관해 제 딸과 했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저는 성찬식에 참석하기 위해 아이가 입었으면 하는 복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또 성찬에 대해 가르치고 우리가 왜 교회에 가야 하는지에 대해 간증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날 제 딸은 옷을 바꿔 입지 않았고, 그 다음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아이의 성찬식 복장이 좀 더 단정해졌습니다. 딸이

스스로 확신을 얻을 때까지 저는 참을성을 갖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다시는 예전 방식으로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딸은 교리를 배웠으며, 자신이 가진 “왜”라는 질문에 답을 얻었던 것입니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가 지도자와 부모가 “왜”라는 질문에 답하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태너 자매: 제가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것이 교리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리는 영원한 진리이며,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정해졌습니다. 표준은 교리에 기반을 두며, 따라서 표준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을 더 어렵게 하기 위해 답답한

어른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는 다른 어떤 자료보다 명확하게 교리와 표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과에 대해 설명합니다. 따라서 영원한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와 그 이유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자는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 저는 “이것을 좀 이해하기 쉬운 말로 설명하고 싶는데”라고 생각할 때 이 책자를 펼치는데, 그러면 제가 필요한 아이디어가 한 문장으로 요약되어 있곤 합니다.

부모와 지도자들이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를 또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백 자매: 가정의 밤 시간에 이 책을 활용하여 표준에 대해 토론할 수 있습니다. 섹션 별로 교리와 표준, 그리고 결과를 표시합니다. 교회의 교사로서 여러분은 이 책을 어느 공과시간에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저는 제가 정말로 강조하고자 하는 주요 문장들을 외웠고, 청소년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 문장들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돌튼 자매: 예를 들어, “사탄은 여러분이 회개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를 바라지만 ...”

돌튼 자매와 백 자매, 함께: “... 그러한 생각은 전혀 참되지 않습니다”(30쪽)!

태너 자매: 청소년들은 종종 서로에게 가장 좋은 교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청소년들과 이야기할 때 가장 좋아하는 것 중 하나는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책자를 건네주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표준 중의 하나를 골라서 몇 분 후에 짧은 말씀을 해주렴.” 저는 즉석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 방을 영으로 가득 채우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청소년들은



청소년들이 힘을 찾도록 도움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물품번호 36550)의 가르침을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게 하고, 청소년의 마음에 심어 주는 방법의 하나는, 책의 각 섹션에서 교리와 표준, 그리고 결과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적인 순결” 섹션을 보십시오.

교리는 “왜 우리가 이러한 표준에 따라 생활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해 줍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육체적 애정 행위는 아름답고 성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남편과 아내가 자녀를 출산하고 사랑을 표현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적인 애정 행위가 결혼을 위해 보존되도록 명하셨습니다.”(26)

표준은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결혼하기 전에 어떠한 성적인 관계도 갖지 말며, 결혼한 후에는 배우자에게 온전히 충실하십시오.”(26)

결과란 표준에 따라 생활할 때 오는 긍정적, 부정적 결과를 말합니다. “성적으로 순결하라는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성전에서 거룩한 성약을 맺고 지키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탄탄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가족의 일부로 세상에 데려오기 위해 자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육체적 관계를 가질 때 반드시 따르는 정신적 피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26)

그들의 경험을 나누고 간증을 전할 때, 영을 느끼며 이 책의 힘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백 자매: 일년에 한번 표준의 밤을 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를 야영장에서 활용할 수 있고 청소년 대회에서 공식, 비공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언제나 우리 청소년들 앞에 있어야 할 자료입니다. 또한 부모와 지도자들은 이 책자의 표준대로 생활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보지 말아야 할 영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고 자신은 그런 영화를 보러 가서는 안 됩니다. 자녀에게 “그렇게 정숙하지 못한 웃은 입지 말아라”라고 한 후 자신은 그런 웃을 입는 어머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십일조를 내렴”이라고 말하고 자신은 십일조를 내지 않는 아버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이 아닌 사람들에게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돌튼 자매: 저는 이 책을 “여러분”의 힘을 위하여라고 부릅니다.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니까요.

백 자매: 제 책자 위에는 제 이름이 쓰여 있고 제가 해 놓은 표시들이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표준은 남성이나 여성, 또는 특정 연령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가 가르치는 주님의 표준대로 살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받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돌튼 자매: 마음의 평안이지요.

벡 자매: 성신의 동반입니다.

돌튼 자매: 또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2007년 상호향상회 주제인 “쉬지 말고 덕으로 네 생각을 장식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네 확신이 점점 강하여지리니”(교리와 성약 121:45)와 관련있습니다. 그러한 즉각적인 축복이 중요한 이유는, 종종 청소년들이 “내가 이것을 선택한다면 내 주위에는 친구들이 거의 없게 될거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정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태너 자매: 제가 7학년 때 정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정직했고, 인기

있는 여자아이들이 저에게 시키는 일에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로 저는 친구들을 잃었고 슬펐지만, 제가 한 일이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확신으로 인해 그 시기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가족들 앞에서 제가 당당히 설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은 아팠습니다.

돌튼 자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가 표준대로 사는 사람들의 일상에 문제가 하나도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지는 않지만, 분명 “더욱 큰 용기를 갖고 시련을 견뎌낼 수 있을 것”(2쪽)이라고 말해 줍니다. 제가 그날 밤 그 파티에서

걸어나감으로써 그 이후의 사교활동에 제한을 받았지만—그 후로 인기 있는 아이들은 저를 따돌렸습니다—이제 제가 이해하게 된 것은 표준대로 사는 것이 자신을 지도자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표준대로 행하는 용기를 가진 한 명의 청년, 또는 한 명의 청년이 부적절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면서 다른 청소년들도 똑같이 따라 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의 표준대로 생활할 때 오는 장기적인 축복은 어떤 것입니까?

벡 자매: 지난주에 저는 손녀들을 데리고 쇼핑을 하러 갔습니다. 판매원 한 명이 저희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저는 그녀에게 전도용 카드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요즘 제 인생을 제 의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 방법을 모르겠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후 우리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만큼 나이를 먹었을 때 손녀들과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 그러면서 저는 저의 어린 손녀들을 가리켰습니다 — 지금 선택하는 것들에 매우 신중해야 해요. 내가 아가씨 나이에 내렸던 결정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돌튼 자매: 장기적인 축복들은 세대를 걸쳐 나타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작은 일들이 나중에 여러분이 도달할 곳, 그리고 여러분의 후대가 도달할 곳을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복음을 알고 표준을 갖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앞 세대들이 감수했던 희생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청소년들이 어떻게 유혹을 극복하고 그런 즉각적, 장기적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돌튼 자매: 제가 청소년들에게 “어떤 일이 가장 하기 힘든지?”라고 물으면 많은





표준을 나눔



제가 아는 한 청년은 그녀의 표준에 대해 질문하는 여러 친구들 때문에 불만이었습니다. “열여섯 살 전에는 왜 데이트를 못해?” “술을 왜 안 마시니?” 그 상황을 어떻게 넘겨야 할지 기도했을 때 그녀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책자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다녀야겠어. 사람들이 질문을 하면, 그것이 데이트에 관한 질문이라면, 책을 주고 데이트에 대한 섹션을 펼쳐 주며 그 부분을 읽으라고 해야지.”

그 아이디어는 훌륭했습니다! 석 달 동안 그 청년은 52권의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를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명의 새로운 친구가 교회에 함께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친절하고 용감했으며, 자신의 표준에 대해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들이 분명하게 표준대로 생활하고 변명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모범에 주목할 것입니다.

메리 앤. 쿡, 본부 청년 회장단 제2보좌

아이들이 “파티에 가서 술을 권유 받았을 때 마시지 않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왜 그런 파티에 있는 거지?” 그러면 아이들은 “다른 이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기 위해 가요.”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저는 언제나 이렇게 말해 줍니다. “네가 친구들을 데리고 가야 할 곳은 그들이 영을 느낄 수 있는 곳이란다. 영이 함께 가지 않을

곳으로는 절대 가지 말아라. 그런 장소는 피하렴!”

백 자매: 칠십인 정원회의 린 지 로빈스 장로님은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초콜릿칩 쿠키를 먹지 않는 다이어트를 하면서 막 쿠키를 구운 부엌으로 들어간다면, 맛있는 냄새가 온 부엌에 퍼져 있고 쿠키를 쪼갤 때 초콜릿칩이 녹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면, 결국 하나를

먹게 될 때까지 얼마나 버틸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강합니까? 이러한 행위는 유혹을 거부하거나 거부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초콜릿칩 쿠키를 먹지 않는 다이어트를 하면서 쿠키를 굽는 부엌에 아예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리고 스스로 쿠키를 굽지 않는다면, 그것은 유혹을 피하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이 거부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이러한 의로운 표준을 지키는 청소년들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백 자매: 사탄은 우리 청소년들을 모든 방면에서 유혹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있으며,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후기에 청남과 청년들이 꿈을 꾸고 시험을 보게 될 것이며 그분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실 것이고 의와 진리가 마치 홍수처럼 땅을 휩쓸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엘 2:28~32; 모세서 7:62 참조) 의로운 청소년들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돌튼 자매: 우리 청소년들은 지상에서 마지막이 다가오는 시기에 투입된 주전 선수들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있을 재난과 다른 사건들에 대해 읽습니다만,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가 제시하는 표준대로 생활할 때 우리 청소년들은 보호받고 강화될 것이며, 그리하여 그들은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봉사하고 활약하게 될 것입니다.

태너 자매: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힐라맨의 용사들과 같습니다! 그 젊은이들은 자라서 니파이인 세대를 구했으며,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자라서 오늘날의 세대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

특별한 책, 특별한 대답

그리고어 에이 타데보시안

내가 가진 문제가 어렵게 느껴졌지만, 그 해결은 빠르고 영감에 찬 것이었으며,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침 레와 확인을 받기 전, 나는 내가 올바른 길을 선택한 것인지 상당히 혼란스러웠다. 아르메니아 기우므리 지부의 선교사들은 내가 몰몬경과 교회 가입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았고, 그들이 다른 사람과 선교사 토론을 하는 자리에 함께 가자고 초대했다.

우리가 첫 번째 집에 도착했을 때, 페린 장로는 아니치카란 자매에게 전에 알려준 경전 구절을 읽었는지 물었다. 그녀는 “아니오”라고 대답했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니파이후서 29장에서 33장까지 함께 읽었다. 29장을 읽는 동안 우리는 몰몬경에 대한 예언과 이방인들이 “하나의 성경! 하나의 성경! 우리에게는 하나의 성경이 있으니 더 이상의 성경이 있을 수 없도다”(3절)라고 말하며 몰몬경을 거부할 것이라는 예언을 공부했다. 그 장은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내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 다음 우리는 다른 가정을 방문했다. 우리가 몰몬경의 구절을 읽는 동안 우리가 가르치던 여성의 아버지가 “그게 무슨 책이요?”라고 물었다.

나는 그것이 몰몬경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화가 나서 “우린 이미 성경이 있고, 또 다른 성경은 있을 수 없소.”라고 말했다.

나는 단 10분 전에 아니치카와 함께 읽었던 장을 떠올렸다.

페린 장로가 입을 열었다. “선생님이 가진 성경은 고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성약의 백성들로부터 왔습니다. 그는 계속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창조하셨고, 그분은 그분의 말씀을 지상에 있는 그분의 모든 자녀들에게 보이십니다. 선생님께 성경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분의 말씀을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하며 몰몬경의 기원에 대해 설명했다.

나는 방금 있었던 일에 놀랐다. 내가 몰몬경에 대한 나의 의구심을 해결하는 데, 거기에 나온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위대한 간증은 없어 보였다.

이제는 진지한 마음으로 몰몬경이 가장 진실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잊지 않으실 것임을 안다. 다시금 나는 몰몬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책인지를 깨달았다. ■



동성애로

힘들어하는 자들을 도움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여러분에게
동성애로 고민하며
도움을 청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어떤 말을
해 주겠습니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20대 초반의 단정한 젊은이가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참으로 아름다웠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안 그는 별로 미소 짓지 않았습니다. 저의 주의를 끈 것은 그의 눈에 담긴 고통이었습니다.

“계속 교회 회원으로 남아 있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제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냐?” 제가 물었습니다.

“저는 동성애자입니다.”

그는 내가 놀랄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 같았지만,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 ?” 라고 저는 질문했습니다.

내가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자 그의 얼굴에는 마음을 놓는 표정이 스쳤습니다.

“저는 여성들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남자들에게 마음이 끌려요. 이런 감정을 무시하려고 노력하고 바꿔 보려 했지만 ...”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 왜 이럴까요? 그런 감정이 매우 뚜렷합니다.”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조언을 하기 전에 이야기를 좀 더 들어야겠네. 자네가 알다시피 동성간의 이끌림은 죄가 아니지. 하지만 그런 이끌림과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은 죄가 될 수 있네. 이성간의 정상적인 이끌림이라도 그것을 행위로 옮겼을 때 죄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순결의 법을 어기고 있는가?”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이번엔 제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문제를 거론해 주어 고맙네. 이런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지. 그리고 자네가 자신을 깨끗이 지킨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하네.”

“자네가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가에 대해서는, 내가 대답을 줄 수가 없네. 여러 가지 요소가 관련되어 있을 수 있고, 개개인이 서로 다른 것만큼이나 그 이유도 다양할 수 있겠지. 자네가 느끼는 감정의 원인을 포함해서 어떤 것들은 우리가 현세에서는 알 수 없을지도 모르네. 그러나 자네가 느끼는 감정의 원인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자네가 범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네. 자네의 생활이 계명에 충실하다면, 자네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회원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성전에 가고, 구주의 속죄를 통한 모든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걸세.”

그는 가슴을 더 펴고 앉았고 저는 계속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성적 느낌으로만 스스로를 규정한다면 자신에게 잘못 대하는 것일세. 그것이 자네의 유일한 특성이 아니니, 그 점에만 과도한 주의를 기울이지 말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자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이 자네를 사랑하신다는 것이네.”

“그리고 나도 자네를 사랑하네. 총관리 역원 형제들도 자네를 사랑하네.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님이 동성애를 느끼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나는군. ‘우리는 여러분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며, 그 이유는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지.”

우리는 30분 정도 더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의 개인적인 조연자가 될 수 없음을 아는지라, 저는 그가 해당지역 신권지도자들을 만나도록 했습니다. 그런 후 그를 보냈습니다. 그의 눈에서 전에는 없던 희망을 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직 헤쳐나가야 할-아니면 단순히 인내해야 할 - 어려움들에 직면해 있지만, 잘 해낼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심

천사가 니파이에게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니파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심을 알고 있나이다. 그러할지라도 모든 것의 의미를 알지는 못하나이다”(니파이전서 11:17). 저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인하며, 동성에 느끼는 것과 관련한 질문들을 포함하여 많은 의문들에 대한 대답을 듣기 위해 기다려야 하고, 어쩌면 다음 세상에서 대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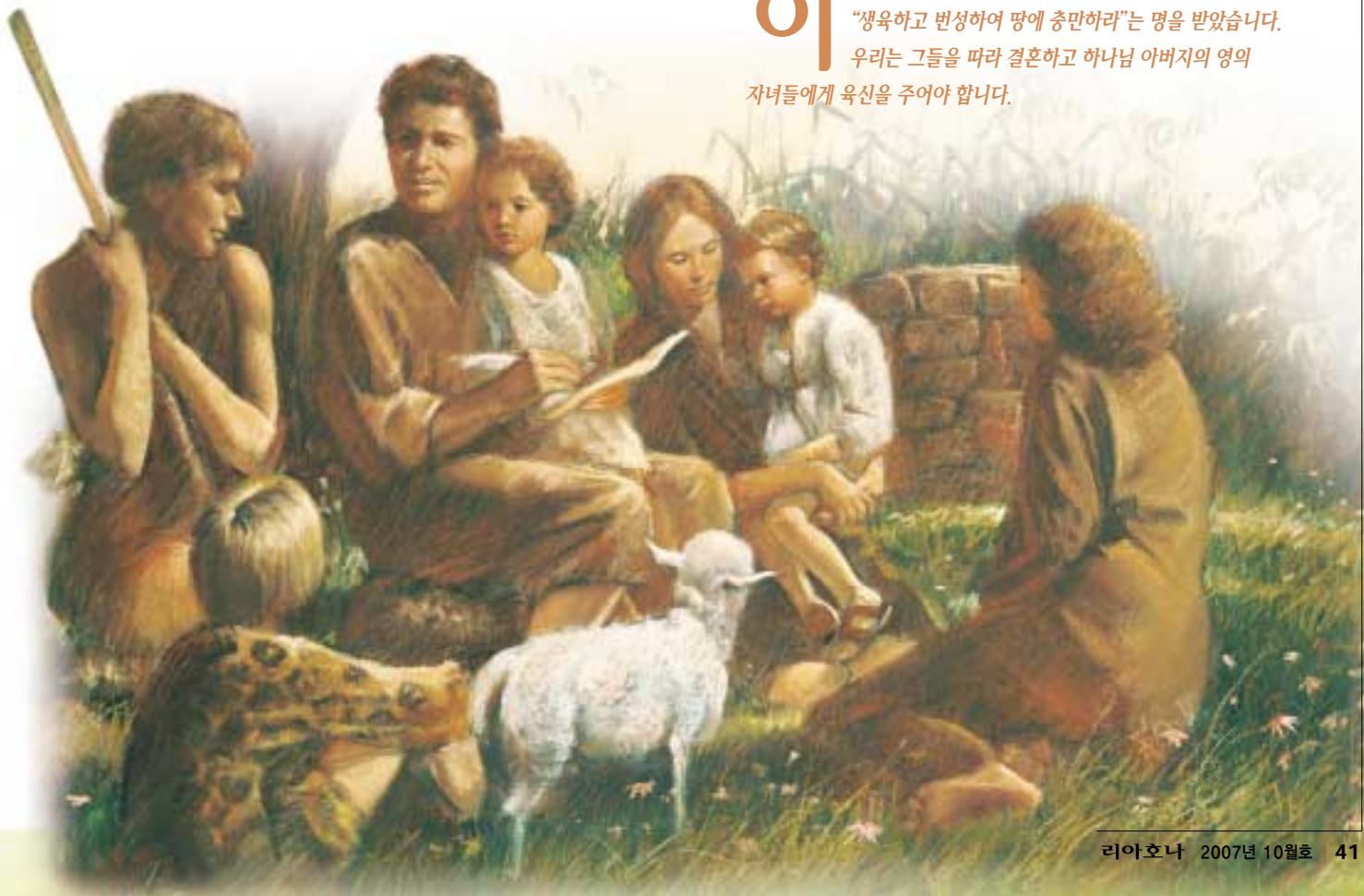
불행히도 일부 사람들은 그들에게 모든 답이 주어졌다고 믿으며, 그들의 의견을 널리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대변자들은 아닙니다.

저는 회원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그들과는 다른 성향을 지닌 사람들에게 연민을 보이려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직면했을 때 뒤로 물러서려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것은 특히나 동성애에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믿을 만한 정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돕고자 하는 사람들은 불안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저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지만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동성에게 이끌리는 가족이나 친구를 둔 분들을 돕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행복의 계획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원하시는 것에 대해 분명히 하옵시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영생의 모든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계획의 중심에는 자녀의 출산이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따라 결혼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들에게 육신을 주어야 합니다.



추가적인 도움

이 기사의 일부 개념이나 언어는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가 동성에 호감을 가진 자들을 위해 준비한 책자에서 인용되었다. 이 책자의 제목은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자녀를 사랑하십니다'이다.(물품 번호 04824 320) 여러분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다면 지역 배부센터에서 구하거나 www.lds.org/same-gender-attraction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도록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마련하셨습니다. 이 계획은 영원한 진리에 기반한 것이며 시대와 사회적 경향에 의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계획의 중심에는 자녀의 출산이 있으며, 그것이 아담과 이브가 에덴동산을 떠난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니파이후서 2:19~25; 모세서 5:10~12)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모세서 2:28) 명을 받았으며, 그들은 그 계명을 지키기로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따라 결혼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들에게 육신을 주어야 합니다. 당연히 동성간의 관계는 이 계획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여러 이유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즉시 결혼하고 자녀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의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결혼 후에 자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성애에 대한 호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건, 하나님의 가장 풍성한 축복은 그분의 모든 자녀들에게, 그들이 깨끗하고 충실하다면, 장차 주어질 것입니다.

신앙을 행사하고, 개인적으로 노력하며, 또 속죄의 권세에 의지하여 일부는 동성애를 극복하고 결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이 생애에서 동성애를 극복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같은 교회 회원 혹은 가족, 친구로서 우리는 동성애자들이 그들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 남다른 제약을 가질 수도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성간의 호감이 실재하더라도 그 호감을 육체적으로 표현해서는 안됩니다. 육체적인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욕망은 어느 누구의 부모덕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감정은 강력할 수 있지만, 합당한 행동을 선택할 자유를 박탈할 만큼 강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분명히 할 것은, 호감 자체는, 그것이 곤란한 상황을 만들긴 하겠지만, 그 자체가 그 사람을 합당하지 않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제일회장단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부도덕한 생각이나 감정을 갖는 것과 이성간 또는 동성간에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 것은 다릅니다."² 유혹에 넘어가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범법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차이점을 인식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때때로 절망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은 그 축복이 근거하는 율법에 순종한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제 마음이 아픕니다.(교리와 성약 130:20~21 참조) 복음대로 사는 어느 누구도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희망과 평안은 보혜사로부터 오며, 절망을 극복하는

방법은 우리의 생활에 성신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도움 방법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가 동성에 대한 호감으로 인해 여러분에게 도움을 구한다고 가정합시다.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어떤 행동을 취하겠습니까?

저라면 여러분의 아들과 딸, 형제나 자매, 또는 친구가 그 문제를 저에게 털어 놓은 용기를 먼저 감사해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한 것을 감사해 할 것입니다. 신뢰하는 누군가와 문제를 토론하는 것은 혼란스러운 감정을 다루는 좋은 첫 걸음이며, 그러한 첫 걸음에 배려하는

마음으로 응대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다음은, 만일 여러분이 동성에게 끌리는 자녀를 둔 경우, 그러한 감정의 원인이 여러분에게서 비롯되었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문제의 당사자를 포함한 그 누구도, 문제를 자신의 탓으로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누구의 탓으로 돌려도 안 되며, 하나님을 탓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신앙으로 걸으며,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그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하도록 도와십시오.

그렇게 하는 데 있어 결혼이 만능의 해결책이 아님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동성애는 강하고 집요해서 이성간의 관계를 강요한다고 해서 그 감정이 변화되기는 어렵습니다. 동성애 문제를 가진 사람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기르고 가정에서의 행복을 찾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모두 기뻐합니다. 그러나 다른 경우에 이런 시도는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감정이 해체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대화의 창을 항상 열어두십시오. 부모와 자녀 사이의 솔직한 대화는 사랑의 분명한 표현이며, 순수한 사랑을 충분히 표현할 때 가족간의 관계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구성원에 대한 사랑도 의롭지 못한 행위를 묵인하거나 그것을 눈감아줄 만큼 무조건적이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물론 여러분의 집에 거할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는 주님의 영을 거스르는 어떠한 행동도 집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원 가꾸기의 원리

다음은 정원을 가꾸는 데서 배울 수 있는 원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정원에 좋은 씨앗을 뿌리면 잡초를 뽑을 일이

많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활을 영적인 자양분으로 채울 때 우리는 욕망을 더 쉽게 자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이 항상 강하게 거할 수 있는 긍정적인 가정 환경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긍정적인 환경이란 개인적으로, 또는 함께하는 예배, 기도, 금식, 경전읽기, 봉사, 영감을 주는 대화, 음악, 문학 그리고 다른 매체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환경은 교회에서의 경험에도 이어집니다. 동성애를 느끼는 일부 사람들은 없어지지 않는 두려움을 지니며, 교회에서 상대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한편, 일부 회원들은 그들과 성향이 다른 사람들을 친분관계에서 제외시킵니다. 우리의 행동이나 말로 인해 어떤 사람이 교회 회원으로서 누려야 할 온전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그들에게, 그리고 주님께 잘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모든 회원을 참여시키고 봉사와 사랑으로 서로를 강화할 때 더욱 강해집니다. (교리와 성약 84:110 참조)

여러분은 자신이 도우려는 사람에게 신권지도자를 만나보도록 권유하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영감에 찬 조언을 해줄 열쇠를 지니고 있습니다. 제일회장단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이러한 문제를 논의할 경우 그것을 기밀로 하고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으로 함께 의논하도록 권고하셨음을

기억하시고, 접견을 권유하시기 바랍니다.³

주님의 손 안에서

얼마 전에 저는 동성애로 어려움을 겪는 30대 초반의 형제에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의 어려움은 감당하기 쉽지 않았고, 그는 아직 미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께서서는 저의 현재 상황을 직시하도록 도와주셨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며 제 삶을 주님의 손에 맡기는데 만족합니다.”라고 썼습니다.

저는 제가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을 지니고 살면서 신앙과 용기를 보여주는 그 형제님께 눈물 어린 존경을 표합니다. 저는 그 형제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디모데전서 6:12) 수천 명의 남자와 여자들을 사랑합니다. 저는 동성간의 호감으로 인해 힘들어 하는 분들 또는 이러한 분들을 돕고 있는 분들이 이 형제님과 같은 마음 자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

주

1.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87쪽.
2. 제일회장단의 편지, 1991년 11월 14일.
3. 제일회장단의 편지, 1991년 11월 14일 참조.

정 원에 튼튼하고 건강한 식물을 심으면 잡초를 자라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활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자양분으로 채울 때 우리는 욕망을 더 쉽게 자제할 수 있습니다.



삽화: 클리프 프리먼

길베르토 아저씨의 기억력

에스더 라비브 드 베루벤

죽은 자를 위한 의식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을 때, 나는 내 남편이 그의 할머니를 위한 성전 의식이 행해지는 것을 보면서 할머니에게 표현했던 큰 사랑에 감명받고 영감을 받았다. 이로 인해 나도 나의 조상들에 대해 더 알고자 하는 동기가 생겼다. 그때로부터 수년 동안, 내가 살고 있는 멕시코 과달라하라의 가족역사센터 분들을 비롯한 많은 형제 자매들이 내가 조상들을 위한 의식을 행하는 것을 도와주셨다.

1991년 나는 축복사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안에는 내가 나의 돌아가신 친지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헌신하라는 말씀이 있었다. 나는 이를 위해 목표를 세웠는데, 그로 인해 교회 회원이 아닌 나의 부모님들과 날마다 토론을 하게 되었다. 나는 자주 우리 가족에 대해 질문했는데, 어머니는 조부모님에 대한 이야기 밖에는 해줄 수 없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아버지의 형인 길베르토

아저씨가 심장마비를 일으켰다고 얘기해 주었다. 어머니는 “너랑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실 거야. 기억력이 좋은 분이라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실 거다.”라고 말씀하셨다.

아저씨가 계신 요양원으로 전화를 걸자, 숙모가 전화를 받아 아저씨의 상태가 좋지 못해서 말씀을 할 수 없다고 말해 주셨다. 나는 그녀에게 왜지를 빙다고 말하고 그들과 가족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다음날 나는 다시 요양원에 전화를 했다. 놀랍게도 아저씨가 전화를 받으셨다.

“길베르토 아저씨! 건강을 회복하시라고 제가 열심히 기도했고 사랑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전화했어요.”

“정말 고맙다, 비비.” 그가 대답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

기분이 한결 좋구나. 넌 어떻게 지내니?” 나는 아라비아와 레바논에서 온 우리 가족들의 이름을 알아내려고 열심히 이야기를 했다. 아저씨의 기억력은 어머니께서 이야기하신대로였다. 아저씨는 나의 부계 가족들의 4대에 걸친 이름, 출생 및 사망 일자와 매장지를 알고 있었다.

전화를 끊자, 나는 방금 우리의 대화가

아 저씨의 기억력은 어머니께서 이야기하신대로였다. 아저씨는 나의 부계 가족들의 4대에 걸친 이름, 출생 및 사망 일자와 매장지를 알고 있었다.



10 김기복·촬영



지상에서 마지막 대화일 거라는 느낌을 받았다. 내 직감은 옳았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둘 모두를 축복하셔서, 내가 지상에서,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 가족을 하나로 묶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도록 해주셨다. ■

교회로 가는 길

스티븐 베어

내가 일곱 살일 때 부모님은 우리 와드의 한 비활동 가족과 친구가 되었는데, 그 가족은 할머니와 두 아들이었다. 나와 형 존은 그 집의 세넌과 로빈과 각각 동갑이었고, 우리 가족들은 자연스럽게 그들과 친해졌다.

그 가족은 자동차가 없었으므로, 아버지는 가까운 도시에 사는 그들이 교회를 오고 가도록 태워주셨다. 나는 아버지가 형과 나를 불러 차에 태우고 그들을 데리러 가시던 것을 기억한다. 당시에 나는 그 일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나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들이 교회에서 활동적이 되고 자동차를 살 때까지 그렇게 하셨다. 로빈과 세넌은 곧 침례와 확인을 받았고, 그들의 어머니는 상호부조회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당시에 나는 아버지의 봉사가 어떤 긍정적인 여파를 가져오게 될지 알지 못했다.

당시에 나는 아버지가 그 아이들을 교회까지 왕복하도록 차에 태워주는 일이 어떤 긍정적인 여파를 가져올 것인지 알지 못했다.

내가 8학년이 되기 몇 개월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 상실감에 더하여, 나는 나의 외모에 자신이 없었고 친구도 없었다. 좌절감에 빠져들었던 나는 점심시간에 혼자 앉는 것이 견딜 수 없어서 그 시간에 집까지 걸어서

다녀오곤 했다.

그 해에 우리 가족과 친구가 되었던 그 가족이 우리 학교 지역으로 이사를 왔고, 세넌이 우리 학교로 전학을 왔다. 우리는 즉시 친구가 되었다. 나는 나를 받아주는 친구가 있어서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누군가가 내 친구임을 즐거워한다는 사실이 나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키워주었다. 더 이상 혼자 점심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되었다.

우리의 우정은 고등학교 시절에 더욱 깊어졌다. 우리의 형들이 대학에 가고 선교 사업을 나간 동안 우리는 서로에게 형제가 되었다. 우리는 독수리

소년단원상을 함께 받았고, 같은 대학에 갔으며, 같은 해 여름 선교 사업을 떠났고, 귀환한 뒤에는 룸메이트가 되었다. 우리 둘다 모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훌륭한 여성과 결혼했고, 우리의 첫 아이들은 3개월 사이로 태어났다.

어느 날 저녁, 세넌이 결혼한 지 얼마 뒤에 우리는 우리의 유년시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가 나의 불안감과 아버지의 죽음을 극복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말했다. 그의 우정 덕에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세넌은 나에게, 내 아버지가 그의 가족을 교회까지 태워주지 않았다면, 그는 교회에 다니지 않았을 것이고, 선교 사업도 성전 결혼도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순히 교회까지 차를 태워 주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져온 축복을 깨달으면서 나는 영을 강하게 느꼈다. 세넌의 우정을 되새기면서 나는 아버지가 세넌의 가족을 구원하는 것만 도운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구해 줄 친구까지 준비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

누가 내 머리를 돌렸을까?

힐도 로실로 플로레스

1972년,
페루
피우라의

성찬식 모임에서 가족 역사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던 연사가 계속 나를 쳐다보았다. 말씀을 마치며 그는 “저는 로실로 형제님이 이 사업을 수행하실 것임을 압니다.”라고 말하는 바람에 나는 깜짝 놀랐다.

교회의 회원이 된 지 일 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나는 가족역사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목표를 세웠다. 그날 연사의 말씀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자 하는 열의를 느꼈기 때문이었다. 나는 4대 가계도 표를 구해서 부모님과 친지들과 이야기하며 그들이 아는 것들을 수집했다. 가족 역사 작업을 할 때마다 기도로 주님의 도움을 간구했다.

모계 쪽 증조부모들의 사망 날짜를 알기 위해 나는 그분들이 묻힌 페루 북부의 조리토스라는 마을에 갔다. 돌아가신 분들은 대부분 마을 외곽에 있는 묘지에 묻혀 있었다.

묘지에 들어가서 찾기 시작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런 후 나는 다시 마을로 가서 사촌에게 증조부모들이 그곳에 묻힌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그녀가 그렇다고 하자

나는 “그럼 돌아가신 날짜를 알기 전까지는 여길 떠나지 않겠어요.”라고 대답했다.

나는 다시 묘지로 돌아와 한 줄 한 줄 체계적으로 모든 묘비문을 읽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무덤은 보이지 않았고, 나는 주님께 무릎을 꿇고 도움을 구했다. 그런 후 다시 찾기를 시작했다. 그러나 결과는 같았다. 나는 피곤했고, 날은 어두워졌으며, 계획한 다른 조사를 하려면 그곳을 떠나야 했다.

“어쩔 수 없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목표를 이루지 못한 채 떠나야만 했다.

갈 준비를 하고 나는 정문으로 향했다. 그런데 한 발을 내딛는 순간 나는 뒤에서 누군가가 양손으로 내 머리를 잡고 어느 한 방향으로 돌리는 것을 느꼈다. 내 시선은 거의 지면에 닿을 정도로

나는 바닥에
앉아 비문을
읽기 위해
먼지를 닦아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내가 찾던
정보가 거기 있었다.

기울어진 작고 더러운 묘비에 고정되었다. 나는 뒤를 돌아서 누가 내 머리에 손을 댄는지 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나는 그 묘비로 다가가서 바닥에 앉아 비문을 읽기 위해 먼지를 닦아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내가 찾던 정보가 거기 있었다. 이시도르 가르시아 로실로, 1934년 8월 1일 사망. 프란치스카 에스피노자 베루, 1954년 1월 31일 사망.

구원의 의식들을 받기 위한 내 조상들의 오랜 기다림은 1980년에 끝이 났다. 그 해 아내와 나는 브라질 상파울로 성전에서 우리의 엔다우먼트를 받았다. 성전에서 나와 아내는 인봉되었고 조상들을 위한 대리침례를 받았다.

침례탕에 들어서면서 나는 그 묘지의

작은 묘비를 떠올렸다. 조상들을 찾는 동안 주님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며 나는 잔잔한 물속으로 들어갔다. ■

가정 복음 교사와 기도함

주디 스톤

말 하기 부끄럽지만 전에 가정 복음 교사들이 축복이기보다는 귀찮은 존재들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다. 그 시절 그들이 방문할 때는 내 할 일들을 끝마치기 위해 일부러 집에 가지 않고 그들의 방문을 회피하곤 했다.

링컨이 우리의 가정 복음 교사가 되었을 때 나는 특히나 더 못마땅했다. 그는 한번도 방문을 거르지 않았다. 언제나 공과를 준비해 왔고, 성실하게 그의 임무를 수행했다. 그의 노력은 감사했지만 그와 그의 동반자가 매달 방문했을 때 그들에게 완전히 집중할 정도는 아니었다. 링컨은 언제나 성심을 다했으나 나는 언제나 좀 무례하게 굴었다.

어느 해 이른 봄, 나는 뜰에 나가서 일하는 중이었다. 날씨는 화창하고 따뜻했다. 보통 정원일을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졌지만, 그날은 집중하기 힘들었다. 남편은 얼마 전 악화된 척추 질환으로 수술을 받았고, 우리 가족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답이 필요했던 나는 정원에 무릎을

꿨었다. 간절한 기도로 주님의 인도를 간구하는 동안 눈물이 흘러내렸다. 평안을 느낄 수 있으면 좋으련만. 우리의 미래가 그 순간에 보이는 것만큼 암울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면 좋으련만. 나는 열심히 기도했고 때때로 소리 내어 기도하면서 주님께 희망을, 그리고 무엇보다 평안을 간구했다.

주님께 간구한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매우 지쳐 있었다. 집에 아무도 없어서 나를 추스를 수 있는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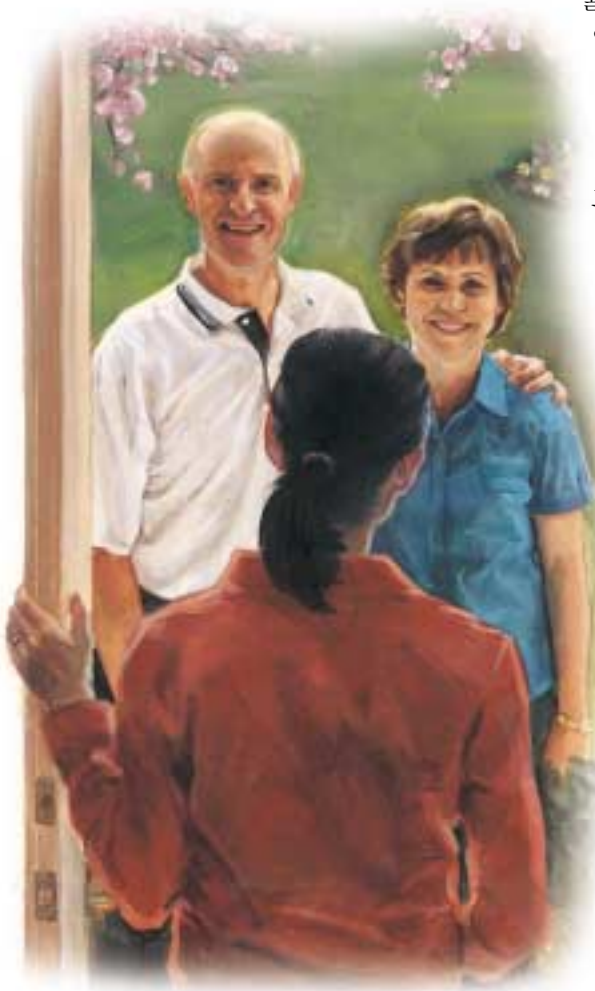
다행이었다. 하지만 신을 벗자마자 초인종이 울렸다. 링컨일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곳에 그가 서 있었고, 이번에는 공과자료를 가져오는 대신에 자기 아내와 함께 온 것 같았다.

처음으로 나는 그를 보는 것이 기뻐다. 그들을 안으로 들어오게 했고 우리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링컨은 남편의 일, 우리의 다섯 딸들, 그리고 다른 가족사에 대해 물었다. 그들은 오래 머물지 않았지만 그들이 가려고 일어섰을 때 링컨은 우리 집을 축복해도 될지

물었다. 나는 고마웠고, 기도가 얼마나 필요했는지를 그가 어떻게 알았을지 의아스러웠다. 우리는 무릎을 꿇었고, 나는 그의 기도 속에서 위로의 말에 귀 기울였다. 그는 구체적으로 우리 가정에 평안의 축복을 주시도록 간구했다.

기도하는 동안 내 영혼이 위로 받았음을 느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으며 잘 해결될 것임을 알았다.

나의 기도는 우리의 성실한 가정 복음 교사인 링컨을 통해 분명히 응답되었다. 청지기 직분을 영화롭게 하고 성신의 인도를 따름으로써, 링컨은 내가 그의 성스러운 부름에 대한 간증을 갖도록 해주었다. ■



제일회장단 메시지

리아호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온전하게 하도록 도왔습니다. 훌륭한 삶을 바라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제일회장단의 메시지를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일회장단 메시지는 제가 제 삶을 정리하도록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리아호나를 매달 구입할 수는 없지만 제가 구입해 읽었던 리아호나는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줍니다.

아브라함 아더라니호, 캐나다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제가 처음 침례를 받고 교회 회원이 되었을 때, 저는 복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리아호나를 읽으면서 복음에 대해 한번에 한 원리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경험을 나누어 준 분들을 통해 영감을 받습니다. 복음의 원리들을 증명해 주는 좋은 글들을 출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페데리코 지 발루트 이세, 필리핀

진실로 복음대로 사는 방법

우리 가정과 도서관에 리아호나가 비치되어 있어서 여가 시간이나 영을 느낄 때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훌륭하고 온전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나는 이곳 저곳의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복음대로 사는지에 대해 알려주는 훌륭한 기사들에 감사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를 단합하게 해 주며 우리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줍니다.

엘시 카스텔로, 에콰도르

돌아오도록 용기를 얻음

어린 시절 저는 저활동이었지만 십대가 되었을 때 다시 교회로 돌아갈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 저는 기도했고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을 뜻하며 어떤 책임들이 뒤따를지에 대해 숙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리아호나 과월호를 읽기로 했습니다. 그 안에는 교회로 돌아가려는 소망을 강화시키고 용기를 주는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기사들을 읽으면서 저는 크게 용기를 얻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기사들을 통해 교회에 있는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과 제가 잘못을 했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 무언가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모임들은 전과 똑같지만, 이제 저는 더 긍정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제가 리아호나를 통해 공과와 성찬식에 즐거이 참여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리아호나를 읽을 때마다 저는 저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며 만족스럽습니다.

마리아 필라 산타나, 도미니카공화국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의 말씀

리아호나 잡지를 정기적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93세입니다. 침례와 확인을 받은 때로부터, 저는 이 잡지를 받고 있습니다. 전에는 책의 크기가 더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항상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잡지의 모든 기사를 즐겨 읽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일년에 두 번 연차대회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도 기쁩니다.

리디아 도밍게즈, 미국

몇 달 전에, 우리가 4월호에 새롭게 실은 설문 조사에 많은 분들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백 개의 답신을 받았고 우리는 응답 하나 하나를 살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피드백은 우리가 리아호나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설문 조사에 응할 기회가 없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애독자 편지는 liahona@ldschurch.org 또는 *Liahona*, Com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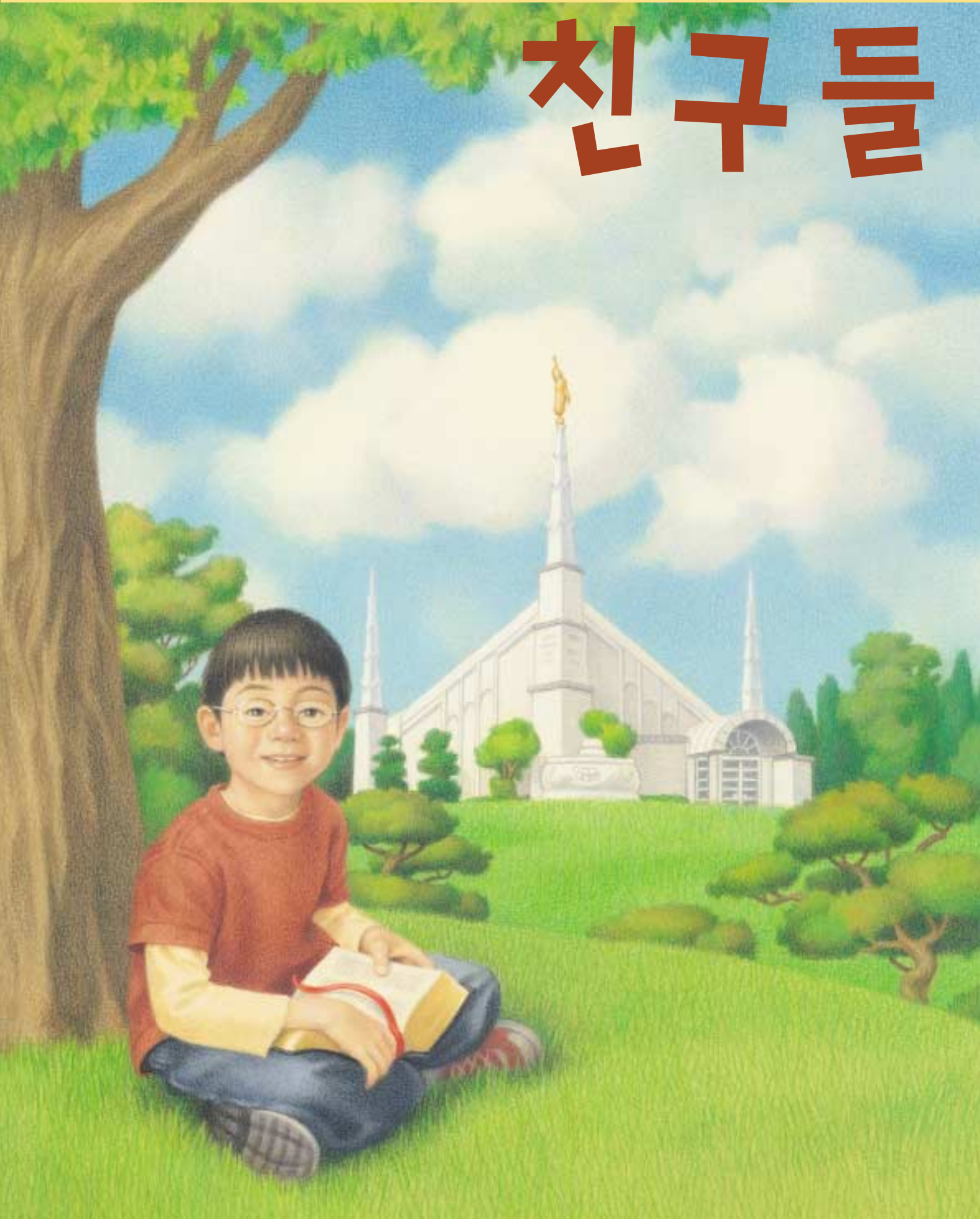
50 E. North Temple St., Rm. 2420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편지는 분량 조절이나 명확성을 위해 편집될 수 있습니다.



사진: 후인 마누엘 헤르난데즈, 히메네스

친구들



빈 수레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파우스트 회장님은
비이기적인 봉사가 어떻게
빈 수레를 가득차게, 가득찬
수레를 비게 만들었는지
말씀하십니다.

여러 해 전에 한 제사 정원회는 봉사 프로젝트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모으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사 중 한 명이었던 짐은 이 봉사 프로젝트로 매우 들떠 있었으며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음식을 모으기로 결심했습니다. 제사들이 예배당에서 모이기로 한 날이 왔고 그들은 모두 동시에 예배당을 출발하여 그날 저녁 정해진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짐의 수레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는 편안해 보였지만, 몇몇 소년들은 그를 놀렸습니다. 이를 보고 짐이 자동차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아는 고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밖으로 나와 봐, 짐. 내 차를 좀 봐 주려므나. 녀석이 속을 썩이고 있거든.”

짐이 밖으로 나오자, 고문은 짐에게 마음이 상했는지 물었습니다. 짐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음식을 모으러 나갔을 때 저는 정말 많이 받았어요. 수레가 가득 찼었죠. 그런데 예배당으로 돌아오다가 우리 워드 구역에 살고 계시는 한 이혼한 비회원 아주머니의 집에 들렀어요. 문을 두드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설명했더니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분은 제게 줄 것을 찾기 시작하셨죠. 냉장고를 열었는데 거의 텅 비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찬장도 비어 있었어요. 결국 그분은 작은 복숭아 통조림 하나를

찾아내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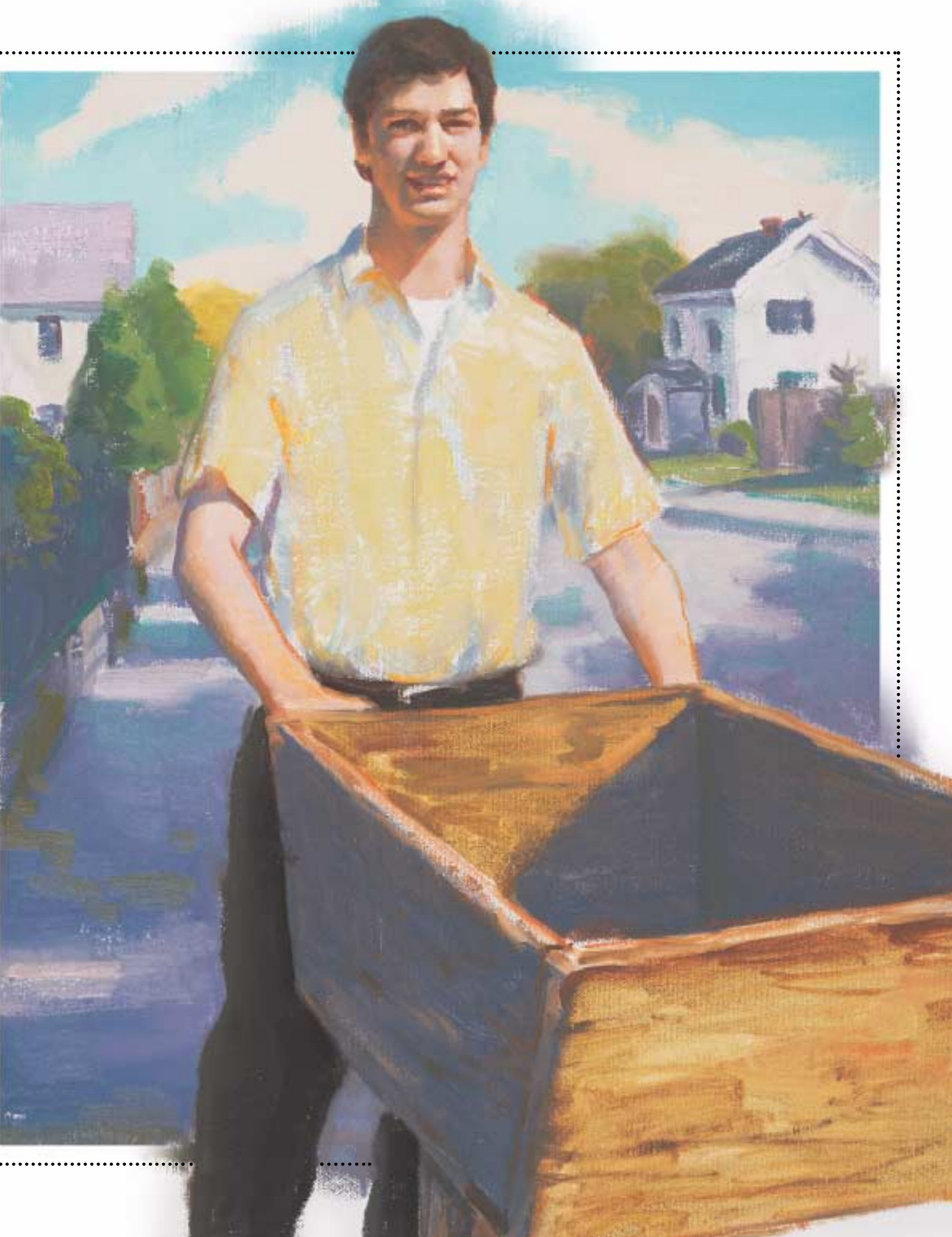
“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집안에는 먹여야 될 어린아이가 뛰어나는데 그분은 제게 그 복숭아 캔을 건네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받아서 수레에 넣고 계속 길을 걸어갔죠. 그 구역의 절반쯤을 지났을 때 온 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고, 전 그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제가 가진 음식을 그분께 전부 드렸어요.”

고문이 말했습니다. “짐, 오늘 밤 네가 느꼈던 느낌을 절대로 잊지 말거라. 그게 바로 봉사란다.” 짐은 비이기적인 봉사의 힘을 느꼈던 것입니다. ●

2006년 10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발췌.

생각해 볼 점

1. 짐이 “온 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고, 그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여러분은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고 생각하나요?
2. 고문은 짐이 느꼈던 것에 대해 “그게 바로 봉사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어떤 의미로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하나요?
3. 짐이 음식을 모으기 위해 교회를 나설 때 그의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그날 늦은 저녁 무렵에 가졌던 그의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4. 짐의 경험에 대해 또 어떤 생각이 드나요?





주: 잡지를 오리고 싶지 않으면
 인터넷 사이트 www.lds.org에서 이
 활동을 복사하거나 인쇄한다. 영어로
 된 자료를 원하면 "Gospel Library"를
 클릭한다. 기타 언어는
 "Languages"를 클릭한다.

너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태복음 5:16)

엘리자베스 리스



여러분은 간식이나 장난감 같은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때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낀 적이 있나요? 물론 그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간식이나 장난감 외에 지식과 같은 것도 나눌 수 있습니다. 지식을 나누는 것은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는 사람에게도 큰 기쁨을 가져다줍니다. 나누기에 가장 좋은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아홉 살 애실리는 복음을 나누면서 기쁨을 느꼈습니다. 애실리가 물문경 한 권을 다른 사람에게 주라는 권고를 받았을 때, 애실리의 아버지는 그녀를 학교 교장 선생님 댁까지 태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애실리는 교장 선생님께 물문경을 드렸고 전임 선교사들에게 그분의 성함을 알려주었습니다. 애실리가 느꼈을 기쁨을 생각해 보십시오! (“Nine-Year-Old Member Missionary”, *Friend*, 1997년 7월, 42~43쪽 참조)

여러분이 나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올리버 카우드리와 데이비드 휘트머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받을 행복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일 너희가 이 백성에게 회개를 외쳐 너희 온 생애 동안 수고하여 단 한 영혼이라도 내게로 데려오면,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그와 함께 누리게 될 너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리고 이제, 너희가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 내게로 데려온 한 영혼과 함께 누리는 너희의 기쁨이 클진대, 너희가 많은 영혼을 내게로 데려오면 너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교리와 성약 18:15~16)

다른 사람들과 복음을 나눌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 보이게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다른 사람들이 알도록 도울 때 우리가 받게 될 기쁨은 매우 큽니다.

활동

선교사 모형 중 하나를 골라, 밑에 여러분의 이름을 적는다. 그것을 잘라낸 다음, 두꺼운 종이에 붙인다. 가정의 밤에서, 여러분의 선교사 모형을 각각의 그림 옆에 두고 가족들에게 각 상황마다 그 선교사가 어떻게 선교사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가족들에게 그림 속의 상황이나 그들이 생각하는 다른 상황을 연기하도록 부탁하여 여러분이 복음 나누는 일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한다.

함께 나누는 시간 제언

1. 좋은 본보기와 나쁜 본보기가 되는 행동들을 적은 종이 쪽지 몇 개를 준비한다. 몇몇 어린이들에게 상자에서 종이 쪽지 하나를 꺼내게 하고, 돌아가며 내용을 읽는다. 어린이들에게 그 상황이 좋은 본보기인지 나쁜 본보기인지 결정하게 한다. 종이를 “좋은 본보기” 또는 “나쁜 본보기”라는 제목을 쓴 칠판 아래에 붙인다. 예를 들어, “나는 단정한 옷을 입는다.”는 “좋은 본보기” 아래에, “나는 종종 욕을 한다.”는 “나쁜 본보기” 밑에 붙게 된다. 어린이들이 마태복음 5:16을 찾아서 읽고 외우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 모범을 보이셨음에 대한 여러분의 간증을 나눈다.

2. 어린이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들었을 때를 생각해 보라고 한다. 간증모임이 간증을 나누기 위한 시간이지는 하지만, 우리는 그 외 다른 때에도 간증을 나눌 수 있음을 설명한다. 디모데 후서 1:7~8을 찾아 본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저는 이 교회의 모든 회원이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 성구를 볼 수 있는 곳에 붙여 두기를 바랍니다.”라고 말씀했다. (“두려워 말라”, 리아호나, 2005년 2월호, 친2). 그분은 그러한 말들이 우리에게 용기와 신앙, 힘을 줄 것이라고 말한다. 아이들에게 7절, 그리고 8절의 앞 부분을 써서 집으로 가져가게 하고 그들이 매일 아침 볼 수 있는 곳에 두게 한다. 아이들이 선지자와 사도들의 간증의 힘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다. 가능하다면 녹화된 연차 대회 간증이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 비디오를 보여준다. 리아호나 기사를 발췌해 읽을 수도 있다. ●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의 생애에서
어려움을 극복함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은 살면서 건강상의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목에 암이 발생했을지도 모릅니다. 수술을 권하고 싶습니다.

제 여동생이 암으로 죽었어요. 수술을 하는 편이 낫겠군요.

그가 가장 염려했던 수술은 목 수술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목소리를 잃는다면 어떻게 주님의 사도로서 계속 봉사할 수 있을까?



그가 수술실 밖으로 실려 나오는데, 간병인이 무언가에 언짢은 나머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불경한 말을 했습니다.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그분은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말은 쓰지 말았어야 했는데.



김볼 장로는 성대수술을 한 후, 동료 사도인 해롤드 비 리 장로와 여행했습니다.

저는 김볼 장로님께 간증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창피해서 더 이상 말씀을 계속할 수 없을 것 같아. 내 목소리는 귀에 거슬리고 끔찍하네. 다음 모임에선 말씀하지 않는 것이 좋겠어.

스펜서, 자네의 간증을 들려주어야만 해. 목소리를 되찾는 것이 좋겠네.



김볼 장로는 목소리를 되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는 의사의 지시를 따랐고, 신권 축복을 받았으며 발성 수업을 받았습니다.

카밀라, 내가 말을 더듬고 웅얼거리고 주저할 때 그만두고 싶은 유혹이 너무나 크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발성 연습을 그만둘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소.



진짜 시험은 김볼 장로가 그의 고향인 아리조나 헬라 계곡에 돌아왔을 때 닳았습니다.

제 목소리를 이해해 주세요. 동부에 있는 동안 목에 칼을 들이대는 강도들을 만났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르지만, 유머 감각만큼은 여전히네요!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절대로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그의 부드럽고 깊이 있으며 원숙한 목소리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Edward L. Kimball and Andrew E. Kimball Jr., Spencer W. Kimball (1977년), 263~264쪽, 306~312쪽; Francis M. Gibbons, Spencer W. Kimball: Resolute Disciple, Prophet of God (1995년), 179~181쪽, 211~215쪽;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스펜서 더블류 김볼 (2006년), xxv~xxvi, 157쪽에서 발췌

하나님의 영광은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와의 인터뷰에서 발췌; 김벌리 웹, 교회 잡지

“그리고 만일 어느 사람이 이 생에서 자신의 부지런함과 순종을 통하여 ... 더 많은 지식과 예지를 얻는다면, 장차 올 세상에서 그 만큼의 유익을 얻으리라.”(교리와 성약 130:19)

저는 일생의 대부분을 교육에 관여하며 보냈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교육은 학교에 가는 것, 시험을 치르는 것,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저 학교에서 공부를 잘 하는 것과 교육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의 차이점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험을 잘 칠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육 받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교육은 학습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발견하자, 배우는 것이 재미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필멸의 삶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배우는 것, 즉 지식과 예지를 얻는 것입니다. 교리와 성약 93:36은 “하나님의 영광은 예지니.” 라고 명시합니다. 여러분은 예지가 학업에 있어서 뛰어난 재능을 뜻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지는 의로운 목적을 위해

우리가 배운 지식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식은 현세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모두 단계별로 옵니다. 저의 간증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이사야 28:10 참조) 더하며 자라났습니다. 거의 모든 교회 회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제게 물문경과 교회 역사 이야기를 읽어주시던 일이 떠오릅니다. 저는 제가 배우고 있는 것들이 진실되다는 감미롭고, 평화스러우며, 확신을 주는 느낌을 통해 받았습니다. 이 느낌은 경전을 상고함으로써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자 하는 진정한 소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더 많은 지식과 예지를 얻기 위해 경전을 읽고, 상고하고, 연구하는 것보다 제 삶에 더 큰 영향을 준 것은 없었습니다.

저는 마약이나 저속한 음악과 같은 사악한 영향이 커져가는 때에, 캘리포니아에서



예 지 니

청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받은 지식의 축복으로 인해 저는 그러한 것들에 관여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선교사가 되고 주님께 봉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선교 임지에서, 그분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제 결심은 제가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는 지식을 통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아마도 영적인 지식을 배우고 얻는 가장 훌륭한 방법 중 하나는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일 것입니다.

배우는 것의 진정한 가치는 그것이 여러분을 어떤 상황에서든 매우 수완이 좋은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전을 통해, 자주 연구와 신앙으로 학문을 구하라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교리와 성약 88:118 참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과 가족과 교회 안에서 예지를 얻고 의로움 안에서 영적인 지식을 적용하고자 신앙으로 추구할 때, 영적인 힘과 인도와 보호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 = 92-100

Chords: D, G, D, G, A7, D

1. 가 정 은 사 랑 과 따 뜻 함 있 는 곳
 2. 가 정 은 은 사 진 실 과 한 아 버 지 지 계 는 시 고
 3. 가 정 은 은 하 나 님, 아 버 지 지 함 계 는 해 (2)

Fingerings: 5 3, 2 1 3 2 1

Chords: G, D, G, A7, D

언 제 나 사 랑 의 팔 로 안 아 주 는 곳
 어 머 니 와 자 인 녀 도 들 도 함 사 께 랑 주 는 는 곳
 바 른 길 로 인 도 하 고 사 랑 주 는 는 곳

Fingerings: 2, 3 2 1 2 1 2

작사: Caroline Eyring Miner, 1907~1999
 작곡: K. Newell Dayley, 1939년 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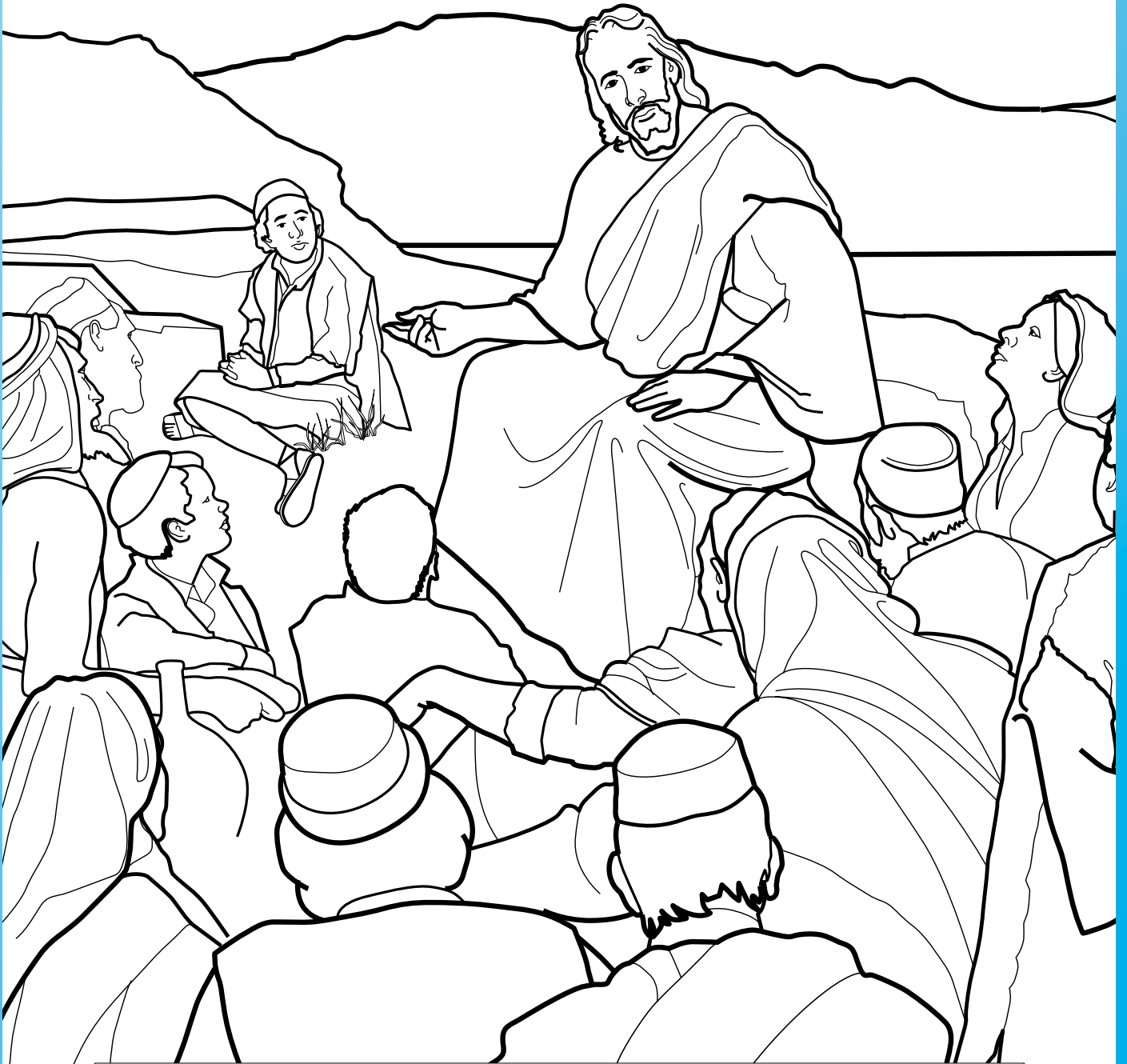
요한1서 4:7

© 1975 by Sonos Music, Orem, Utah.
 판권 소유. 허가를 얻은 후 사용할 것.
 이 곡은 교회나 가정에서 임시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복사할 수 있음.

삽화: 스티브 크립



색칠하기



나는 다른 사람들과 복음을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신앙을 보여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태복음 5:16)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요한1서 4:21)

마이클을 그리워함

세일라 킨드레드
실화에 근거함

“저 기 교회 침탑이 보여요!” 나탈리가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교회에 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일요일은 일주일 중에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날입니다. 딱 한 가지만 빼고는 말이죠. 그녀는 오빠인 마이클이 가족들과 함께 교회에 가지 않기로 선택한 것에 대해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탈리는 성찬식 모임 동안 조용히 앉아 마이클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오빠가 교회에 다닐 때에, 나탈리는 예수님에 관한 그림책을 보며 오빠 옆에 앉아 있기를 좋아했습니다. 성찬식이 끝나면 오빠는 그녀의 손을 잡고 초등학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있다 보자, 동생.” 그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나탈리는 오빠를 줄넘기로 묶어다가 그녀의 작은 빨간 손수레에 실어 교회에 끌고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빠가 그 방법을 좋아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 밖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초등학교에서는 칭 자매님이 반원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할 수 있어 너무나 기뻐요. 여러분의 웃는 얼굴을 볼 때 저는 행복해진답니다. 그런데 누가 빠졌나요?”하고 칭 자매가 말했습니다.

나탈리는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는 손을 들고는 “제드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제드가 오늘 안 왔네요.”

“맞아요.”라고 칭 자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드는 지난주에도 빠졌죠.”

“아마 아픈가 봐요.”라고 리사가 추측했습니다.

“여행을 갔는지도 몰라요.”라고 보이드가 말했습니다.

“그냥 오고 싶지 않았는지도 몰라요.”라고 나탈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를 사랑하고, 그가 없으면 그를 그리워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어야 해요.”라고 칭 자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줄 수 있죠?” 나탈리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말해 줄 거예요.”라고 칭 자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들이 종종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여러분이 사인할 수 있는 카드를 만들어 왔어요. 여러분 각자는 제드를 위해 특별한 그림을 그려 보세요.”

제드는 야외를 좋아하기 때문에 나탈리는 산과 나무 그림을 그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 다음 나탈리는 선생님께 집에 가지고 갈 그림 한 장을 더 그려도 되냐고 여쭙보았습니다.

나탈리가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자기 방에서 노래를 듣고 있는 마이클을 발견했습니다. “안녕, 동생.” 하고 그가 나탈리를 반겨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나탈리는 접혀진 종이 한 장을 그에게 건넸습니다. “내가 오빠를 위해 카드를 만들었어.”

“나를 위해서?” 마이클이 미소 지었습니다. “왜? 내 생일이나 특별한 날도 아니잖아.”

“칭 자매님이 안에 내용 쓰는 것을 도와주셨어. 거기에는 나는 오빠가 우리와 함께 교회에 가지 않을 때면 오빠가 그리워, 사랑해.”라고 적혀 있어. 그리고 내 사인도 남겼어.”

“고마워.” 하고 마이클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카드구나. 잘 만들었어.”

“고마워.” 나탈리는 오빠를 안아 주고는 저녁 준비하시는 엄마를 돕기 위해 서둘렀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오빠를 몹시 사랑했고 이제는 오빠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해!

다음주 일요일, 마이클이 교회에 가기로 결심했을 때 나탈리는 너무나 흥분했습니다. 함께 예배당으로 들어가면서, 그녀는 오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배를 보는 동안 나탈리는 그의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 줄 앞에 앉아 있는 제드를 보고는 살짝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나탈리는 교회에 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모든 친구들과 가족들이 그곳에 있을 때면 말입니다. 그녀는 이제부터 누군가를 그리워하게 되면, 그렇다고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작은 것들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



“침례 받은 모든 사람들이 격려 받고 주님의 복음에 대해 따뜻한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양을 찾고 먹이라”, 리아호나, 1999년 7월, 118쪽.

신앙 안에서 자라남

몽골 울란바토르의 윤돈잠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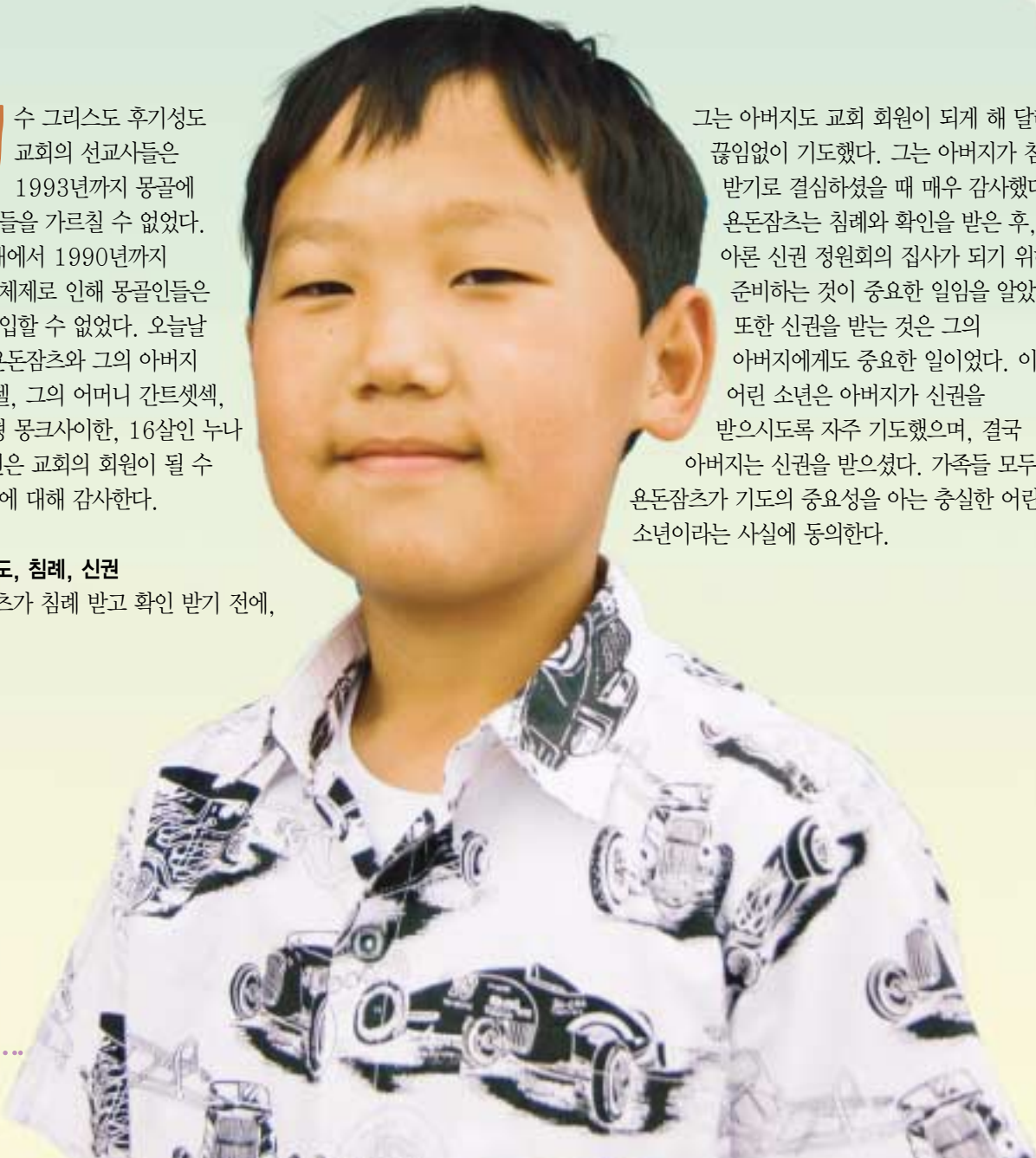
돈 엘 설과 줄리 와델
교회 잡지

여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의 선교사들은 1993년까지 몽골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칠 수 없었다. 1920년대에서 1990년까지 공산주의 체제로 인해 몽골인들은 종교에 가입할 수 없었다. 오늘날 10살인 윤돈잠츠와 그의 아버지 바야트센젤, 그의 어머니 간트셋색, 14살인 형 몽크사이한, 16살인 누나 보로-얼딘은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한다.

충실한 기도, 침례, 신권

윤돈잠츠가 침례 받고 확인 받기 전에,

그는 아버지도 교회 회원이 되게 해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다. 그는 아버지가 침례 받기로 결심하셨을 때 매우 감사했다. 윤돈잠츠는 침례와 확인을 받은 후, 아론 신권 정원회의 집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일임을 알았다. 또한 신권을 받는 것은 그의 아버지에게도 중요한 일이었다. 이 어린 소년은 아버지가 신권을 받으시도록 자주 기도했으며, 결국 아버지는 신권을 받으셨다. 가족들 모두 윤돈잠츠가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충실한 어린 소년이라는 사실에 동의한다.



영원한 가족

아버지가 침례와 확인을 받은 지 1년이 조금 지난 후, 그의 가족들은 중국 홍콩 성전으로 여행을 갔다. 온돈잠츠는 그의 가족이 성전에서 인봉 받아 영원한 가족이 될 수 있게 되어서 기뻐했다. 성전에 있는 동안 온돈잠츠는 한 여성의 이름을 성전 기도자 명부에 넣고 사람들이 그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부탁했다. 그는 다리를 다친 그 여성이 걱정되었던 것이다. 그는 그녀의 상태가 호전되자 감사드렸다.



그가 즐겨 하는 일

1. 농구하기
2. 그림 그리기
3. 손가락 인형 만들기
4. 교회 가기
5. 쌀죽과 포도 먹기
6. 도시의 동쪽지역 방문하기



학교

4학년인 윤돈잡츠는 수학과 종이접기를 좋아한다. 그는 학교에서 영어와 몽골어를 배우고 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책은 오스카 와일드의 행복한 왕자이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매우 순종적인 훌륭한 학생이라고 말한다. 학교는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다.

가정의 밤

가정의 밤에서, 가족들은 경전을 읽고, 연극도 하고, 노래도 부르며, 교회 역사에 관한 퀴즈도 풀고 다과도 먹는다. 윤돈잡츠는 물문경에서 알마가 그의 아들이 진리를 배우고 회개하도록 기도하는 부분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 윤돈잡츠는 알마 이세가 실제로 회개했고 그의 삶을 변화시켰다는 사실을 좋아한다.(모시아아서 27: 8~31 참조)

윤돈잡츠의 학교



선교 사업을 준비함

윤돈잡츠는 언젠가 선교사로 봉사하고 싶어한다. 그는 기도하고, 경전을 읽고, 교회 모임에 참석함으로써 선교 사업을 나갈 준비를 하고 있고, 충실하고 의로워지도록 노력한다. 또한 그는 피아노 레슨도 받는다. 겨울철의 몽골 날씨가 매우 춥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와이에 있는 선교부가 몹시 근사해 보인다.

몽골, 울란바토르는 세계의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을까?

몽골은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위치한 산악 국가이다. 울란바토르가 수도이다.

러 시 아

울란바토르

몽 골

중 국

초등회

바안주크 지부에 참석하기 위해, 가족들은 버스로 20분을 가야 한다. 윤돈잡츠는 초등회에서 노래하고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한다. 그는 함께 나누는 시간도 좋아한다. ●





이제그랜드
사실
황영·부사·영·김·

사랑하는 목사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

1920년 7월 31일 ~ 2007년 8월 10일



위쪽: 어린 시절의 제임스 파우스트, 형들인 렉스(왼쪽) 및 덴과 함께. 오른쪽: 선교사 시절의 제임스 이 파우스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는 그의 어린 양이 겁에 질려 내던 울음소리를 늘 기억했다. 어린 시절 그는 폭풍이 불던 어느 날 밤 그의 애완 동물을 헛간에 넣어두는 것을 잊었다.

“애완 동물을 도와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안전하고 따뜻하고 폭신한 침대에서 나오길 싫어했습니다. 일어났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라고 그는 연차 대회 신권 모임에서 회상했다. “다음 날 아침 밖에 나가 보니 제 어린 양은 죽어 있었습니다. 개 한 마리가 울음소리를 듣고 와서 양을 죽였던 것입니다.”

“제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자신이 훌륭한 목자가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부친의 애정 어린 질책이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아들아, 어린 양 한 마리 돌보는 일조차 너를 믿고 맡길 수 없었던 말이나?”¹

그날 제임스는 목자가 될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자신의 청지기 직분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결심했다. 브라질에서 봉사한 전임 선교사로, 헌신적인 남편과 아버지로, 성공한 법률가로, 정치 지도자,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 제일회장단 제2보좌로서, 그는 자신의 결심을 기억했다. 자신의 성역이 끝난 2007년 8월 10일, 노환으로 별세할 때까지 파우스트 회장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요한복음 21:15)는 주님의 권고를 충실하게 지켰다.

가족과 신앙

제임스 에스드라스 파우스트는 1920년 7월 31일 유타 주 텔타에서 조지 에이 파우스트와 에이미 핀린슨 파우스트의 다섯 아들 중 한 명으로 태어났다. 나중에 가족은 솔트레이크시티로 이사하였으며 조지는 변호사 및 지방 법원 판사로 일했다. 중부 유타에 있던 조부모의 농장과 그의 가정에서 어린 제임스는 그리스도 중심의 가족을 통해 사랑과 지지를 받으며, 정직과 근면 및 봉사의 미덕을 갈고 닦았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저는 훌륭하신 부친 아래서 자랐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² 모친에 관해서는 이렇게 회상했다. “그분은 영성이 깊은 분이어서, 그리스도와 같은 삶의 모범을 온전히 보이신 성인 같은 여성이셨습니다.”³

성인이 되었을 때 파우스트 회장은 부모님을 존경하고 본받으려 노력하면서 항상 가족과 교회를 우선으로 여겼다. “남편과 아버지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책임은 없습니다.”라고 그는 가르쳤다.⁴ 교회와 그 사명에 관해 그는 이렇게 선언했다.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이 사업과 견줄 것은 없습니다.”⁵

고등학교 시절 미식축구와 육상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그는 졸업한 후, 1939년부터 1942년까지 브라질 선교부로 부름을 받아 봉사했다. 브라질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사랑과 그들의 복리에 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다. “저는 선천적인 부분 색맹이었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군인으로, 또는 총관리 역원으로 봉사하면서 여러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피부색에 관계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위쪽: 학생 시절에 운동장을 달리는 제임스 파우스트 (왼쪽에서 네번째). 오른쪽: 부모님인 에이미 파우스트와 조지 파우스트, 그리고 아들 제임스

저는 특히 겸손하고, 탄압 받고, 가난하고, 학대받고, 궁핍하고,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잇는다면, 결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늘 마음에 새깁니다.”⁶

선교 사업을 마치고 돌아온 지 6주 후에 파우스트 회장은 U.S. Army Air Corps(미 육군 항공대)에 입대했다. 1943년에 휴가를 나와서 그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온 루스 라이트와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했다.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멀리 떨어져 있는 동안 그는 매일 그녀에게 편지를 썼다.⁷ 파우스트 부부의 관계에 대해 십이사도 정원회의 조셉 비 워스런 장로는 ‘아름다운 결혼 생활의 절대적인 본보기’라고 말했다.⁸

아내와 5명의 자녀, 25명의 손자 손녀, 27명의 증손자와 증손녀들에 대한 그의 깊은 헌신, 그리고 남편에 대한 아내의 끊임없는 지지는 그들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한 것이었다.

그는 1972년에 십이사도 정원회 보조로 부름을 받은 후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가 자녀들의 아버지로서 성공하지 못한다면 이 부름에서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과 자녀들이 제

인생에서 언제나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리라는 것을 자녀들이 알아주기를 온 마음을 다해 바랍니다.”⁹ 6년 후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으로 지지 받은 다음, 그는 제일 먼저 “제 마음과 영혼 만큼이나 나에게 있어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한 아내 루스¹⁰를 만나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¹¹

도덕적 나침반

1942년 장교 후보생 학교에 지원한 직후 파우스트 회장은 조사 위원회에 출두하게 되었다. 위원회에서 그가 받은 거의 모든 질문은 그의 표준과 믿음에 집중되었다. 담배를 피우는가? 술을 마시는가? 기도하는가? 등이었다. 그들의 마음을 거슬리게 할까 봐 걱정이 되었으나, 파우스트 회장은 각 질문에 대해 조금도 애매한 부분 없이 분명하게 대답했다. 그런 후에 그는 전시 동안 도덕적 규범이 완화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질문을 받았다.

“저는 그때야말로 제 의견을 말하고 다른 의견들을 받아들일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제가 이 질문을 했던 분들은 제가 배운 표준에 따라 생활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저만의 믿음을 갖고 있지만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의 생애의 주요한 사건들

1920년 7월 31일
유타주 델타에서 조지 에이 파우스트와 에이미 핀린스 파우스트 사이에서 출생

1937~1939년
솔트레이크시티 소재 유타 대학교 재학

1939~1942년
브라질에서 선교사로 봉사

1943년 4월 21일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루스 라이트와 결혼

1942~1945년
제2차 세계 대전 중 U.S. Army Air Corps (미 육군 항공대)에서 복무하고 중위로 명예롭게 제대함

1948년
학사 학위와 법무 박사 학위를 받고 유타 대학교를 졸업,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법률가로 활동 시작



- 1949년 5월 8일**
빅코튼우드 와드의 감독으로
지지됨
- 1949~1951년**
유타 하원에서 봉사함
- 1956년 3월 18일**
코튼우드 스테이크의 회장으로
지지됨
- 1962년 5월 31일**
유타 주 변호사 협회의 회장으로
선출됨
- 1962년**
인권 및 인종 갈등에 대한 존
에프 케네디 미 대통령 변호사
위원회의 지명을 받음
- 1968년 12월 14일**
지역 대표로 부름 받음
- 1970년 1월**
데저렛 뉴스 이사회에 지명됨
- 1972년 10월 6일**
십이사도 정위원회 보조로 지지됨
- 1976년 10월 1일**
칠십인 제일정원회 회장단에
지지됨

왼쪽 위: 루스 라이트 파우스트. 위쪽: 파우스트 장로와
자매, 1980년경. 오른쪽: 결혼 사진, 1943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불현듯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선교사로서 순결의 법을 가르친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에 저는 간단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도덕에 관해 이중적인 표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¹²

놀랍게도 그는 조사를 통과했고 장교 후보생 학교에 선발되었다.
"오랜 세월 동안 저는 제 신분과 신앙을 숨기려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참석했던 연차 대회에서 이렇게 말씀했다. "돌이켜 보건대, 제가 이 교회의 회원이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함으로 인해 제 경력에 해가 되었거나 소중한 친구들을 잃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¹³

파우스트 회장이 “도덕적 나침반”이라고 불렀던 정직은 그가 변호사로 일한 24년 동안 그에게 훌륭하게 작용했다. 공정함, 현명한 결정, 그리고 타인에 대한 동정심과 관심이 바탕이 된 그의 고결성은 그의 명성과 더불어 동료들 사이에서 그를 돋보이게 하고, 직업 사회와 시민 사회



사진 촬영: 앨버트 게이 린스톤



사진 촬영: 누먼 포토그래피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봉사의 기회를 가져다주었다. 그는 1949년부터 1951년까지 유타 주 입법부에서, 1962년부터 1963년까지는 유타 주 변호사 협회 회장으로, 그리고 인권 및 인종 갈등에 관한 존 에프 케네디 미국 대통령의 법률 자문 위원회에서, 그리고 유타 주 헌법 개정 위원회의 일원으로 봉사했다.

감정을 공감하는 힘과 능력을 겸비한 파우스트 회장의 독특함은 또한 그가 감독, 고등 평의원, 스테이크 회장, 지역 대표, 십이사도 보조, 칠십인, 사도로서 효과적으로 봉사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들 부름에서 매번 그는 훌륭한 지도자란 항상 잘 경청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라고 십이사도 정원회의의 닐 에이 맥스웰 장로(1926~2004)는 말했다.¹⁴

가교를 놓음

비록 삼가는 마음을 지니고 영예를 다른 사람에게 돌렸지만, 파우스트 회장은 수십 년에

걸친 봉사 기간 내내 교회에 의미 있는 많은 공헌을 했다. 교회 공보 위원회의 일원으로서 그는 유타에서 패리뮤추얼 경마 발의안을 포함하여 도덕적 의의를 지닌 여러 정치적 의제들에서 자신의 법률적 식견을 활용했다. 그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해 교회의 로고 변경을 주창했다. 그 외에도 그는 교회가 메시지를 전하고, 오해를 바로잡고, 언론매체와의 관계를 향상시키도록 하는 교회의 결정을 이끌어내는 일을 도왔다.

그는 또한 다른 종교의 회원 및 지도자들과의 가교를 놓기 위해 일했다. 그러한 노력 속에서 그는 감정을 드러내는 일에서는 더디고, 인내와 친절과 이해력을 발휘하는 일에서는 신속했다.

그와 파우스트 자매가 참석했던 한 지역사회 행사에서 다른 종교의 한 지도자가 교회를 비방했다. 파우스트 자매는 이렇게 회상했다. “그 사람이 계속 그렇게 하자 저는 점점 더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그냥 인내심을 갖고 들었습니다. 나중에 남편이 일어나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렇게 느끼신다면 우리가 뭔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목사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를 제게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고, 그 이후로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¹⁵

1980년대에 파우스트 회장은 당시 십이사도

**위쪽: 십이사도 정원회의
신입 회원 당시의 파우스트
장로 (맨왼쪽), 1979년경.
왼쪽: 자녀들과 함께 한
파우스트 회장과 자매.**



왼쪽: 교회의 새로운 지도자가 소개되었던 1995년 기자회견장에서: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왼쪽), 제일회장단 제1보좌;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 아래: 유타 마운트 팀파노고스 성전에서의 제일회장단

1977년 6월

국제 선교부를 감리하도록 부름 받음

1978년 9월 30일

십이사도 정원회에 지지됨

1995년 3월 12일

제일회장단 제2보좌에 성별됨

1998년 4월 27일

브라질 국민 표창을 수상함, 이 표창은 소수의 세계 지도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명예임.

2000년

일곱 개의 성전을 헌납함: 멕시코 오약사카, 멕시코 톡스틀라 구티에레스, 오리건 메드퍼드, 테네시 멤피스, 테네시 내슈빌, 코스타리카 산호세, 오클라호마 오클라호마시티

2007년 8월 10일

87세를 일기로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사망

정원회의 하워드 더블류 헌터(1907~1995) 회장과 당시 브리검 영 대학교의 총장이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와 밀접하게 일하면서 BYU's Jerusalem Center for Near Eastern Studies (근동 연구를 위한 브리검 영 대학교 예루살렘 센터)에 관한 그들의 비전을 실현시켰다. 파우스트 회장과 헌터 회장은 팽팽한 협상 과정, 그리고 부지를 임차하고 센터의 건축을 감독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지나긴 반대를 헤쳐 내고 일을 성사시켰다.

그 과정을 지켜본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파우스트 장로는 참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거주하는 문제를 극구 반대하던 격양된 유대인 친구들을 진정시키고, 반대 때문에 때로는 감정이 상했던 예루살렘의 후기 성도들 사이에 있던 어수선한 분위기를 잠잠하게 하는 방법을 항상 모색했습니다.”¹⁶

밖으로 손길을 뻗음

1975년부터 1977년까지 남아메리카의 지역 책임자로 브라질에서 봉사할 때나, 1977년에 칠십인 제일정원회 회장단 일원으로서 국제 선교부를 관리할 때나, 1978년 이래로 사도로서 교회 회원들에게 성역을 베풀 때나, 아니면 1995년 이래로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의 제2보좌로 봉사할 때나, 파우스트 회장은 늘 친절과 형제애의 정신 속에서 밖으로 손길을 뻗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의 연차 대회 말씀은 종종 구주의 두 가지 커다란 권고,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권고를 전했다. 따뜻함과 재치와 지혜를 가지고 파우스트 회장은 연단에서 친할아버지에게서 느껴지는 인자함과 품위를 보이면서 그의 간증을 듣고 권고에 귀 기울인 모든 사람의 삶을 축복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대업은 하나님 아버지의 각 자녀를 구원하는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¹⁷ “이 생에서 가장 큰 성취는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때 옵니다.”¹⁸

2007년 8월 제일회장단 메시지에서 파우스트 회장은 “결혼 여부와는 상관없이 모든 회원에게 발전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선한 목자의 비유를 상기시키면서 그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다가가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¹⁹

마지막 연차 대회 말씀을 통해 그는 용서가 낳는 치유의 힘에 관해 이렇게 간증했다.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들’ [조셉 스미스 역, 마태복음 6:13] 심지어는 심각한 죄를 범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속죄로 인한 평화와 위안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 저의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 [교리와 성약 64:10]는 구주의 훈계에 따를 때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치유의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²⁰

간증

성역 기간 동안에 파우스트 회장은 물몬경, 회복, 선지자 조셉 스미스, 교회 회장이 지니는 열쇠와 권세에 관해 자주 간증했다. “오늘날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은 힝클리 회장의 음성이며, 따라야 하는 것은 그분의 권고이며, 그렇게 할 때 가장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²¹

파우스트 회장은 또한 구주에 대해 강한 간증을 지니고 “이분이 그리스도시요”라는 노래의 가사를 쓰고, 또 이렇게 간증했다. “거룩한 사도직을 지닌 우리는 구주의 신성에 대해 간증하여 우리 책임을 다하기를 항상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해야겠다고 느낍니다. 저는 평생토록 간증을 지녀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거룩한 사업의 신성에 관해 감당할 수 없는 간증이 제 영혼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확실한 증거는 제 생애의 과거

제일회장단에서 보낸 장례식 조사

“그분의 지혜는 깊고 심오했으며 많은 분야에서 쌓은 오랜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법률가의 마음과 교회 지도자의 동정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 회복된 복음 진리에 대한 그의 믿음은 지칠 줄 몰랐습니다. 조셉 스미스의 예언자적 부름에 관해 그는 마음에 의심이 없었습니다. 물몬경의 정당성에 관해 의심이 없었습니다. ...”

“그는 평화와 사랑과 빛 속에서 떠났습니다. 고인을 기억하는 모든 이에게 평화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와 나눴던 교분으로 인해 더욱 풍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

“그분은 경험과 지혜와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앙의 사람, 기도의 사람,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갑옷에는 빈틈이 없었습니다. 그의 영혼에는 간사함이 없었습니다. 그의 성품에는 결함이 없었습니다.

“파우스트 회장님은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주님을 사랑했으며, 필멸의 생애 끝까지 온 힘을 다해 그분을 섬겼습니다. ... 그는 진리의 교사였습니다. 명예로운 전통과 사랑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 관한 우리의 기억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위: 태버네클에서 말하는 제임스 파우스트, 1970년경.
오른쪽: 2007년 4월 연차 대회에서 말하는 파우스트 회장



사진 촬영: 윌슨 시 먼더슨

어느 때보다 더욱 분명합니다.”²²

파우스트 회장은 소년 시절에 키웠던 겁에 질린 어린 양을 결코 잊지 않았다. 그리고 양 우리를 지키는 청지기로서 그의 결심을 결코 잊지 않았다. 그의 간증의 대상이었던 선한 목자를 닮으려고 노력함으로써 그는 훌륭한 인생을 살았으며, 그의 인생 자체가 그의 가장 훌륭한 설교였고, 우리가 사랑하는 목자의 설교가 되었다. ■

주

1. “목자의 책임”, *성도의 빛*, 1995년 7월호, 44쪽.
2. “한 사람의 어부가 되기 위하여”, *성도의 빛*, 1973년 5월호, 33쪽.
3. 윌리엄 그랜트 벵거터 장로,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 *성도의 빛*, 1987년 10월호, 7쪽.
4. *성도의 빛*, 1995년 5월호, 46쪽.
5. “풍성한 삶을 얻음”, *리아호나*, 2000년 11월호, 2쪽.
6. “부름에 대한 응답”, *성도의 빛*, 1979년 4월호, 29쪽.

7. 닐 에이 맥스웰,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 순금”, *리아호나*, 1995년 10월호, 21쪽 참조.
8. James P. Bell, *In the Strength of the Lord: The Life and Teachings of James E. Faust* (1999), 229쪽.
9. *Ensign*, 1973년 1월호, 81쪽.
10. “Elder James E. Faust of the Quorum of the Twelve”, *Ensign*, 1978년 11월호, 95쪽 참조.
11. *Ensign*, 1978년 11월호, 20쪽.
12. “정직-도덕 나침반”, *성도의 빛*, 1997년 1월호, 41쪽; 또한 “Stand up and Be Counted”, *Tambuli*, 1982년 10월호, 22~23쪽 참조.
13. “손자들에게 주는 메시지”, *리아호나*, 2007년 5월호, 56쪽.
14. *성도의 빛*, 1995년 10월호, 21쪽.
15. *In the Strength of the Lord*, 178쪽.
16. David Galbraith, *In the Strength of the Lord*, 207쪽.
17. “Go Bring Them in from the Plains”, *리아호나*, 1997년 11월호, 7쪽.
18.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19쪽.
19. “모든 사람을 환영하며”, *리아호나*, 2007년 8월호, 3, 5쪽.
20. “용서가 낳는 자유의 힘”, *리아호나*, 2007년 5월호, 69쪽.
21. “내게는 그런 일일 일어날 수 없어”,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51쪽.
22. “율법의 더 중한 바: 심판과 자비와 신앙”, *성도의 빛*, 1998년 1월호, 53쪽.
23. 토마스 에스 몬슨, *성도의 빛*, 1995년 10월호, 19쪽.

신도 사제들이 일본의 역사적인 메이지 신사에서 아이어링 장로를 맞이하다

십 이사도 정원회의 아이어링 장로는 아시아, 태평양 섬 지역의 교회를 방문하면서 도쿄의 역사적인 메이지 신사의 수석 제사인 카츠시 토야마를 만났다.

칠십인 회장단의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와 북아시아 지역 회장인 데이비드 에프 에번즈 장로와 함께 아이어링 장로는 토야마씨와 만나 이해의 폭을 넓히고 친선을 도모하고자 초대받았다.

토야마씨는 방문객들에게 신도에는 성경이나 다른 경전처럼 신도 교리를 성문화한 책은 없지만 신도 신자들은 살면서 순수함과 의로움을 추구함으로써 신과 그들간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말했다.

아이어링 장로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삶에서 자신의 순수함과 의로움을 추구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우리의 고든 비 힝클리 선지자께서는 교회 회원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일상 생활의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고 정기적으로 권고하십니다.”라고 말했다.

토야마씨는 1970년대에 솔트레이크시티를 방문하여 환대를 받고 처음으로 교회에 대해 알게 되었다. 최근에 몇몇 신도 사제들이 솔트레이크시티와 유타 주 프로보에 소재한 브리검 영 대학을 방



십이사도 정원회의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가 일본 도쿄의 메이지 신사에서 수석 사제인 카츠시 토야마를 만나고 있다.



일본 도쿄의 메이지 신사를 둘러보고 있는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와 부인 캐서린 아이어링

문하면서 이 관계가 더 발전하게 되었다. 2005년에 브리검 영 하와이 대학 콘서트 합창단은 메이지 신사에서 공연한 첫 기독교 단체가 되었다.

토야마씨와의 만남은 일반적으로 국가 수장이나 특사들과 담화를 나누기 위해 마련되는 신사 내의 조그만 방에서 이루어졌다.

이 신사는 1867년부터 1912년까지 일본을 통치한 메이지 천황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그는 일본 문화의 독자성을 유지하려는 소망과, 일본을 선진 세계로 이끌어내려는 강력한 노력을 조화시켰다.

일본에서는 1902년에 처음으로 침례가 있었다. 오늘날 일본의 교회 회원 수는 120,000명이며 도쿄와 후쿠오카에 각각 성전이 있다. ■

브라질 마나우스에 지어질 예정인 성전

제 일회장단은 브라질의 신권 지도자들에게 보낸 2007년 5월 23일자 서한에서 브라질 마나우스에 성전을 지을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제일회장단은 서한에서 “우리는 브라질 성도들의 헌신과 충실함을 높이 사며 이 새로운 성전 건

축을 통해 그들이 받게 될 축복에 대해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성전이 완성되면, 마나우스 성전은 브라질의 여섯 번째 성전이 될 것이다. 마나우스 성전 구역에 포함될 스테이크들은 추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브라질의 남부와 동부 해안 근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브라질의 중북부 지역에 사는 일부 회원들은 가장 가까운 성전에 가기 위해서도 1,600km 이상을 여행해야 한다.

제일회장단은 “우리는 이 발표로 인해 그 동안 성전이 주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 장거리를 여행해야 했던 이 지역 및 주변 지역에 사는 많은 충실한 성도들이 축복을 받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124개의 성전이 운영 중이며 6개는 건축 중이고 마나우스 성전을 포함해 6개의 성전 건축 계획이 발표되었다.

남미에서는 1978년에 처음으로 브라질 상파울루에 성전이 세워졌다. 그때 당시 브라질의 총회원은 고작 54,000명 뿐이었다. 스펜서 더블류 김 볼 회장(1895~1985)이 건축의 주춧돌을 놓는 정초식을 감리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수리가 끝난 상파울루 성전을 2004년에 재헌납했다.

2005년 말에 브라질에는 928,926명의 회원이 생겼고 레시페, 알레그레, 캄피나스 시에 3개의 성전이 추가로 세워졌다. 브라질 쿠리티바 성전의 건축은 2005년에 시작되었으며 내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최근에 쿠리티바를 방문한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넬슨 장로는 회원들에게 “여러분이 성전에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자신과 조상들을 위해 의식을 행한다면, 여러분은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이 사업에 대한 간증을 얻게 될 것입니다.”라고 약속했다. 또한 넬슨 장로는 “성전에 가도록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보다 성전을 짓는 편이 어쩌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

전 세계의 가족들을 지키기 위한 대회가 폴란드에서 열린다

전 세계의 3,300명 이상의 대표자들이 2007년 5월 11일부터 13일 까지 폴란드 바르샤바에 소재한 문화 과

학 궁전에 모여서 제4차 세계 가족 대회에 참석했다. 그들의 목표는 인간의 가족은 창조주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건전한



브루스 시 하펜 장로가 세계 가족 대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대회에서 하펜 장로는 공개 토론에 참여했으며 대회에서 연설했다.

사회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배우고 확인하는 것이었다.

대회에 참석한 대표자들은 전 세계의 가족들이 공격을 받고 있다고 느끼며 세계 가족 옹호 운동을 위한 기본 원리들을 구축해야 한다고 믿는다. 멀리 칠레, 뉴질랜드, 아프가니스탄, 멕시코, 필리핀에서 온 대표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많은 사안들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인구, 난민, 이민 문제를 다루는 엘렌 사우어브레이 미 국무부 차관보가 함께 대회를 환영했으며 가족이야말로 인간이 만든 제도 중 가장 오래되고 가장 지속적인 제도라고 말했다.

“가족은 모든 국가가 탄생하기 이전부터 존재했으며 모든 문화, 모든 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가가 가족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국가를 만들어 냅니다.”라고 사우어 브레이 차관보는 말했다.

폴란드의 교육부 장관이자 부총리인 로만 기르티크 또한 대회를 환영했으며 가족 없이는 정부도, 국가도, 삶도 없다고 말했다.

대회에서 논의된 주제에는 낙태, 동성 결혼, 인구 감소, 외설물, 뉴스상에서 이뤄지는 가족에 대한 공격, 전통 종교의 쇠퇴 등이 있었다.

할리우드와 가족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세계 가족 대회의 공보 수석인 돈 페더는 “매일 매일, 미국의 한 산업이 여러분의 국가와 가정에 엄청난 양의 유독 폐기물을 들이붓고 있습니다. 그 산업은 바로 할리우드입니다. 할리우드가 좋은 작품들을 만들기도 하지만 주요 생산품들은 바로 성, 폭력, 타락, 허무주의, 종교에

대한 공격, 철저한 반가족 정서입니다.”라고 말했다.

버지니아 대학의 사회학 교수인 브래드 윌콕스는 동거와 그것이 아이들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유럽에서 증가하고 있는 동거는 편부모의 증가로 이어지는 듯 보이며, 우리는 편부모가 아이들의 복지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회의를 마치면서, 21세기에 가족 옹호 신조로서 바르샤바 선언이 만들어졌다. 선언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신의 창조물인 가족은 인간 사회의 근간이며, 남녀 간의 평생의 결혼에 기초하고, 이 안에서 새로운 개인이 잉태되고 태어나며 양육된다.”

세계 가족 대회(WCF)는 60개국 이상에서 온 가족을 옹호하는 단체, 학자, 지

도자, 개인으로 이루어진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로서 이들은 가족을 사회의 근본적인 사회 요소로서 회복시키고자 한다.

앨런 칼슨이 1997년 일리노이 주 록포드에서 세계 가족 대회를 창시했다. 이후, 금번 바르샤바 대회 이전까지, 세 번의 대회가 체코 공화국의 프라하(1997년), 스위스의 제네바(1999년), 멕시코의 멕시코시티(2004년)에서 열렸다.

세계 가족 대회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 “가족은 사회의 기본 단위이며, 인간의 본성이고, 결혼이라는 평생의 약속 안에서 남녀의 자발적 결합에 그 중심을 두고 있다. ... 사랑이 많은 가족은 그들의 지역사회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봉사의 손길을 내민다. 모든 사회 문화 제도는 가족을 존중하고 가족의 권리와 책임을 지지해야 한다.” ■

하펜 장로가 가족 대회에서 연설하다

칠십인 정원회의 브루스 시 하펜 장로가 전 세계에서 온 대표자들에게 전통적인 결혼의 의미를 회복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연설했다. 하펜 장로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2007년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열린 제4차 세계 가족 대회에서 연설했다.

하펜 장로는 남녀가 만나서 사랑에 빠져 결혼하게 되는 “보편적인 사랑 이야기”가 전 세계 역사상 존재해 왔다고 얘기했다. 결혼 관계는 그 두 남녀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성공적인 결혼 관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바로 그 때문에, 하객들과 친구들이



브루스 시 하펜 장로

언제나 결혼식을 지역사회의 행사로서 축

하합니다. 결혼은 항상 사회를 결속시키는, 즉 직물에서 아주 중요한 매듭과 같은 역할을 해 왔습니다. 항상 결혼은 그 영향력의 동심원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며 이 원은 두 사람에서부터 시작하여 그들의 자녀, 더 나아가서는 더 큰 지역 사회까지 영향을 줍니다.”라고 하펜 장로는 말했다.

그는 또한 “지역 사회는 개인의 사적인 행사에 끼어들려고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각 결혼으로 야기되는 결과와 자녀들에 대해 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결혼한다는 것은 한 사람이 자신의 자녀들과 그 자녀들이 우리가 그 동안 만들어 온 지역 사회에 끼칠 영향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지겠다고 공개적으로 다짐하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사회적, 개인적 기대로 인해 결혼은 세대를 거듭하여 가치를 전해주는 주요한 수단이 된다고 하펜 장로는 말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안정된 사회를 유지하는 데 주요 원천이 되어온 요소가 흔들리고 있다.

유럽의 80%이상, 그리고 미국의 46% 이상의 사람들은 남녀가 결혼 할 의사 없이 동거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하펜 장로는 말했다. 동거 남녀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이 심리적 위험과 기타 위험에 직면한다는 수많은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스칸디나비아만 해도 약 82%의 첫째 아이가 혼외 정사로 태어난다. 이런 추세는 심각한 사회적 결과를 수반한다.

더욱이, 미국(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이혼을 찬성하는 나라)에서는 1960년 이래로 이혼율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오늘 결혼한 부부의 절반 이상이 이

혼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이 수치가 동거 남녀의 파탄율을 포함한다면 그것은 더 높아질 것이다. 현재 1960년대 이래로 미국에서는 동거율이 760% 증가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혼외 출산, 동거, 이혼 수치를 보여주는 통계자료에서 결혼에 반대하는 세력의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난 40년간 많은 사람들이 ... 결혼은 공개적이며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사회 관습이라는 것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 현대 사회는 보편적인 결혼 이야기를 잊어버렸습니다.”라고 하펜 장로는 말했다.

전통적인 결혼은 1960년대 인권 운동이 일어나던 때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하펜 장로는 당시의 미국의 인종 및 성 차별은 그 인권 운동을 통해 변화해야만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극단주의자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 가족 관계를 지지하는 법과 관습들에 이의를 제기했다. “자유주의” 운동이 거세지자, 판사들은 성인의 자유가 아이들의 최선의 이익에 우선한다라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펜 장로는 “언젠가 저는 한 조그마한 소년이 좌절과 두려움의 눈빛으로 홀로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소년은 ‘날 내버려 뒀요’라고 쓰여진 혈명한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무책임한 어른들이 주장하는 소위 ‘가족이라는 끈에 묶여 억압받는 사회의 모든 종속자들을 해방시킨다’는 미명하에 사회가 아이들을 홀로 내버려 두는 것을 용납하는 모순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연구자들은 또한 정상적으로 결혼한 부모의 부재가 많은 비행 청소년들의 공통적인 원인이며, 결혼한 부부와 비교해

볼 때, 동거 남녀는 우울증, 술, 마약 문제, 간통, 낮은 수입, 불행 등을 더 쉽게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 게다가 동거남녀 사이에서는 물리적인 폭력을 휘두를 가능성이 결혼한 부부보다 2배 내지 3배 더 높다고 하펜 장로는 밝혔다.

또한 하펜 장로는 동성 결혼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15년 전에는 지구상의 어느 나라도 동성 결혼을 지금처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법적 견해는 동성 결혼을 결혼에 대한 사회적 가치에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자유와 사생활이라는 개념에 기초하여 지지하고 있다고 하펜 장로는 말했다.

하펜 장로는 “동성 결혼에 대한 논의는 명백한 질문을 던집니다. 결혼이란 것이 그저 한 성인의 개인적인 선택으로서만 용인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부부의 권익과 더불어 아이들과 사회의 권익을 증진시키려는 공적인 목적을 가진 제도로써 받아들여져야 할까요?”라고 말했다.

하펜 장로는 전통적인 결혼으로 인한 네 가지 주요한 사회적 혜택을 요약하며 결론을 내렸다. 첫째, 아이들의 필요사항과 권리가 더 잘 충족된다. 둘째, 아이들은 사회의 덕을 배우고 이 덕은 다음 세대에 전달된다. 셋째, 부모들은 아이들이 어떤 가치를 배워야 하는지 결정한다. 넷째, 가장 안정적인 인간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하펜 장로는 “기꺼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고자 하는 제 마음은 제가 오랫동안 이러한 가족 관계에 시간과 정력을 쏟아왔음을 제 가족과 사회에게 말해 줍니다. 따라서 제 아내와 아이들 또한 그들의 희생과 노력이 그만한 가치를 가지는지 대해 혼란스러워 하지 않고 이런 가족 관계에 전념하게 됩니다.”라고 말했다. ■

교회 역사가가 교회의 사명에서 역사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다

칠 십인 중 한 명인 말린 케이 젠슨 장로는 가족 및 교회 역사부의 중요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성약을 맺고 지키도록 돕는 것”이며 경전에서 요구하는 이 책임은 교회 초기 시절 때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주어졌다고 말했다.

2005년 4월에 교회 역사가 및 사무장으로 부름받은 젠슨 장로는 2007년 5월 26일에 있었던 Mormon History Association(물론 역사 협회)의 연례 회의에서 역사부의 발전 사항과, 교회가 조직된 그 날에 주님께서 교회 역사를 기록하라고 명하신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던 많은 지도자들의 헌신에 대해서도 상세히

이야기했다.

“나는 전문적인 역사가로서가 아니라 ‘교회’의 역사가로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계시로 인한 부름을 수행하고자 오랜 세월 동안 일해 온 교회의 직무자들 중 한 사람으로서 말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계속해서 젠슨 장로는 역사부의 지난 성과는 대부분 수집, 보존에 집중되었으며 그 외에는 교회의 놀라운 역사를 담고 있는 기록들을 출판하는 일에 집중되었다고 덧붙였다.

“교회 역사의 중요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무게 중심이 남반구로 점점

쏠리고 있는 가운데 교회는 놀라운 전 세계적인 조직이 되었습니다. 이 점과 다른 요소들을 보면 우리가 더이상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이 역사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지난 몇 년 동안 기도하는 마음으로 역사부의 미래 진로를 계획한 후, 젠슨 장로는 “우리는 역사가 교회의 전반적인 임무와 ... 인류의 구원에 기여해야 한다고 느낍니다.”라고 말했다.

젠슨 장로는 그러한 책임감 때문에 가족 및 교회 역사부가 다른 전문가들이나 역사 애호가들과 차별화된다고 밝혔다.



23,000 평방 미터에 이르는 새로 지어질 교회 역사 도서관을 보여주는 건축 도면. 이 건물은 교회 본부 건물의 북쪽에 건설 중이며 점차 성장하고 있는 교회의 여러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킬 것이다.

그는 “이것은 고귀하고도 숭고한 포부입니다. 이것은 쉽게 성취할 수도 없고 우리 전문가들이라 할지라도 항상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이상입니다.”라고 말했다.

젠슨 장로는 이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가족 및 교회 역사부가 중점을 두는 것은 세 가지 기준, 즉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억함, 계시된 왕국의 질서를 보존함, 회복의 진리를 증거하고 지킴이라고 덧붙였다.

이 목표는 “우리가 해야 할 일과 그 대상을 명시”하고 “우리 힘만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일들을 제시해 주며 이를 위해서는 협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동시에, 이 목표는 우리를 수동적인 수집가가 아니라, 수집하고 전파하고 연구하고 집필하는 데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활동적인 조직이 되게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전 세계적인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부서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고통이 수반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부서가 교회 지도자뿐만 아니라 교회의 일반 회원들을 위해서도 봉사해야 함을 강조하는 조직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이 같은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술을 심분 활용해야 한다.

이 역사부의 개발을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진보의 발걸음은 23,000 평방미터에 달하는 교회 역사 도서관 건물을 짓는 것이다.

“지난 10월에 건축이 시작되었으며 2009년 중반에 헌납을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이 도서관에는 우리의 소중한 유산과 애장품들이 전시될 것이며,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여러 가지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젠슨 장로는 말했다. ■

2007년 6월 2일자 Church News에서 각색함

기도하면서 하나가 되었다.

무카는 “그 의사 선생님은 하나님께 제 눈을 고칠 수 있도록 자신의 손을 축복해 달라고 간구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했죠. 저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시각 장애를 치료하고 의료장비를 기증하며 관리 지원을 제공하는 이 서비스는 교회 인도주의 서비스의 후원으로 개발도상국에 제공된다.

은퇴한 솔트레이크시티의 안과의사인 조지 핑그리 박사는 전 세계 시각 프로그램의 의장이며 이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200명 이상의 의사들을 대표한다.

“전 세계의 4,0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맹인입니다. 대다수가 녹내장, 백내장 혹은 충분히 치료 가능한 시각 장애를 안고 있죠.”라고 핑그리 박사는 설명했다.

교회 인도주의 서비스에서 주요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딘 워커 형제는 교회 지도자들과 인도주의 선교사들이 개발도상국의 구체적인 필요사항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요청이 접수되면 우리는 그 지역의 필요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우리는 일년에 10개 내지 15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많은 사람들의 시력을 향상시켜 주는 시술을 행하는 보건 관계자들을 지도합니다.”라고 워커 형제는 덧붙였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무카씨의 눈에는 세상이 한결 달라 보인다. 그녀는 “이제 저는 대학에 가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셨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

후기 성도 의사들이 시력을 되찾게 해주다

블렌디나 무카는 사시 혹은 사팔뜨기라는 병 때문에 유년시절을 힘들게 보냈다. 고국 알바니아에서 몇 년간 치료를 받았지만 차도가 없던 차에, 인도주의적 여행 차 알바니아를 방문한 한 미국 의사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어렸을때부터 저는 사팔뜨기였어요. 아버지는 저에게 의사의 진찰을 받게도 하셨습니다. 의사는 제게 약간의 안약과 안경만 주었죠. ... 의사들은 제 눈을 치료하지 못했어요. 제 눈 상태는 더욱 나빠졌지만 항상 저는 언젠가 눈이 괜찮아지리라는 희망을 갖고 살았어요.”라고 무카씨는 말했다.

시각장애에도 불구하고 이 알바니아 소녀는 부지런히 노력하여 커서는 아주 능숙한 전문 재봉사가 되었다.

무카씨의 여동생이 교회에 가입했을 때, 시각 장애가 있던 이 소녀가 광명을 되찾을 길이 열렸다. 무카씨의 여동생의 침례에 참석한 교회 인도주의 서비스 선교사들이 무카씨에게 미국에서 온 교회 안과 의사들이 일하는 후기 성도가 후원하는 병원에 오라고 초대했던 것이다.

아이오와 대학의 소아 안과 의사로 있는 릭 올슨 박사는 무카씨의 눈을 수술했다. 수술에 앞서, 무카씨와 그녀의 여동생, 그리고 친구들은 올슨 박사와 함께

고 싶어요. 기적은 정말 일어난답니다.”
라고 말했다. ■

브리검 영 대학교-하와이의 새로운 총장으로 임명된 윌라이트 형제

2007년 6월 5일,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하버드 경영 대학원의 교수이자 교무 처장이었던 스티븐 찰스 윌라이트 형제를 BYU 하와이의 신임 총장으로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의 컨퍼런스 센터에서 힝클리 회장은 “저는 윌라이트 총장이 BYU 하와이를 성공적으로 이끌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전문 지식과 여러 인맥을 통해 그분이 BYU 하와이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이 우수한 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학생들의 삶을 축복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발표에 이어, 윌라이트 총장은 위성 중계를 통해 참여한 BYU 하와이 학생들에게 힘차게 “알로하”라고 외치며 그들을 맞이했고 이번 임명이 큰 영광이라고 말했다.

“저는 BYU 하와이와 그 사명을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교는 영적인 학문과 세상적인 학문을 결합하고 이 훌륭한 젊은이들의 인격과 이해력의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윌라이트 총장은 말했다.

힝클리 회장은 BYU 하와이가 1955년에 단과대학으로 처음 개교한 이래로 이제 70여 국가에서 온 2,400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가장 다문화적인 대학교가 되었다고 말했다.

윌라이트 총장은 아시아 지역을 포함하여 많은 다른 문화권에서 온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하버드 경영 대학원의 MBA 프로그램의 전 학장으로서 그는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과 일했고 상당수의 학생들을 비즈니스 직종에서 일하도록 도와주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는 BYU 하와이 학생들이 졸업 후 자기 고국으로 돌아갈 때 이 비즈니스 관련 네트워크가 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은 윌라이트 총장은 프랑스 퐁텐블로의 국제 경영 대학원인 INSTEAD의 교수로서 1년간 일했다. 그 후 줄곧 하버드와 스탠포드 대학에서 가르쳤다.

약 30년전, 하버드 대학에서 그는 전 하버드 경영 대학원의 학장이자 현재 BYU 아이다호의 총장인 킴 클라크 형제를 만났다. 클라크 총장은 윌라이트 총장이 아주 낙천적인 사람이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 대한 신념이 확고부동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윌라이트 총장은 하늘의 섭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며 그의 신앙으로 인해 커다란 신뢰를 줄 것입니다.”라고 클라크 총장은 말했다.

2006년 가을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퇴임하기 전에 윌라이트 총장은 하버드 경영 대학원의 옛셀 브라이언트 포드 교수, 베이커 재단 교수, 선임 부학장, 출판국장으로서 활동했다. 또한 그는 스탠포드 경영 대학원의 클라이너, 퍼킨스, 코필드, 브라이어스 경영학 교수를 역임했다.

젊은 시절, 윌라이트 총장은 스코틀랜드에서 선교사로서 교회를 위해 봉사했다. 그는 또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영국 런던 선교부의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하기도 했다. 윌라이트 총장은 스테이크 회장단의 보좌, 고등 평의원, 감독으로 봉사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퇴임한 후 그는 아내와 함께 BYU 아이다호에서 서비스(봉사) 선교사로 활동해 왔다.

윌라이트 총장은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성장했고 와이오밍의 스타벨리에 소 방목장을 소유하고 있으며 5명의 자녀와 15명의 손자 손녀를 두고 있다.

BYU 하와이에서 1966년부터 여러 직분에서 봉사했고 1994년부터 총장을 역임한 에릭 비 셴웨이 전 총장의 뒤를 이어, 이제 윌라이트 총장이 BYU 하와이 총장직을 맡게 된다. ■



새로운 BYU 하와이 총장인 스티븐 시 윌라이트 박사가 솔트레이크시티에서 하와이 라이에로 생방송 중에 대학 교수진과 직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07년 10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을 위한 보충 제언



다음은 초등학교 지도자들이 2007년 10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보충 제언이다. 이러한 제언에 해당하는 공과와 유의 사항과 활동에 대해서는 이번 호 친구들의 친4쪽과 친5쪽에 있는 “너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를 참조한다.

1. 초등학교 시작 전에 양의 그림을 그린다.(그리는 방법은 초등학교 2, 제23과 혹은 초등학교 1 그림 1~8을 참조한다.) 한 어린이당 2마리의 양을 그린다. 한 양에는 그 아이의 이름을 써 넣고 다른 한 양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는다. 초등학교 교실 벽에 양 그림을 붙여놓는다.

요한복음 10장 14절을 읽는다. 어린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비유를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어린이들에게 그들 각자는 양과 같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 혹은 지도자라고 말한다. (“비유,” 교사, 가장 위대한 부름(1999년), 163~164쪽 참조) 초등학교 본부 회장인 쉐럴 란트 자매는 이렇게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의 이야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각의 어린이들을 알고 계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분은 니파이인들의 아이들을 알고 계셨고 오늘날의 아이들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들이 그분의 사랑을 느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각각의 어린이들이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간증을 얻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은 어린이들이 의로운 삶을 통해서 오는 하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Primary open house address, 2006년 9월)

복음 그림 패킷 240(예수 그리스도)을 초등학교 교실의 앞쪽에 붙여둔다. 아이들이 자신의 이름이 붙어 있는 양을 찾도록

하고 그 양을 선한 목자에게 데려오도록 한다. 반주자에게 아이들이 차례 차례 그들의 양을 찾고 교실 앞쪽으로 그 양을 가지고 올 때 조용하게 연주하도록 부탁한다. 모든 어린이들이 다 그렇게 하면, 그들에게 아직 초등학교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은 많은 양들이 있다고 상기시켜준다. 누가 복음 15장 4절을 읽는다. 반주자에게 다시 연주하도록 한 뒤, 각각의 어린이들이 이름이 붙어 있지 않은 양들 중 한 마리를 고르게 한다. 어린이들에게 우리 속으로 데리고 올 수 있게 초대할 수 있는 누군가를 생각해 보도록 한다. 그 양 그림에 그 친구의 이름을 쓰게 한 뒤 집으로 가지고 가서 선한 목자를 따르도록 이 “양(그 친구)”을 초대하도록 상기시킨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며 그분은 자신의 양인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다고 간증한다.

2. 활동적인 교회 회원을 초등학교에 초대하여 선교사들이 가르치는 구도자인 것처럼 행동하게 한다. 그 회원에게 종이에 커다란 물음표를 쓰도록 한 뒤 서츠에 붙이게 한다. 그 회원이 주머니나 가방에서 물음표를 쓴 종이 몇 장을 꺼내도록 한다. 어린이들에게 이 회원은 질문이 아주 많다고 설명해 준다. 어린이들에게 이 구도자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을 만큼 복음을 잘 알고 있냐고 질문한다. 질문에 답하기 놀이를 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어려운 부분은 어린이들이 모 든 질문에 노래로 답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님이 아이들에게 “여러분은 누구 죠?”라는 질문을 먼저 하게 한다. 반주자가 “난 하나님의 자녀”(어린이 노래책, 2~3쪽)의 전주 부분을 조용히 연주하게 한다. 그런 뒤 어린이들이 노래를 부름으로써 질문에 답하게 한다. 계속 질문을 하고 노래하고 답하기를 반복한다. 각각의 노래를 부른 후, 손님에게 그 질문과 답을 되풀이해서 말하게 한다. 예를 들어 “아, 알겠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에 오셨군요.”라고 말이다. 노래를 부름으로써 답할 수 있는 또 다른 질문은 “태어나 기 전에 나는 어디서 살았죠?” “신앙이란 무엇이죠?” “조셉 스미스는 어디서 몰몬 경을 얻었나요?” 등이다. 각 질문에 답하기 위해 어떤 노래를 부를 것인지 어린이들이 결정하게 한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원할 때만 힌트를 준다.

어린이들이 초등학교 노래를 통해서 복음을 배우고 있음을 이해시킨다. 복음에 대한 간증과, 복음을 배우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음악의 중요성에 대해 간증을 전한다. ■

명절,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나라 최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추석이지났다. 멀리 떨어져 살던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명절은 사랑과 정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하지만 때때로 명절은 그 의미가 퇴색된 채 형식적으로 변하거나 피곤하고 귀찮은 날이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우리 후기 성도들은 어떻게 명절을 보냈을까? 항상 특별한 명절을 보내는 두 가정을 소개한다.

대전 스테이크 이준우 감독 가족

이준우 공주 와드 감독과 이향우 형제, 이철우 형제, 그리고 이건욱 형제는 친형제지간이다. 모두 교회 회원인 그들은 명절이 되면 가족을 데리고 이준우 감독 집에 모인다. 그때부터 그들 4형제의 특별한 명절이 시작된다. 명절 연휴 동안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함께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경전을 읽는 이른바 '하루 열기'와 '하루 닫기'를 하는 것이다. 스무 명 가까운 대가족이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은 흡사 청소년 대회나 청년 대회와 같은데, 그런 시도가 가족 간의 단합과 사랑을 공고히 해 주는 것은 물론이다. 이준우 감독 4형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가족간의 유대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돌아가신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영의 세계에 계신 그분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한다. 이준우 감독 가족의 명절은 영적이고 조용한 것만은 아니다. 결혼 전에도 늘 유쾌했던 이 4형제는 명절 때 만나면 간단한 게임을 한다. 벌칙은 설거지. 자매들에게 휴식을 주기 위해 설거지 당번을 정해서 돌아가며 설거지를 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게임을 준비해서 모든 가족이 함께 즐기는 특별 가정의 밥 또한 이준우 감독 가족의 명절에서 빠질 수 없는 행사다. 이준우 감독은 "후기 성도답게 명절을 보내려고 노력하면서부터 가족들 간에 더욱 단합의 영을 느끼고, 함께 모이는 것이 더욱 즐겁고 기대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족 안에서) 후기 성도의 명절 전통을 세우려는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해나갈 생각입니다."라고 말한다.

서울 동 스테이크 이우영 회장 가족

큰집인 이우영 회장 집에는 명절이면 많은 가족들이 모여 늘 시끌벅적하다. 서로 안부를 묻고 둘러 앉아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는 모습은 어느 가정과 다른 명절 풍경이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언가가 다르다. 식사를 마치고 나면 모든 가족이 둘러앉은 가운데 조상의 옛 사진 등을 정리한 슬라이드 상영이 이어지는 것이다. 또한 덕담을 적은 한문 글귀를 가족 단위 별로 발표하기도 하고, 이우영 회장이 작성한 개인 조상철(PAF)를 소개하기도 한다. 개인 조상철에는 직계 가족 등 1,000명이 입력되어 있다. 또한 이우영 회장이 소장하고 있는 조상의 얼이 들어있는 서적, 안경, 도장, 증서 등을 정리하여 가족들에게 소개한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이우영 회장 가족들은 조상과 밀접하게 호흡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2000년도 초부터 유산으로 받은 각종 자료를 정리하여 명절 가족 모임에서 나누고 있다는 이우영 회장은 특별한 명절을 보내게 된 동기에 대해 "교회의 가족 역사 사업이 동기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한다. 이우영 회장이 정리한 각종 유산을 명절 때마다 듣고, 보는 것이 가족 모두에게는 매우 큰 즐거움이다. 이우영 회장 가족의 특별한 명절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매년 스테이크 내의 선교사들을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하며 가족 기록과 유물을 소개하는 것이다. 벌써 몇 년째 이어온 전통이다. 특별한 명절 보내기를 통해서 친척들이 교회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고, 흥미를 보이는 것이 가장 큰 소득이라고 말하는 이우영 회장은 "명절은 조상을 위한 구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과 기쁨을 누리는 날"이라고 이야기한다. ■



주님의 집으로 가는 길

새벽 4시, 사방이 어둠에 휩싸인 그 시각에 순천 지방부 청소년들이 모였다. 잠이 덜 깬 듯 눈을 비비기도 하지만 모두 단정한 모습이다. 청소년들은 대기하던 버스에 몸을 싣는다. 이윽고 버스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출발하자 피곤해 하던 그들의 눈이 돌연 생기를 띤다. 그보다 조금 늦은 새벽 5시 무렵 대구에서 또 한 대의 버스가 출발했다. 거기에 타고 있는 대구 스테이크 청소년들도 들뜬 표정이긴 마찬가지. 동이 터 햇살이 비치기 시작할 때쯤 이번에는 대전 스테이크 청소년들을 실은 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했다.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는 대전 청소년들의 얼굴에도 기대감이 서려있다. 그렇게 전국 각지에서 청소년들을 실은 차가 출발했다.

지난 9월 8일, 출발한 시각과 장소는 다르지만 그들 모두가 도착한 곳은 바로 한국 서울 성전. 대리 침례를 위해 순천, 대구, 그리고 대전에서 올라온 청소년들은 기지개를 켜 새도 없이 서둘러서 성전으로 들어갔다. 피곤하고 지칠 법도 하지만 청소년들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행복하게 만드는지 성전을 찾은 청소년들에게 직접 물어봤다.

대구 스테이크 - 주님께 기도드리고 싶어서

대구 스테이크 박영진 형제는 올해 중학교 1학년이다. 작은 키에 빨간 넥타이, 그리고 귀여운 외모까지 아직 어린 티를 벗지 못한 그의 입에서 어른스러운 말이 쏟아진다. “제가 대리 침례를 하는 이유는 아직 선교사로 나가지는 못 하지만 대리 침례를 통해서 (영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 형제는 대리 침례가 어떤 것인지 완벽하게 이해하

고 있었다. 그의 이야기가 끝나자 옆에 서 있던 김병우 형제가 훌륭하다며 어깨를 두드려줬다. 김병우 형제는 고등학교 3학년. 수능 시험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바쁘지 않느냐고 묻자 김 형제는 고개를 끄덕인다. “바쁘고 대학도 중요하지만 선교 사업과 군대 중 어떤 것을 우선으로 할지 주님께 기도드리고 싶어서...”

늘 공부에 지치고 시간에 쫓겼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주님께 기도드리고 싶다는 이유로 성전을 찾는 모습에 감동하고 있을 때, 김 형제가 의젓하게 웃으며 친구 두 명을 소개한다. 그가 개종시킨 친구들이고 역시 모두 고등학교 3학년이란다. 그 중 침례 받은 지 한 달 된 전보성 형제는 “처음으로 대리 침례를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는다. 또 다른 친구인 정기훈 형제는 바쁜 고등학교 3학년 생활 중에도 성전에 오기에 합당하기 위해 경전을 읽고 기도를 하는 등 많은 준비를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성전에 꼭 오고 싶었던 이유에 대해 “우리 조상들을 위한 가족 역사 사업에 대해 듣고 느끼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대구 스테이크 청소년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성전을 찾는다. 그래도 일 년에 다섯 번을 넘지 않을 때가 대부분이다. 청소년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차비와 먼 거리가 그들과 성전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 스테이크 청소년들에게 성전은 더욱 각별하다. 주님의 집인 성전은 자신의 용돈을 모으고, 시간을 희생해서라도 기꺼이 찾고 싶은 곳이다. 박소영 자매는 성전을 찾기 위해 선생님께 어렵사리 승낙을 얻어 학교를 빠졌다. 그만큼 성전에서 주님께 기도드리고 대리 침례를 받고 싶



대구 스테이크 청소년들. 성전에 오면 항상 행복하다.



대전 스테이크 청소년들. 그들에게는 성전 방문이 당연한 일이다.

었다. 성전에 대한 그들의 순수한 간증과 열망이 9월 햇살보다 더 깊고 찬란하다.

대전 스테이크 - 일찍 일어나게 됩니다

대전은 대구와 순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서울과 가깝다. 그래도 길게는 세 시간, 짧게는 두 시간 정도 걸린다. 오전 의식을 위해서는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야 한다. 피곤할 법도 한데 의식을 마친 후 성전 뜰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대전 스테이크 청소년들의 얼굴은 환하기만 하다. 한층 깊어진 가을 햇빛이 그들의 젖은 머리카락에 반사 되어 눈부시게 반짝인다. 고등학교 1학년인 윤성진 형제는 “성전에 온다는 생각을 하면 일찍 일어나게 된다.”고 말한다. 그는 또 “힘들고 피곤하기는 하지만 성전에 오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이야기한다. 중학교 2학년인 최윤영 자매도 거든다. “올 때는 피곤할지 몰라도 막상 오면 오기를 잘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전 침탑의 모로나이 상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짓는 최윤영 자매의 뒤에는 언니인 최서영 자매가 서 있다. 최서영 자매는 대리 침례를 할 때마다 자신의 조상들도 누군가에 의해서 침례를 받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면 더욱 열심히 대리 침례를 하게 된다는 최 자매는 “(조금 피곤하다고) 안 와서 후회하는 것 보다 와서 기뻐하는 게 좋다.”며 전국의 청소년들에게 성전에 올 것을 권했다. 고등학교 1학년인 김경지 자매도 자신들이 하는 대리 침례가 “영의 세계에 있는 그분들을 구원해 주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성전의 중요성, 그리고 대리 침례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한다.

늦잠, 공부, 친구와 놀기, 그리고 휴식을 뒤로하고 성전에 온 대전 스테이크 청소년들.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찾은 성전에서 그들은 행복과 평안을 얻었다고 입을 모은다. “저희는 침례를 받았으니까 그렇지 못한 조상들께 침례를 주는 것은 당연한 의무지요. 의무를 다하고 나면 흥분하고 행복하잖아요.” 윤성진 형제의 말처럼 대전 스테이크 청소년들은 바람처럼 가벼운 표정이다.



먼 거리를 달려 왔지만 순천 지방부 청소년들의 얼굴에는 활기가 넘친다.

순천 지방부 - 하나님을 만나려고

순천에서 서울까지는 꼬박 여섯 시간이 걸린다. 새벽 별이 찬란할 때 출발해서 동이 터서 아침이 밝아 올 때야 서울에 도착할 수 있다. 그 긴 시간동안 청소년들은 배고픔과 졸음, 그리고 멀미에 시달린다. 그럼에도 순천 지방부 청소년들은 기꺼이 성전을 찾는다. 여섯 시간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그 어떤 지방의 청소년들보다 더 자주 성전에 방문한다. 그게 다 중학교 1학년인 김채린 자매의 말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느냐는 질문에 김 자매는 분명한 어조로 “느낌을 받았어요.”라고 말한다. 장세진 형제는 전날 막 수학여행을 끝내고 곧바로 성전으로 왔다. 여독이 채 가지지 않았다는 장 형제에게 성전은 본인에게 어떤 곳이냐고 물으니 “오고 싶은 곳이다.”라는 간단한 대답이 돌아온다. 장 형제는 이어서 “생활하면서 안 좋은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는데 성전에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잊을 만큼 좋은 느낌을 받아요. 성전에서 하나님 영을 가장 잘 느낄 수 있어요.”라고 이야기한다. 뒤질세라 순천 지방부 청소년들의 성전 예찬이 펼쳐진다. “깨끗하고 평화롭다.”는 대답에서 “개인적인 계시를 받는다.”는 의미심장한 대답까지, 그리고 “라면이 맛있어요.”라는 천진한 대답까지 무척 다양하다. 고등학교 1학년인 황예지 자매는 “성전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올만큼 의미 있는 곳”이라는 말로 동생들의 대답을 정리한다. “성전에 오는 건 힘이 안 들어요. 조그만 희생을 통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하면 뿌듯하거든요.” 황 자매뿐만 아니라 다른 청소년들의 얼굴에도 뿌듯함이 서려있다. 늦잠을 잘 까봐 걱정돼서 밤까지 잤다는 배우리 자매와 두 달에 한 번은 꼭 성전에 온다는 이수빈 자매는 입을 모아 “희생을 통해서 성전에 오는 것은 더 많은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자신들만의 간증을 들려준다. “대리 침례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무고, 그러니까 실행해야죠.”라는 장규리 자매의 마지막 말에 일제히 고개를 끄덕이는 순천 지방부 청소년들, 그들의 젊음과 신앙은 성전 뜰의 나무보다 싱그럽고 푸르다.

인터뷰 도중 청소년들에게 물었다. 새벽에 일어나고, 학교를 빠지고, 몇 시간이나 버스를 타면서까지 왜 성전에 오느냐고. 대리 침례, 하나님, 기도 등 여러 대답 중에 대구 스테이크의 전보성 형제가 우문에 현답을 했다. “그냥, 좋으니까!” 그것도 모르느냐는 듯 크게 웃는 청소년들의 얼굴이 아름답다. 그렇다. 그들은 ‘그냥 좋기’ 때문에 성전을 찾는 것이다. 순수한 신앙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집은 세상 어느 곳보다도 ‘좋은 곳’이다. 이제 그들은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잠을 잘 것이다. 잠결에도 얼굴에는 미소가 피어오르지 모른다. 다음 성전 방문을 기대하며

..... ■

리아호나 릴레이



서울 강서 스테이크 개봉 와드 윤종희 형제는 한 권의 리아호나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누구보다 잘 안다. 개종하기 전, 그는 리아호나가 아직 '성도의 빛'으로 불릴 때 형 앞으로 온 성도의 빛을 매달 꼬박꼬박 읽었다. 단지 그 책에 담긴 내용이 좋았기 때문이다. 그는 성도의 빛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좋은 인상을 키웠다. 책을 읽으며 참 착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는 생각을 했다는 윤 형제는 결국 침례를 받았다. 그는 지금 개봉 와드 리아호나 담당자로 봉사하고 있다. 개봉 와드 회원들의 리아호나 신청을 받고, 구독을 독려하는 것이 그의 일이다. 지난 2년여 동안 윤 형제는 “한 가정에 한 권의 리아호나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하는 의문을 갖는 회원들에게 “경전처럼 리아호나도 한 사람이 한 권씩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계속해서 설득했다. 그 결과 개봉 와드는 현재 전국에서 가장 많은 리아호나를 구독한다. 백 명 남짓한 개봉 와드 회원들 중 글을 읽지 못하는 유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한 권씩을 받아 본다. 그리고 나머지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도자와 저활동 회원, 그리고 영어 회화반 반원들에게 기증한다. 기증을 받은 사람은 기회가 생기면 또 다른 사람에게 기증을 한다. 그야말로 리아호나 기증 릴레이이다.

승자와 패자가 없고, 결승선 또한 없는 릴레이는 ‘리아호나를 전하는 것은 축복을 전하는 것이다.’라는 전병기 개봉 와드 감독의 확신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는 손수 리아호나를 챙긴다. 게시판에 붙여놓은 리아호나 구독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회원들 개개인이 리아호나를 읽을 수 있도록 독려한다. 전병기 감독은 리아호나를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 “살아 있는 선지자의 말씀이 담긴 리아호나는 경전처럼 필수입니다. 리아호나에는 회원들에게 중요한 지침이 많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다.

감독의 확고한 신념과 리아호나 담당자의 노력 외에도 개봉 와드가 리아호나 구독수를 증가시키는 데는 두 가지 비결이 더 들어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스테이크의 지원이다. 개봉 와드가 속한 서울 강서 스테이크에는 ‘리아호나 담당 고등평의원’이 별도로 있다. 올해 초까지 리아호나 담당 고등평의원으로 봉사했던 조태환 형제는 “스테이크 내의 리아호나 구독 현황을 파악하고 구독을 독려하는 것”이 담당 고등평의원의 임무라고 말한다. 그는 또 “개봉 와드의 경우처럼 구

독 만료시기 두 달 전부터 미리 챙기고, 선교 사업의 일환으로 리아호나를 모든 구도자에게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의 말처럼 개봉 와드 회원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수시로 리아호나를 나눠준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비결이다. 회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야말로 자칫 성과 중심의 구독 장려로 비칠 수 있는 리아호나 릴레이에 진정성을 부여한다. 주변 사람들에게 기꺼이 리아호나를 나눠준다는 개봉 와드 회원들은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것처럼 좋은 말씀이 들어있는 리아호나도 나누다.”고 입을 모은다. 그들의 넉넉하고 후한 인심 때문인지 개봉 와드를 한 번이라도 찾은 사람은 와드 분위기가 따뜻하다고 말한다. 또한 개봉 와드는 초등학교 어린이에서부터 머리카락 하얀 어른까지 친절과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고 존경과 신뢰로 상대방을 높인다. 그것이 모두 “리아호나가 끈이 되기 때문”이라며 윤종희 형제는 말한다. “저희 와드가 제일 많이 구독한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다만 저도 처음에는 기증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증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회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작은 기증이 모여서 이제는 어느덧 219부가 되었다. 개봉 와드 회원들은 자신들의 기증이 구도자와 저활동 회원의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또한 전병기 감독의 말처럼 “리아호나를 항상 가지고 다니면 늘 주님의 영광 함께 할 것”이라는 간증을 잊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개봉 와드의 리아호나 릴레이는 현재진행형이다. 220번째 주자를 향해 손을 내미는 그들에게 ‘리아호나’는 그 옛날 리하이 가족을 인도했던 것처럼 올바른 길을 제시해 줄 것이다. ■



“레디!”

여름이 지나가고, 청년 대회도 끝났건만 청년 독신들의 이마에는 여전히 땀방울이 가득하다. 11월 10일로 성큼 다가온 ‘제2회 전국 청년 독신 예술제-영상제’ 준비를 위해서다. 청년 독신들의 간증과 열정, 그리고 재능과 젊음을 영상에 담기 위해 노력하는 그들을 취재했다. 그들의 입에서는 설 새 없이 “레디!”가 튀어나온다.



1



2



3



4



5



6



7

다섯 종교 교육원에서 준비하는 각기 다른 작품들. 하지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같았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통해 얻는 기쁨과 행복이다. 그들의 작품이 공개되는 11월이 기다려진다.

광주 종교 교육원 7

작품명: 리턴

시놉시스: 교회 음악이 주인공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복음의 빛이 그를 변화시키는 과정을 섬세하게 다룰 예정이다. 특히 마지막 반전은 관객을 깜짝 놀라게 할 것이다.

부산 종교 교육원 6

작품명: 마지막 춤을, 그대와 함께(가제)

시놉시스: 한 형제와 자매의 연애 이야기를 통해 후기 성도 청년 독신들이 가져야 할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한다. 오래가는 향기 같은 영적인 메시지를 많은 이들에게 전달하고 싶다.

서울 동 종교 교육원

작품명: 영원한 결혼

시놉시스: 세상의 가치관이 어떻게 사랑과 결혼은 정말로 신성한 것이고 주님의 권능으로 영원할 수 있다는 것을 전하고자 한다.

서울 서 종교 교육원 1 2

작품명: 양 한 마리(가제)

시놉시스: 은행 강도가 된 한 청년이 극적인 사건을 겪으며 개종하게 되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회개와 개심, 그리고 자녀를 위한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나타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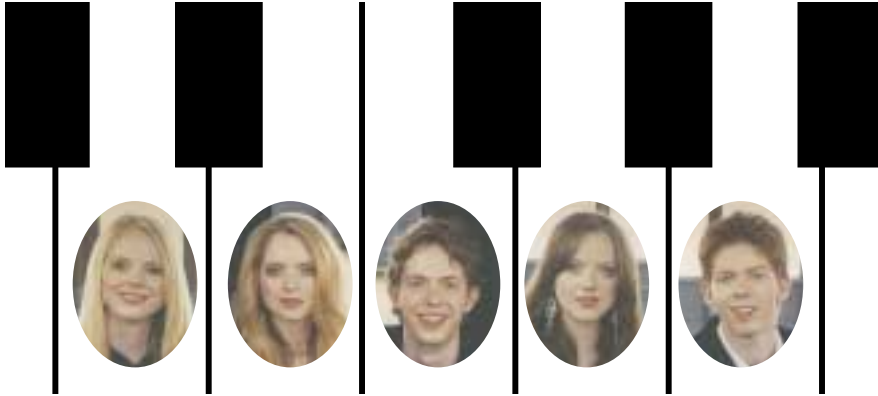
중부 종교 교육원 3 4 5

작품명: 애니메이션(가제)

시놉시스: 클레이애니메이션에 도전하는 중부 종교 교육원은 재미와 물고기, 그리고 선교사 이야기를 통해 평안, 고난, 슬픔, 인내, 그리고 다시 평안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재미있게 펼쳐 보일 예정이다.

더욱 특별한 사실

2007년 9월 7일 성남 아트센터 콘서트홀.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모인 관객들이 무대를 바라보며 시작 전부터 웅성거렸다. 피아노 때문이었다. 한 무대에 다섯 대의 피아노가 놓여 있는



진날의 화려한 조명과 세련된 무대 대신 사랑과 평화가 가득했다. 아름다운 선율로 아이들의 마음을 위로한 더 파이브 브라운즈가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리셉션장. 한국 공보위원회에서 주최

한 리셉션은 국내의 유명 인사들을 초청해서 더 파이브 브라운즈와 후기 성도적인 가치에 대해 알리는 시간이었다. 초청 인사들의 큰 박수 속에 연주를 마친 이들은 “음악을 하는 것과 종교적인 영감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음악은 영적인 것과 매우 관련 있다. 신앙을 통해 가족과 하나가 될 수 있었고 그것이 우리 남매들이 호흡을 맞춰 연주를 하는 비결이다.”라고 답했다.

데지레(27), 데온드라(25), 그레고리(23), 멜로디(21), 그리고 막내 라이언(20)까지 ‘브라운’ 가문의 다섯 남매로 이뤄진 ‘더 파이브 브라운즈(The 5 Browns)’는 모두 줄리아드 음악원에서 피아노를 전공한 젊은 피아니스트다. 다섯 남매가 모두 피아노를 전공하고 거기다가 함께 연주 활동을 하는 모습은 미국에서도 큰 화제가 됐다. 이들은 유수의 음반사와 계약을 했고, 유명 토크쇼에 출연하면서 세인들의 관심거리가 되었다. 미국에서는 이들의 등장을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까지 보며 열렬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더 파이브 브라운즈를 더욱 특별하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이들 모두가 후기 성도라는 사실이다. 뛰어난 연주 솜씨만큼이나 돋보였던 다섯 남매의 겸손함과 단정한 무대 복장은 후기 성도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2007년 9월 6일 처음으로 한국을 찾은 이들, 더 파이브 브라운즈와 그의 부모, 그리고 둘째인 데온드라의 남편이자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인 브라이언은 2박 3일 동안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첫 일정이었던 성남 아트센터에서의 공연은 성황리에 치러졌다. 다섯 명이 동시에, 때로는 두 명이, 때로는 세 명이 함께 피아노를 연주하는 모습은 환상적이면서도 아름다웠다는 찬사를 얻었고, 연주자의 감정이 듬뿍 실린 음들은 시종일관 조화를 이루었다. 마지막 곡이 끝난 후 울려 퍼진 기립박수는 공연의 성공을 알리는 축포였다. 다음날인 토요일, 더 파이브 브라운즈는 일산에 있는 ‘홀트 일산 복지 타운’으로 이동해서 자그마한 자선 공연을 펼쳤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 앞에서 펼쳐진 공연은

한 리셉션은 국내의 유명 인사들을 초청해서 더 파이브 브라운즈와 후기 성도적인 가치에 대해 알리는 시간이었다. 초청 인사들의 큰 박수 속에 연주를 마친 이들은 “음악을 하는 것과 종교적인 영감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음악은 영적인 것과 매우 관련 있다. 신앙을 통해 가족과 하나가 될 수 있었고 그것이 우리 남매들이 호흡을 맞춰 연주를 하는 비결이다.”라고 답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이자 안식일이었던 2007년 9월 9일, 더 파이브 브라운즈는 가장 소박한 무대에서 연주를 했다. 오래된 피아노 한 대가 전부였던 신당 와드 예배당, 이들을 보기 위해 참석한 많은 회원들 앞에서 더 파이브 브라운즈는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이고 아름다운 연주를 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 곡을 끝낼 때마다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나와 간증과 말씀을 전했다는 사실이다. 다섯 남매의 어머니인 브라운 자매는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가르친 것이 이렇게 큰 결과를 낳을지 몰랐다.”라고 말하며 “우리는 교회 회원으로서 세상을 위해 훌륭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간증했다. 다섯 남매가 전하는 간증도 피아노 연주만큼이나 감동적이었다. 후기 성도 청소년들이 겪는 똑같은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자란 이들은 신앙에 대해 회의를 느끼기도 했고, 피아노 연주에 대해 자신감을 잃기도 했지만 어려울 때마다 가족의 사랑과 기도로 극복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전했다. 이들 ‘브라운 가족’이 한국의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한 것은 가족이 함께 부른 찬송가 ‘나의 집에 사랑이 차고 넘치면.’ 아무런 반주 없이 가족의 사랑만을 배경으로 부르는 그 진솔한 찬송에 참석한 모든 이들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값진 추억을 남기고 간 더 파이브 브라운즈는 다음을 기약하며 9월 10일 월요일, 한국을 떠났다. ■

대전 스테이크 (이호선 기자)

가분수 모임 2007년 8월 15일 대전 스테이크에서 우정을 더하고 사랑을 나누



는 아름다운 나무들이라는 뜻을 가진 청년 연합인 가분수(더할 '가,' 나눌 '분,' 나무 '수') 모임이 중부 종교 교육원 주최로 있었다. 대전, 청주, 그리고 홍성 독신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우정을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된 이번 모임은 훌륭하게 준비된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가분수>의 의미를 더욱 새길 수 있었다.

청소년 대회 2007년 8월 2일부터 4



일까지 2박 3일동안 충남 부여군 거전면에서 대전 스테이크 청소년 대회를 가졌다. 청소년들은 대회 기간동안 직접 뗏목을 만들어 강에 띄우기도 했다.

서울 동 스테이크 (이지은 기자)

청소년 대회 2007년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 동 스테이크는 곤지암 한국 스카우트 연맹 야영장에서 하계 청소년 대회를 가졌다. 이번 대회에 참석한 70여명의 청소년들은 익숙하지 않은 야영 생활을 신앙과 우정으로 극복하면서 즐겁고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기사 제공: 김홍민 형제>

서울 동 종교 교육원 (이지은 기자)

청년 대회 2007년 8월 1일에서 4일

모집합니다



리아호나 출판실에서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작품을 모집합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12월호 지역 소식에도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작품을 실을 예정입니다. 신화를 구성하는 세 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에 대한 간증은 물론이고 어떤 형태의 작품이라도 좋습니다. 직접 지은 시, 그림, 직접 찍은 사진 등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순수한 재능을 표현할 수 있는 작품을 보내주시시오.

부문

1. 신화(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신)에 대한 간증
2. 신화(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신)에 대한 그림, 사진, 시, 조각 등

유의 사항

반드시 초등학교 어린이의 순수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작품을 이메일로 보낼 때는 jpg로 저장해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2007년 10월 23일까지

보내실 곳

우편: 서울시 성동우체국 사서함 22호
한국 관리 본부 리아호나 담당자 앞 (우편 번호 133-600)
팩스: 02-2235-1395

이메일: leemh@ldschurch.org(이민희),
aron1979@hanmail.net(전건우)
문의 전화: 02-2232-1441 (내선 번호 564)



지역 단신

주: 지역 단신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더 많은 정보는 웹사이트 www.lds.or.kr의 '회원과 방문자를 위한 소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에 걸쳐 충북 청원군 청소년 수련원에서 서울 스테이크, 서울 동 스테이크, 영동 스테이크, 동대문 스테이크와 강릉 지방부 청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 종교 교육원 청년 대회가 있었다.

서울 영동 스테이크 <이진희 기자>

청소년 대회 2007년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3박 4일 동안 경기도 가평 '제3마당'에서 영동 스테이크 청소년들이 모여 그들만의 여름 이야기를 만들었다. 이번 대회는 여느 해와 달리 차량 준비에서 식사, 장소, 프로그램 등 모든 것을 청소년들이 스스로가 준비하였다.



순천 지방부 <조연화 기자>

노년의 모임 2007년 8월 26일, 순천 지방부 여수 지부에서 한국 서울 성전 회장 내외와 함께 노년의 모임을 가졌다. 9월 8일 지방부 성전 방문을 앞두고 가진 이번 모임에서 전종철 성전 회장은 다리를 절단하고도 먼 길을 걸어 다니며 솔트레이크 성전 건축 선교사로 봉사했던 존 몰리 형제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현대의 우리 성도들에게는 성전을 방문해 봉사하는 것이야말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고 우리의 몸을 또 하나의 성전으로 새롭게 건축하는 일"이라며 성전 봉사를 강조했다.

인천 스테이크 <백봉욱 기자>

대구, 인천, 홍성 합동 청소년 대회 2007년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3박 4일 동안 강원도 영월 동강 캠프에서 인천 스테이크 길영권 회장과 대구 스테이크 배덕수 회장의 감리로 청소년 대회가 개최되었다. 150여명의 청소년이 참석한 이번 대회는 "젊었을 때 지혜를 배우라."는 주제로 정원회 활동을 강화하는 '16킬로미터 베이스 활동'과 '동강 래프팅 프로그램'을 통해 아론스권 형제들과 청년들이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우리는 정원회 회원입니다.'라는 '16킬로미터 베이스 활동'을 통해 많은 청소년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할 수 있다

는 자신감과 스스로의 성취감을 얻게 되었다.



전주 스테이크 <이나나 기자>

축구 대회 2007년 8월 15일 전주 스테이크와 광주 스테이크의 축구 대회가 열렸다. 정읍 공설 운동장에서 치러진 이번 축구 대회는 각 지역마다 2팀씩 참가하여 시합을 하였다. 아침 일찍부터 비가 많이 왔지만 날씨에 아랑곳하지 않고 경기를 진행했고, 형제들은 그동안 숨겨왔던 축구 실력을 마음껏 뽐냈다.

초등회 셋별 대회 2007년 8월 18일 전주 스테이크 센터는 초등회 어린이들로 가득 찼다. 초등회 셋별 대회 때문에 전주 스테이크의 초등회 어린이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셋별대회는 10시부터 4시 30분까지 진행되었다. 종이 접기를 한 오전 활동과 체육 활동을 한 오후 활동으로 진행됐다.

농구단 창단식 2007년 8월 25일 전주 스테이크 농구단인 '전주세인트' 농구단 창단식이 있었다. 청소년과 청년 독신, 그리고 기혼 성인들의 체력 증진과 우



정을 도모하고 성인과 청소년간의 상호 향상과 청소년들의 선교 사업을 위한 기회를 갖기 위해 농구단이 창단 되었다. 특별히 이날 창단식에는 광주 스테이크 농구단이 참석하여 자리를 더욱 빛내주었다. ■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안양 스테이크

안양 와드와 평촌 와드가 합쳐져 안양 와드로 됨
안양 와드 감독: 김원주(전임: 안양 와드: 김원주, 평촌 와드: 김희영)

청주 스테이크

예성 와드 감독: 최영준(전임: 심재승)